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편집증에서 정신분열증으로

- 엘리아스 카네티의 『현혹』에 나타난 광기의
미학과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비판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김 태 완

편집증에서 정신분열증으로

- 엘리야스 카네티의 『현혹』에 나타난 광기의 미학과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비판

지도교수 정 항 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김 태 완

김태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엘리야스 카네티의 소설 『현혹』에 나타난 광기와 젠더(남성성)의 문제를 상호 연관성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킨은 학문, 질서, 이성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강조하는 한편, 여성을 섹슈얼리티와 비합리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고 혐오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젠더 질서에서 나타나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성적 남성 주체인 킨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의 이성중심주의는 광기와 연결됨으로써 비판되고 해체된다.

카네티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대변하는 킨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닌 편집증 환자임을 폭로한다. 확실함에 집착하는 킨은 오로지 학문적 개념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이때 학문 세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킨은 여성을 자신의 선형적인 여성혐오적 사고 틀에 맞추어 판단한다. 또한 킨은 아내를 쫓아내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망상 속에서 책과 도서관을 갑옷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킨의 남성 판타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킨은 책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구원하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성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처럼 카네티는 이성·남성중심주의적 사고체계가 사실은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편집증적 사고체계이며, 권력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킨은 테레제와의 권력 다툼에서 점차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데, 이를 통해 그에게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음이 암시된다. 그는 환각에 시달리며 그녀를 시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은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로써 킨의 주권회복 시도는 좌절된다. 킨은 자신의 ‘신체적인 눈’을 실명시키고 모든 감각적 자극을 차단하는데, 이로 인해 극도로 폐쇄적인 자폐적 사고가 생겨난다. 킨은

자신의 비현실적 망상 속에서 테레제의 치마를 갈기갈기 물어뜯는 사냥개로 변신한다. 이는 한편으로 권력에 대한 이성적 남성 주체의 욕망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동물적인 차원의 충동을 암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은 극도로 이성적인 킨의 사고체계가 연상적이고 카오스적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고체계로 전환됨으로써 해체된다.

서술 전략의 차원에서도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광기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카네티는 킨의 과장된 언어를 반복하거나 편집증 환자들 사이의 소통 불가능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에 내재된 편집증적 사고방식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또한 카네티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를 자신만의 미학적인 방식으로 전유한다. 『현혹』에서 주인공 킨의 무의미한 언어가 반복될 때, 이는 그가 더 이상 이성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신의 정신적 고향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카네티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비일상적인 언어구조를 차용하여 킨의 내면을 재구성하되, 그것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구성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신분열증적 광기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주요어: 편집증, 정신분열증,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권력, 서술 전략, 광기의 미학, 카네티

학 번: 2018-20333

목 차

서론	1
1. 연구사 및 문제제기	1
2. 연구방향	12
I.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과 편집증적 망상	14
1.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14
1) 학문, 질서, 이성	14
2) 이성중심주의와 여성혐오	18
2. 과대망상과 남성 판타지	25
1) 개념을 통한 현실 인식	25
2)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	33
3) 구원에 대한 망상	39
II. 정신분열증과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해체 ...	48
1. 유아론적 남성성과 환각	48
1) 유아론과 현실성의 상실	48
2) 죽음에 대한 공포	53
2. 자폐적 사고와 군중 충동	60
1) 인식 수단으로서의 눈 감기	60
2) 동물로의 변신	66
3) 비이성적 사고체계와 군중 상징으로서의 불	75

Ⅲ. 광기의 미학: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비판을 위한 서술 전략	84
1. 편집증적 광기 비판	84
1) 과장의 반복	84
2) 의사소통의 부재	88
2. 정신분열증적 광기와 미학적 글쓰기	99
1) 무의미한 언어의 반복을 통한 귀향 서사구조의 해체	99
2) 비일상적 언어구조	105
결론	111
참고문헌	114
Zusammenfassung	124

그림 목차

[그림 1]	40
--------------	----

서론

1. 연구사 및 문제제기

엘리아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 Masse und Macht』에서 권력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의 내면을 연구한다. 예컨대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심리상태를 비교하거나, 진전섬망증¹⁾ 환자의 환각에서 지배자로서의 인간과 피지배자로서의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읽어낸다. 또한 그는 편집증 환자 슈레버 Daniel Paul Schreber의 회상록을 분석하면서 편집증과 권력욕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신병과 광기에 대한 카네티의 관심은 초기작 『현혹 Die Blendung』에서도 잘 드러난다. 작가로서 카네티는 자신의 소설에서 광기와 정신병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그는 극단적인 착란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병자들의 인간희극 Comédie Humaine an Irren’이라는 표제 아래 여덟 권으로 된 연작소설을 구상하고, 각각의 작품에서 서로 다른 여덟 명의 정신병 환자의 모습을 묘사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²⁾ 『현혹』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광기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³⁾ 또한 『현혹』에서도 광기는 등장인물들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

1) 진전섬망(震顛譫妄, Delirium tremens)은 알코올 금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섬망 및 환각 상태를 의미한다.

2) 카네티가 구상한 8명의 정신병 환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다. ‘진실에 집착하는 인간 Wahrheitsmensch’, ‘공상가 Phantast’, ‘종교적 광신자 religiöser Fanatiker’, ‘수집가 Sammler’, ‘낭비벽이 심한 인간 Verschwender’, ‘죽음 혐오자 Tod-Feind’, ‘배우 Schauspieler’, ‘책벌레 Büchermensch’. 이 중에서 ‘책벌레’가 『현혹』의 주인공 ‘페터 킨 Peter Kien’이 된 것이다. 카네티의 소설 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Elias Canetti: Der Pavillon der Irren. In: ders.: Die Fackel im Ohr. Frankfurt a.M. 1995, S. 299-300.

3) 카네티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이 소설은 1928년과 1929년 작가가 두 차례에 걸쳐 베를린을 방문한 후 그곳에서 받은 혼란스러운 인상을 해소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카네티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베를린이 마치 ‘정신병자들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모두 맹목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정신병 환자들이다.

『군중과 권력』과 『현혹』이 광기와 정신병에 대한 카네티의 일관된 관심을 보여준다면, 두 작품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빈 모더니즘에 대한 카네티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현혹』이 특정한 역사적 분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더니즘의 시대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면, 『군중과 권력』은 모더니즘 시대와 모더니즘 문화에서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려 한다.”⁴⁾ 다시 말해 『군중과 권력』이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인류학적 차원의 성찰을 담고 있다면, 초기작 『현혹』은 여전히 빈 모더니즘⁵⁾에서 통용되었던 젠더 코드의 자장 안에서 움직이

의 세상 eine Welt von Irren'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한다. Vgl. Canetti: Das erste Buch: Die Blendung. In: ders.: Das Gewissen der Worte. Frankfurt a.M. 1995, S. 242-243.

또한 『현혹』 집필 당시 카네티는 빈 근교에 있는 하킹 Haking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창밖으로 맞은편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의 도시 die Stadt der Irren' 슈타인호프 Steinhof를 내다볼 수 있었다. 당시 슈타인호프에는 약 6,000여 명의 정신병 환자가 모여서 생활하는 '오토 바그너 정신병원 Otto-Wagner-Spital'이 있었는데, 카네티는 이들을 관찰한 경험이 『현혹』 집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Vgl. Canetti: Das erste Buch: Die Blendung, S. 236.

이뿐만 아니라 카네티는 한 수상소감문에서 그 당시 정신병 환자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이 이후 40년간 '정신병자들의 닫힌 세계 die abgeschlossene Welt der Irren'에 몰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Vgl. Canetti: Unsichtbarer Kristall. Aus der Rede bei der Verleihung des Großen Österreichischen Staatspreises am 25. Jänner 1968. In: ders.: Aufsätze - Reden - Gespräche. München 2005, S. 68-69.

- 4) Bernd Widdig: Männerbünde und Massen. Zur Krise männlicher Identität in der Literatur der Moderne. Wiesbaden 1991, S. 206: "Während *Die Blendung* als eine Reaktion auf eine bestimmte historische Atmosphäre in das Zeitgeschehen der Moderne eingewebt ist, sucht *Masse und Macht* [...] sich dieser Zeit und ihrer Kultur so weit wie möglich zu entziehen."
- 5) 스페인계 유대인이었던 카네티(1905-1994)는 일곱 살 때부터 빈에서 살다가,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영국으로 망명한다. 『현혹』을 구상하기 직전인 1929년 카네티는 빈 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빈 근교

고 있는 것이다. 작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920-30년대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여성혐오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⁶⁾ 『현혹』에서 끊임없이 여성혐오적 토포스가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당시 빈의 시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소설이 독창적인 것은 광기와 젠더라는 서로 다른 두 주제를 서로 결부시켜 다루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주인공 킨은 온갖 광기 증세를 보이는 정신병 환자이면서 동시에 극단적인 여성혐오자이다. 그는 이성중심주의를 신봉하는 남성으로서 여성 인물인 테레제와의 권력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네티가 『균중과 권력』에서 인류 보편적인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현혹』에서는 젠더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현혹』의 두 가지 핵심 주제인 광기와 젠더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광기를 다룬 연구가 등장인물의 정신병 증상과 그로테스크한 작중 세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젠더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이 소설에 나타난 여성혐오의 양상과 여성혐오적 남성의 그로테스크함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광기를 다룬 연구의 역사는 『현혹』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기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작가나 평론가들은 『현혹』에 나타난

에 살면서 『현혹』의 착상과 집필을 마무리한다. 카네티가 독서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빈 모더니즘의 문학과 사상에 매우 정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네티의 약력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엘리야스 카네티(이은화 옮김): 현혹. 지식의숲 2007, 612-614쪽.

- 6) “내가 이 무리[친구들 무리]에서 만난 다른 녀석들은 고급 문학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고만장했다. 칼 크라우스가 아니더라도 바이닝거나 쇼펜하우어가 언급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여성혐오자나 인간혐오자가 아니었지만, 염세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어구는 특히 인기가 많았다. Andere Burschen, die ich in diesem Kreise traf, gefielen sich im Hochmut der höheren Literatur: wenn es nicht Karl Kraus war, so waren es Weininger oder Schopenhauer. Pessimistische oder frauenfeindliche Sätze waren besonders beliebt, obwohl keiner von ihnen ein Frauen- oder Menschenfeind war.” Canetti: Der Buddhist. In: ders.: Die Fackel im Ohr, S. 76f.

광기라는 독특한 소재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봉디 François Bondy는 이 소설에 대해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대단히 불쾌한 책”⁷⁾이라고 평가했으며, 『현혹』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연구자나 작가조차도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그리스 Claudio Magris는 『현혹』을 세기의 책으로 꼽으면서도,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제 삶을 파괴하는 지식인의 그로테스크한 이야기”⁸⁾라는 말로 소설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다. 엔첸스베르거 Hans Magnus Enzensberger 역시 『현혹』은 순진한 독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책, 문학적 괴물”⁹⁾일 것이라고 말한다.

1970-8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본격적으로 광기와 정신병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로버츠 David Roberts는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의 단자론에 빗대어 주인공 킨을 “맹목적인 내적 욕망에 휘둘리는, 창이 없는 모나드”¹⁰⁾로 지칭한다. 마그리스는 카네티가 자아의 해체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는 편집증적 인물의 심리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 파울 J. M. Paul은 자기 만족적인 성격을 띠는 학문의 세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킨을 편집증 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편집증 증상에 탈출구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현

7) François Bondy: »Die Stimmen von Marrakesch«. In: Neue Zürcher Zeitung, 12.11.1968. Zitiert nach Sven Haneck: Elias Canetti. Biographie. München 2015, S. 229: “außerordentlich unangenehmes Buch, [...] das ich nie wieder lesen möchte”

8) Claudio Magris: Donau. Biographie eines Flusses. Aus dem Italienischen von Heinz-Georg Held. München u. Wien 1988. Zitiert nach ebd.: “[Die] groteske Geschichte einer delirierenden, lebenszerstörenden Intelligenz”

9) Hans Magnus Enzensberger: August-Lektüre. Elias Canetti *Die Blendung*. In: Gerhard Melzer/ Kurt Bartsch(Hrsg.): Dossier 25. Elias Canetti. Graz 2005, S. 140(urspr. In: Der Spiegel vom 7.8.1963): “ein unerträgliches Buch, ein literarisches Monster”

10) David Roberts(Übersetzt von Helga Wagner/ Fred Wagner): Kopf und Welt.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München 1975, S. 45: “fensterlose Monade[], getrieben von [...] blinden inneren Begierden”

11) Vgl. Claudio Magris: Der Schriftsteller, der sich versteckt.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S. 184.

혹』이 ‘절망적인 무의미함’을 다룬 소설이라고 주장한다.¹²⁾ 카르스트 Roman Karst는 정신병 환자 킨과 그가 지닌 내면의 군중 충동 사이의 갈등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르스트는 킨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규정한다.¹³⁾ 슈 Franz Schuh는 ‘타자’는 ‘자아’에 의해 정의된다고 본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을 통해 킨의 의식 구조를 설명한다. 슈에 따르면 오직 정신적 삶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킨과 육체성으로 대변되는 타자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정신분열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¹⁴⁾ 1970-80년대의 광기에 관한 연구는 ‘정신병을 지닌 개인’과 ‘외부세계’ 혹은 ‘개인’과 ‘내면의 낯선 군중’ 사이의 긴장 관계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의 메커니즘 자체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델 Michael Madel은 킨의 유아론적인 측면을 분석하면서 카네티가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진 채 현실을 부정하는 개인을 비판하고 있으며, 1935년에 출판된 『현혹』이 1960년대에 영국의 정신과 의사 랭 Ronald D. Laing이 제시한 정신분열증 증상을 선취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¹⁵⁾ 바흐만 Beatrix Bachmann은 랭의 정신분열증 이론을 작품 분석에 적용하면서, 킨이 마그리스가 주장한 것처럼 능숙하게 외부현실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광기의 세계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12) Vgl. Jean-Marie Paul: Rationalität und Wahnsinn in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S. 121 u. S. 127.

13) Cf. Roman Karst: Elias Canetti's *Die Blendung*. A Study in Insanity.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pp. 141-142.

14) Vgl. Franz Schuh: Blendung als Lebensform. In: Friedbert Aspetsberger/Gerald Stieg(Hrsg.): Elias Canetti. Blendung als Lebensform. Königstein/Ts 1985, S. 29-31.

15) Vgl. Michael Madel: Solipsismus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Untersuchungen zu Thomas Bernhards Roman *Frost*, Arno Schmidts Erzählung *Aus dem Leben eines Fauns* und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Pieterlen u.a. 1990, S. 175-214.

16) Vgl. Beatrix Bachmann: Wahn und Wirklichkeit. Der Diskurs des Wahnsinns am Beispiel vo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Remscheid 1994, S. 153.

또한 『현혹』이 정상성과 구분되지 않는 병리적이고 정신분열적인 의사소통 구조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카네티가 ‘절망적인 무의미함’을 다루고 있다고 본 파울을 비판한다.¹⁷⁾ 크눌 Heike Knoll은 칸트의 인식론과 킨의 인식론을 비교하면서, 칸트의 보편적 이성과 윤리적 정언명령이 근대적 인물인 킨에 이르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킨의 근대적 인식론은 감각적 경험과 현실은 배제한 채 오로지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자기질서의 유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¹⁸⁾ 킨과 『몽유병자들 Die Schlafwandler』의 주인공 에쉬 Esch를 비교하고 있는 페츠 Bernhard Fetz는 『현혹』에 나타난 킨의 이야기가 그로테스크한 수난사에 비견될 만하며, 그의 죽음은 삶에 재통합되는 것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본다.¹⁹⁾

『현혹』에 나타난 광기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신현숙의 논문 세 편을 들 수 있다. 신현숙은 작품의 시공간을 분석하거나²⁰⁾, 킨의 욕망과 광기의 관계를 지적하거나²¹⁾, 개인 충동과 군중 충동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탐구한다.²²⁾ 세 편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신현숙은 킨의 자기기만적

17) Vgl. Bachmann: Wahn und Wirklichkeit, S. 278.

18) Vgl. Heike Knoll: Das System Canetti. Zur Rekonstruktion eines Wirklichkeitsentwurfes. Stuttgart 1993, S. 24-85.

19) Vgl. Bernhard Fetz: Die Logik des Wahns. Brochs Buchhalter Esch und Canettis Büchernarr Kien. In: Penka Angelova(Hrsg.): Elias Canetti und Hermann Broch. St. Ingbert 2009, S. 17 u. S. 28.

20) 신현숙은 킨의 닫힌 사고체계가 외부세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설의 현실은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Vgl. Hyun-Sook Shin: Wirklichkeitsphobie. Raum und Zeit im Wirklichkeitskonzept von Peter Kien in der *Blendung*. In: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124(2012), S. 303-330.

21) “킨은 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잃어가는 혹은 온전히 잃어버리고 싶은 욕망에 집착하는 인물에 해당된다. [...] 이러한 욕망과 집착 속에서 현실세계는 외면되고 왜곡되며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외면과 왜곡 그리고 부정은 곧 인간 자신의 고립과 소외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는 폭력과 자기파괴라는 광기적 현상으로 귀결된다.” 신현숙: 이성인가, 현혹인가? 작품 『현혹』과 주인공 페터 킨.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61집(2013), 464-465쪽.

인 성격을 강조하고²³⁾, 그의 몰락과 파멸을 필연적 결과로 간주한다.

수용 초기에 평론가들이 제기한 불만 섞인 비판과 견주어 보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광기를 다룬 연구는 『현혹』에 나타난 주인공 킨의 광기와 정신병의 기제를 상당 부분 명료하게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다소 단순화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킨은 학문과 지성의 세계에 집착하고, 외부세계 혹은 미지의 군중의 세계를 혐오하며,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지독한 정신병 증세를 보인다. 광기에 휩싸인 킨은 결국 자신의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자살한다.’

비교적 일관된 흐름 속에서 진행된 광기에 대한 연구와 달리 젠더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여성혐오에 대한 카네티의 입장을 놓고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몇몇 평론가나 연구자들은 킨의 여성혐오적 사고 방식을 근거로 하여 카네티를 여성혐오자로 간주한다. 손택 Susan Sontag은 자신의 비평집에서 『현혹』이 “여성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작품”²⁴⁾이라고 말한다. 손택이 보기에 카네티는 여성혐오자다. 시몬 Tyler Simon은 『현혹』에서 바이닝거 Otto Weininger의 남성중심주의적 철학이 부분적으로 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카네티가 여성성을 배제하는 바이닝거 식의 ‘지성적 남성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본다.²⁵⁾ 카네티는 수차례 자신이 여성혐오자가 아님을 항변했지만²⁶⁾, 그럼

22) 신현숙: 군중과 기만. 카네티의 『현혹』을 중심으로.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33집 (2015), 91-123쪽 참조.

23) “책들에 대한 탐욕에서 드러나는 킨의 군중 충동은 따라서 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일한 권력이고 싶은, 킨의 숨겨진 욕망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사랑으로 가장된 것이라면 킨의 군중 충동은 자기기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신현숙: 군중과 기만, 114쪽.

24) 수전 손택: 열정의 정신. 실린 곳: 수전 손택(홍한별 옮김): 우울한 열정. 이후 2005, 151쪽.

25) Cf. Simon Tyler: Homage or Parody? Elias Canetti and Otto Weininger. In: Ritchie Robertson(ed.): Gender and Politics in Austrian Fiction. Edinburgh 1996, pp. 134-149.

이러한 맥락에서 시몬은 ‘『현혹』이 바이닝거에 대한 패러디인가 아니면 오마주인가?’라는, 자신이 논문 제목으로 제시한 질문에 대해 ‘오마주’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도 불구하고 카네티의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손택이나 시몬과 달리 오히려 카네티가 바이닝거를 패러디하고 있다고 보았다. 쾨더 Elfriede Pöder는 자신의 논문에서 바이닝거의 『성과 성격 Geschlecht und Charakter』과 『현혹』 1장의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면서 카네티의 비판적 의도에 주목한 바 있다.²⁷⁾ 더 나아가 판кау Johannes G. Pankau는 카네티가 전통적인 방식의 심리 묘사를 거부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의 전형을 형상화함으로써 바이닝거를 넘어선다고 본다.²⁸⁾ 두 연구는 『성과 성격』과 『현혹』의 연관성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26) 카네티 연구자인 포엘 Kristie A. Foell에 따르면 카네티는 자신이 여성혐오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닝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포엘은 마테스와 자이츠 Matthes & Seitz 출판사가 카네티에게 1980년에 출간되는 『성과 성격』 재판(再版)의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했으나 카네티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Cf. Kristie A. Foell: Whores, Mothers, and Others. Reception of Otto Weininger's *Sex and character* in Elias Canetti's *Auto-da-Fé*. In: Nancy A. Harrowitz/ Barbara Hyams(ed.): Jews and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ennsylvania 1995, p. 245 u. p. 300.

27) Vgl. Elfriede Pöder: Spurensicherung. Otto Weininger in der *Blendung*. In: Friedbert Aspetsberger/ Gerald Stieg(Hrsg.): Elias Canetti. *Blendung* als Lebensform. Königstein/Ts 1985, S. 57-72. 슈티그 Gerald Stieg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바이닝거의 “실험적 소설” 『성과 성격』은 베른하르트에 훨씬 앞서 이미 카네티의 『현혹』에서 미학적으로 완성된 형상을 갖추었다. 물론 동의가 아니라 “엄밀”하고 풍자적인 “과장”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Der “experimentelle Roman” Weiningers mit dem Titel *Geschlecht und Charakter* hat allerdings längst vor Bernhard in Canettis *Blendung* seine vollendete ästhetische Gestaltung gefunden, allerdings nicht in der Form der Zustimmung, sondern als “präzise” satirische “Übertreibung”.” Gerald Stieg: Otto Weiningers *Blendung*. Weininger, Karl Kraus und der Brenner-Kreis. In: Jacques Le Rider/ Norbert Leser(Hrsg.): Otto Weininger. Werk und Wirkung. Wien 1984, S. 61.

28) Vgl. Johannes G. Pankau: Körper und Geist. Das Geschlechterverhältnis i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Colloquia Germanica 23(1990), S. 153 u. S. 156.

에 이루어진 연구는 모두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이러한 작가의 비판적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여성 인물에 집중한다. 포엘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여성 인물이 처한 트라우마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여성 인물인 테레제가 킨에 의해 이상화되거나 남성의 상상 속에서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말한다.²⁹⁾ 자신의 또 다른 논문에서 포엘은 여성 인물을 통해서 바이닝거의 여성성 이론이 패러디된다고 주장한다. “[『현혹』은] 여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 그리고 개선된 처우에 대한 여성의 동기부여가 바이닝거가 단순하게 “W[여성성]”으로 환원시킨 것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⁰⁾ 포엘이 여성 인물들의 비극적 상황과 소설의 소극적 어조에 찬착한다면, 도나휘 William Collins Donahue는 이러한 포엘의 해석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카네티의 여성 인물 묘사에 나타난 반어적 성격에 주목한다. 도나휘에 따르면 『현혹』은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묘사함으로써 주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오스트리아 (남성) 지식인들의 여성혐오적 성향과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하위문화와 상위문화의 여성혐오적 성격을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³¹⁾

29) Cf. Kristie A. Foell: *Blind Reflections. Gender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California 1994.

30) Kristie A. Foell: *Whores, Mothers, and Others*, p. 254: “it shows women, their situations, and their motivations to be a good deal more varied and complex than Weininger’s reduction of “W”.”

31) Cf. William Collins Donahue: “Eigentlich bist du eine Frau. Du bestehst aus Sensationen”. *Misogyny as Cultural Critique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71(1997), pp. 668-700.

그러나 포엘과 도나휘의 페미니즘적 해석은 여성 인물의 성격을 왜곡하여 해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테레제는 돈과 섹슈얼리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소시민적 속물주의와 쾌락추구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또 테레제는 자신의 남편인 킨을 잔혹하게 구타하여 도서관 밖으로 내쫓는다. 따라서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항상 혐오의 대상이나 피해자의 모습

1990년대 이후 독일어권의 연구는 영미권 연구와 달리 여성혐오적 성향을 보이는 남성 인물에 주목한다. 비디히 Bernd Widdig는 모더니즘 시기의 ‘남성 결사 Männerbünde’ 담론의 맥락에서 『현혹』에 나타난 여성혐오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킨의 도서관이 여성에 대한 배제를 토대로 하는 ‘남성 결사’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주장한다.³²⁾ 리브란트 Claudia Liebrand는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작품 분석에 적용하면서 『현혹』이 킨으로 대변되는 상징계의 작동 원리를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브란트는 여성을 타자로 간주하는 이러한 지배적 문화재현 체계를 포착해야 비로소 킨의 환각에 나타난 여성 살해 충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³³⁾ 주로 양성 간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있는 빔머 Marta Wimmer는 킨을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구순기 혹은 항문기에 고착된 사디즘적 주체로 간주하고, 『현혹』이 이러한 유아론적 학자상(像)을 통해 여성혐오라는 문화적 토포스를 보여준다고 말한다.³⁴⁾

젠더 문제에 집중한 연구는 대부분 『현혹』과 『성과 성격』의 상호텍스트성을 인정한다. 또한 카네티가 여성혐오의 양상을 그로테스크하게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여성 인물이나 남성 인물 중 어느 한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현혹』에 나타난 여성혐오의 양상을 지적하면서 카네티가 피해자로서의 여성 혹은 극단적인 여성혐오자로서의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광기를 다룬 연구는 광기 담론의 맥락에서 『현혹』을 분석하면서 킨의 정신병적 사고체계가 필연적으로 몰락과 자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카네티가 폐쇄적이고 불가해한 정신병 환자의 의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인물을 오직 희생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32) Vgl. Widdig: Männerbünde und Massen, S. 184.

33) Vgl. Claudia Liebrand: Jahrhundertproblem im Jahrhundertroman. Die “Frauenfrage” in Canettis *Die Blendung*. In: Thomas Mann Jahrbuch 14(2001), S. 31-32.

34) Vgl. Marta Wimmer: Poetik des Hasses in der österreichischen Literatur. Frankfurt a.M. 2014, S. 234-236.

식세계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는 주인공의 광기를 통해서 자신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 킨의 여성혐오적 사고체계는 정신병 증상을 통해 비판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킨의 광기를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경우 그의 광기가 지닌 해방적인 측면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즉, 기존의 해석은 정신병 환자의 광기가 지니는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젠더 문제를 다룬 연구는 주인공 킨을 끔찍한 여성혐오자로 간주하고, 작중 세계가 전적으로 남성중심주의적인 젠더 질서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혹』에서 남성중심주의적 젠더 질서가 항상 공고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며, 지독한 여성혐오적 성향을 드러내는 주인공 킨은 그의 정신병 증세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오히려 점점 몰락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여성혐오적 남성의 그로테스크함뿐만 아니라 그의 몰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젠더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해체의 계기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인다.

카네티가 주인공인 킨을 통해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비판한다고 할 때, 이러한 비판적 의도는 그의 광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현혹』에서는 확고한 헤게모니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인물이 사실은 자신의 망상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광기와 남성성³⁵⁾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고 작품을

35) 『현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테레제와 같은 여성 인물 역시 비판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소설과는 거리가 멀다. 카네티의 여성혐오 비판은 오히려 남성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혹』에 나타난 젠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의 시각보다는 헤게모니를 지닌 남성성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남성성 연구’의 시각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젠더 연구의 일환으로서 ‘남성성 연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하시오. 빌리 발터(탁선미 옮김): 젠더, 성, 남성연구. 실린 곳: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슈테판 잉에(탁선미 외 옮김):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 2002, 147-168쪽 및 Michael Kaufman: Die Konstruktion von Männlichkeit und die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작가의 비판적 의도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³⁶⁾ 또한 광기와 젠더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카네티가 킨의 이성중심주의와 광기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연구방향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현혹』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은 광기와 젠더 문제를 전면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서로 다른 두 주제가 사실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같은 목표로 수렴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킨의 이성중심주의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고방식이 다양한 정신병 증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카네티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어떤 식으로 비판 및 해체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카네티의 독특한 서술 전략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광기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I 장에서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사고체계와 편집증적 망상의 관계를 다룬다. 카네티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으로서 칸트와 바이닝거의 철학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주인공 킨과 칸트 및 바이닝거 철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테레제와의 갈등 상황

Triade männlicher Gewalt. In: Stefan Beier u.a.(Hrsg.): Kritische Männerforschung. Neue Ansätze in der Geschlechtertheorie. Hamburg 2001, S. 138-171.

36) 예외적으로 후루야 Shinichi Furuya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부분적으로 광기와 젠더 문제를 함께 언급하지만, 매체환경의 변화라는 주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이는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뿐이다. 후루야에 따르면 킨은 변화된 매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텐베르크적 활자 문화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다. Vgl. Shinichi Furuya: Masse, Macht und Medium. Elias Canetti gelesen mit Marshall McLuhan. Bielefeld 2017, S. 17-63.

에서 나타나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사고체계가 사실은 편집증 환자의 사고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때 킨의 편집증적 망상에서 권력욕에 대한 암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균중과 권력』이나 테베라이트 Klaus Theweleit의 남성성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이다.

II장에서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 주인공 킨의 정신분열증 증상³⁷⁾을 통해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킨은 여성 인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성을 상실하고 점차 자신의 폐쇄적인 내면으로 침잠한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킨의 여성혐오적 성향이 드러나는 장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해석과는 다른 방식의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더 나아가 킨의 정신분열증 증상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 내부에서부터 해체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때 동물이나 균중 현상에 대한 카네티의 사유가 부분적으로 참조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카네티의 서술 전략을 다룬다. 먼저 카네티가 편집증 환자의 주관적 망상을 강조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과장기법을 사용하거나 인물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와 카네티의 미학적 글쓰기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그가 전통적인 귀향 서사의 구조를 해체하거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37) 의학계에서는 ‘정신분열증’ 대신 ‘조현병(調絃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맥락에 따라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현병은 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환자의 신경계 및 사고체계가 이완되어 있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개념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현병 개념이 아직까지는 주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며, 작중인물에 대한 카네티의 시선이 치료와 포용의 대상으로서 환자를 바라보는 임상의학의 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I.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과 편집증적 망상

1.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1) 학문, 질서, 이성

『현혹』의 주인공 페터 킨은 자신의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중국학 학자이다. 그가 쓴 논문은 그 이후에 나올 논문 수백 편의 기초자료가 될 정도로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동료 연구자들은 킨의 학문적 성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킨에게 편지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킨의 편지를 받은 학자는 그 안에 담긴 통찰만으로도 1년 이상 연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킨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 자신을 “이 시대 최고의 중국학 학자”³⁸⁾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사실 킨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동양학 분야에서 교수 자리가 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킨을 찾지만, 그는 모든 제의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교수직은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킨은 학술대회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대신 대리인을 보내 자신의 원고를 읽게 한다. 킨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학문적 체계, 즉 고문헌 텍스트를 복원하고, 자신을 비판한 논객을 지면을 통해서 재비판하고, 공자나 맹자와 같은 중국 사상가들을 연구하는 것뿐이다.

학문에 대한 집착은 킨의 질서 지향적인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은 특히 그가 생활하는 공간 묘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킨은 도시에서 유일하게 개인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2만5천권의 장서가 비치된 도서관은 킨에게 생활 공간이자 연구실이다. 도서관

38) Canetti: Die Blendung. Frankfurt a.M. 1995(이하 (BL 쪽수)로 표기), S. 291: “der wohl größte Sinologe der Zeit”

의 내부 구조는 연구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네 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모든 벽면은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과 책들로 빼곡하게 뒤덮여 있다. 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에 이르는 최단 경로이다. 이에 맞게 각 방을 연결하는 복도는 곧게 뻗어 있다. 킨은 거리를 내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천장에 있는 창문을 제외하고 서재에 있는 모든 창문을 막아버린다. 또한 킨은 항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정숙한 상태를 강조하는데, 이에 따라 서재의 바닥에는 코끼리가 지나가도 소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다.

도서관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이 배치되어 있다. 서재에 있는 가구는 원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책상과 의자 두 개,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데 필요한 사다리, 그리고 침대 대용으로 쓰이는 소파 하나가 전부이다. 또 킨은 아침에 재빨리 세면을 마치기 위해서 바퀴를 단 이동식 ‘세면 수레 *Waschwagen*’를 사용한다.³⁹⁾ 쓸데없는 가구는 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연구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자극을 모두 제거해버린 닫힌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질서에 집착하는 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카네티는 이러한 중국학 학자의 이름을 원래는 킨이 아니라 ‘칸트 *Kant*’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 *Immanuel Kant*’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1931년에 카네티가 소설을 완성했을 당시에는 작품의 제목 역시 『칸트 불에 타다 *Kant fängt Feuer*』였다. 카네티는 4년 뒤인 1935년 소설의 정식 출판을 앞두고 동료 작가 브로흐 *Hermann Broch*의 강력한 권고에 못 이겨 ‘칸트’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포기하

39) 헬두저 *Urte Helduser*는 킨의 방에 있는 가구들이 192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기능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학문적인 합리주의, 즉 철학적으로는 ‘이성중심주의 *Logoentrismus*’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Vgl. *Urte Helduser: Abstraktion und Re-Figuration. Kleiderdiskurs und Ästhetik des Ornaments i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Birgit Nübel/ Anne Fleig(Hrsg.): *Figurationen der Moderne. Mode, Pornographie und Sport*. München 2011, S. 91-92.

고 주인공의 이름을 ‘킨’으로, 소설의 제목을 ‘현혹’으로 바꾼다.⁴⁰⁾ 따라서 역사적 인물인 칸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허구적 인물인 킨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철학자’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킨은 전당포 테레시아눔에서 자신의 낡은 실러 전집을 저당 잡히려 온 한 대학생에게 실러 대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텍스트를 읽으라고 충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칸트 철학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칸트 불에 타다』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카네티는 칸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마치 캐리커처를 그리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킨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산책하는데, 이는 ‘걸어 다니는 시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산책했던 칸트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킨은 단순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엄격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생활에 집착적으로 매달린다. 킨은 6시에 기상하고, 6시 15분부터 7시까지는 산책할 때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책을 고른다. 산책을 끝낸 뒤 8시에는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고, 6시간의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정에는 잠자리에 든다. 나머지 깨어 있는 시간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연구에 몰두하는 시간이다. 킨은 정해진 일과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구역질이 났다.”⁴¹⁾

칸트는 신체에 대한 정신 혹은 이성의 우위를 강조한다. 그는 한 논문에서 자신이 유독 평평하고 좁은 가슴을 타고난 까닭에 젊었을 때 “건강염려증 Hypochondrie”을 앓았지만 정신적인 작업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이성적인 인간 ein vernünftiger Mensch”이라면 건강염려증 정도는 “확고한 결심만으로 durch den bloßen Vorsatz”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즉 신체의 병은 느낌에 근거한 마음의 병일 뿐이며, 이

40) Vgl. Canetti: Das erste Buch: Die Blendung, S. 246.

41) (BL 21): “Unpünktlichkeit verursachte ihm Brechreiz.”

42) Immanuel Kant: Von der Macht des Gemüts, durch den blossen Vorsatz seiner krankhaften Gefühle Meister zu sein.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Erster Teil

는 이성적인 결단을 통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킨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다. 학창시절 킨의 학교 선생님들은 그의 허약한 체질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평소에도 킨은 그의 허약한 신체가 불러일으키는 혐오감 때문에 행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난관들을 극복했고, 개인적인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⁴³⁾ 테레제는 의사에게 사다리에서 떨어진 킨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킨이 지난 8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킨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정신적인 학술작업에 매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킨은 깡마른 해골 모습을 한 것으로 묘사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치게 가는 다리 때문에 사다리에서 떨어진다. 부상을 당한 그는 결국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몸이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테레제에게 구타당한다. 이러한 묘사는 신체에 대한 정신적 질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에서 계몽의 핵심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칸트와 마찬가지로 킨은 자율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1983, S. 379-380.

43) (BL 119): “Er hatte sie[eine ununterbrochene Kette von Fällen] verwunden, an persönlichen Schmerzen litt er nicht.”

44) “계몽은 인간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함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다. 미성숙함의 원인이 이성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결심과 용기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미성숙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 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의 구호이다. *Aufklärung ist der Ausgang des Menschen aus seiner selbst verschuldeten Unmündigkeit. Unmündigkeit ist das Unvermögen, sich seines Verstandes ohne Leitung eines anderen zu bedienen. Selbstschuldet ist diese Unmündigkeit, wenn die Ursache der selben nicht am Mangel des Verstandes, sondern der Entschließung und des Mutes liegt, sich seiner ohne Leitung eines andern zu bedienen. [...] Habe Mut, dich deines eigenen*

적인 이성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킨은 처음에는 테레제가 일자 무식인 가정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테레제가 오늘날 규율과 교양이 사라져버렸으며 교육 수준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자 그 말에 동조하며 그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당신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다니 기쁘오. 배우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법이오.”⁴⁵⁾ 읽을 책을 한 권 추천해달라는 테레제의 말을 들은 킨은 그다음 날 소설책 한 권을 테레제에게 빌려준다.⁴⁶⁾ 그러나 결혼 이후 킨의 판단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왜냐하면 테레제는 오직 결혼을 위해서 책에 관심이 있는 척 행동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킨의 이성적 사고는 일상적인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이 폭로된다. 이렇듯 카네티는 칸트의 성격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킨이 맹목적으로 질서와 규칙, 정신과 이성에 집착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이성중심주의와 여성혐오

시몬은 『현혹』을 빈 모더니즘 시기의 ‘주체의 위기 Die Krise des Subjekts’ 담론⁴⁷⁾의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카네티가 이성적 주체인 킨을

Verstandes zu bedienen! ist also der Wahlspruch der Aufklärung.”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Ers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1983, S. 53.

45) (BL 36): “es freut mich, daß Sie so vernünftig denken. Lernen ist alles.”

46)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킨의 입장은 칸트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칸트는 시민사회에 속한 모든 여성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빌려주는 장면에서 킨은 테레제를 자신이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 여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Kant: Von den Schwächen und Krankheiten der Seele in Ansehung ihres Erkenntnisvermögens.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Zwei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10). Darmstadt 1983, S. 522.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러한 결론은 바이닝거 철학에 대한 몇몇 긍정적 평가⁴⁹⁾를 근거로 하여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바이닝거가 주체의 해체 및 비합리와 ‘가치의 상실’로 대변되는 당시의 세대에 거리를 두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주체를 회복하려 했다면, 자신의 소설에서 이성적 주체인 킨을 등장시키고 있는 카네티는 그러한 바이닝거적 주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닝거의 시도가 사실은 남성중심주의적인 질서를 수복하려

47) 세기전환기 빈에서 활동했던 물리학자 마흐 Ernst Mach는 자아가 유동적인 감각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감각 복합체 Empfindungskomplex’에 불과하며, 그것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아를 구할 길은 없다고 단언한다. Vgl. Ernst Mach: Antimetaphysische Bemerkungen. In: ders.: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 Jena 1919, S. 18-20.

바 Hermann Bahr 역시 이러한 마흐의 결론(“자아를 구할 길은 없다. Das Ich ist unrettbar.” Mach: Antimetaphysische Bemerkungen, S. 20)을 인용하면서 통일적 주체의 허구성을 강조한다. “자아는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Es[Das Ich] ist nur ein Name. Es ist nur eine Illusion.” Hermann Bahr: Das Unrettbare Ich. In: ders.: Dialog vom Tragischen. Vezensy 2009, S. 74.

48) Cf. Tyler: Homage or Parody? Elias Canetti and Otto Weininger, p. 147.

49) 빈 모더니즘은 ‘주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자아의 해체와 가치의 붕괴를 인정하고 나르시시즘적 주관주의와 유희주의를 긍정한 ‘청년 빈 Jung-Wien’ 세대이며, 둘째는 주체의 해체에 반대하며 이성적·윤리적 주체를 재건하고 가치의 상실을 극복하려 했던 그 이후 세대이다. Vgl. Gottfried Gabriel: Solipsismus. Wittgenstein, Weininger und die Wiener Moderne. In: ders.: Zwischen Logik und Literatur. Erkenntnisformen von Dichtung,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Stuttgart 1991, S. 90.

비트겐슈타인과 더불어 후자에 속했던 바이닝거는 『성과 성격』에서 마흐의 경험론적 자아관을 비판하고, 사회적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성중심주의적 주체를 강조한다. 바이닝거의 입장이 비합리주의, 실증주의, 쾌락주의, 유물론, 도덕적 가치의 붕괴 등을 극복하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 기본 전제를 수립하려고 했던 전통적인 자유주의 노선에 속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Cf. Steven Beller: Otto Weininger as Liberal? In: Nancy Harrowitz(Hrsg.): Jews and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hiladelphia 1994, pp. 98-99.

는 시도였으며, 여성혐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⁰⁾ 바이닝거는 명료한 의식과 뛰어난 기억력을 지닌 천재를 이상적인 주체상으로 내세운다.⁵¹⁾ 또한 그에 따르면 명료한 의식과 천재적인 기억력을 지닌 개인만이 자아동일성을 보장함으로써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회복할 수 있다.⁵²⁾ 그러나 바이닝거는 이러한 지적 주체에는 남성적인 성격(M)을, 이와 반대되는 비논리적이고 경험론적인 자아에는 여성적인 성격(W)을 부여한다. 물론 그는 남성성(M)과 여성성(W)이 개별 남성이나 여성과는 다르며 인간 심리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가리킬 뿐이라고 말하지만⁵³⁾, 『성과 성격』에서 그것은 사실상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실제 남성 혹은 여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⁵⁴⁾ 따라서 바이닝거가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50) 계몽주의 이후로 ‘시민적 주체’는 줄곧 ‘남성’만을 의미해 왔다. 따라서 세기말 ‘주체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남성 주체의 위기’ 혹은 ‘남성성의 위기’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남성들은 여성을 철저하게 타자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즉, 빈 모더니즘 시기의 ‘주체의 위기’는 젠더 담론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바이닝거의 철학 역시 이러한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체의 위기’와 ‘남성성의 위기’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성기: 빈 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50-151쪽. 또한 세기말 ‘남성성의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Gregor Schuhen: Crisis? What Crisis? Männlichkeiten um 1900. Eine Einleitung. In: ders.(Hrsg.): Der verfasste Mann. Männlichkeiten in der Literatur und Kultur um 1900. Bielefeld 2014, S. 7-18.

51) 오토 바이닝거(임우영 옮김): 성과 성격.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39쪽 및 246쪽 참조.

52) “두려움은 개성이 해체되거나 절대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상실할 때나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 내면에 있는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것(즉, 칸트의 “이성”)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Furcht aber gibt es nur vor der Aufhebung der Individualität, vor dem Verluste des Zusammenhanges mit dem Absoluten, für den der Mensch durch das Logische und das Ethische in seiner Persönlichkeit (durch die »Vernunft« Kantens) Gewähr hat.” Otto Weininger: Über die letzten Dinge. Berlin 1980, S. 153.

53) 바이닝거: 성과 성격, 14-16쪽 참조.

54) Cf. Barbara Hyams/ Nancy A. Harrowitz: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Weininger Reception. In: Nancy Harrowitz(Hrsg.): Jews and

이성중심주의적 주체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가치 평가적인 이분법적 젠더 질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도나휘 역시 ‘주체의 위기’가 젠더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⁵⁵⁾ 그러나 도나휘는 『현혹』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과 여성혐오의 양상을 상세하게 분석할 뿐, ‘남성성’의 문제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킨의 이성중심주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의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는 학자로서 킨은 명확함이 자신이 하는 학문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제 학문은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나는 X를 U로,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철자도 그와 다른 철자로 착각하여 잘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⁵⁶⁾ 또한 킨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호흠이 킨 연설을 할 줄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도서관에서 소집령을 선포하는 장면, 테레시아눔의 경찰서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장면, 그리고 동생 게오르크와 격렬하게 논쟁하는 장면에서 킨은 어김없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게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는다. 이와 달리 킨의 시선에 비친 테레제는 유연장을 작성할 때 단어의 철자를 올바르게 쓸 줄도 모르고, 간단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구성하지도 못하는 인물이다.

또한 『현혹』에서 킨의 기억력은 유독 비상한 것으로 서술된다. 킨은 자신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자신의 경이로운 기억력”⁵⁷⁾과 뇌 구조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두개골을 뇌 연구에 기증한다. 특히 킨의 머릿속에 있는 ‘제2의 도서관’은 그의 기억력이 특출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실제 도서관만큼이나 자료가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제2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고 오직 자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hiladelphia 1994, p. 3.

55) Cf. Donahue: “Eigentlich bist du eine Frau. Du bestehst aus Sensationen”.

Misogyny as Cultural Critique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pp. 686–687.

56) (BL 331): “Meine Wissenschaft gebietet Klarheit, ich lasse mir kein X für ein U, noch sonst einen Buchstaben für einen anderen vormachen.”

57) (BL 18): “sein wahrhaft phänomenales Gedächtnis”

신의 머릿속 도서관의 장서만을 뒤져가며, 책상에 앉아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상세하게 상론하는 논문을 구상한다고 한다. [...]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력이 잘못된 경우를 단 한 번도 떠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⁵⁸⁾

위 인용문에 따르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은 킨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킨의 기억에 오류란 있을 수 없다. 그는 학창 시절에 자신이 썼던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고대 중국 성현들의 말씀을 읊을 수 있다. 또한 킨은 어렸을 때 유명한 심리학자에게 기억력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1분 동안 원주율(π)의 소수점 65번째 자리까지 외움으로써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서술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기억력은 정말로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⁵⁹⁾

이러한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킨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킨에게 학문적 논리와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가 보기에 학문은 그 자체로 도덕적 의무이자 윤리적 법칙이다. 킨은 학문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리와 동일시한다. “킨은 거짓말을 혐오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진리에 집착했다. [...] 그는 정각 8시에 자기 일, 즉 진리에 대한 봉사를 시작했다. 그에게 학문과 진리는 동일한 개념이었다.”⁶⁰⁾

이와 달리 명료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인식한 내용을 제대로 개념화하지도 못하는 테레제는 킨에게 혐오의 대상이다. 그가 보기에 자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억하지만, 그녀는 기억력이나 논리적 사

58) (Ebd.): “Er trage gleichsam eine zweite Bibliothek im Kopf, ebenso reichhaltig und verlässlich wie die wirkliche [...]. Er sitze an seinem Schreibtisch und entwerfe Abhandlungen, in denen er bis auf die exaktesten Einzelheiten eingehe, ohne, außer eben in seiner Kopfbibliothek, je nachzuschlagen. [...] Irgendeines Gedächtnisfehlers, der ihm je unterlaufen sei, könne er sich nicht entsinnen.”

59) (BL 228): “Sein Gedächtnis galt für eine wahre Gottesgabe”

60) (BL 13): “Kien verabscheute die Lüge; von klein auf hielt er sich an die Wahrheit. [...] Punkt acht begann die Arbeit, sein Dienst an der Wahrheit. Wissenschaft und Wahrheit waren für ihn identische Begriffe.”

고 능력이 없으므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은 테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의 정확함과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한다. 그녀가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말투를 떠올리기만 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⁶¹⁾

신혼 첫날밤에 테레제가 자신과의 성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킨은 테레제의 섹슈얼리티를 혐오하고 두려워한다. 또 그는 아내가 된 테레제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구를 사들이고, 자신의 유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테레제의 탐욕을 증오한다. 요컨대 킨이 보기에 테레제는 섹슈얼리티의 화신이자 탐욕의 결정체이다. 이는 섹슈얼리티와 탐욕을 근거로 여성의 비존재 혹은 비본래성을 증명하려 했던 바이닝거의 시도⁶²⁾를 연상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킨은 바이닝거가 섹슈얼리티에 휘둘리는 여성을 ‘어머니’와 ‘창녀’ 유형으로 구분한 것처럼⁶³⁾ 처음에는 테레제를 ‘어머니’로, 나중에는 ‘창녀’로 간주한다. 킨은 “모든 **여자**의 주전공은 어머니 역할”⁶⁴⁾이라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테레제가 자신이 빌려준 책을 마치 ‘아이’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본다. “그녀[테레제]는 열심히 적당한 포장지를 고르더니, 그것으로 마치 아이에게 옷을 입히듯이 책을 감쌌다.”⁶⁵⁾ 이 모습을 본

61) (BL 128): “Von seiner Exaktheit und seinem Erinnerungsvermögen hat sie als ungebildete Person keine Ahnung. Sie ist so ungebildet, daß er bei der bloßen Erinnerung an ihre Sprache Brechreiz spürt.”

비슷한 맥락에서 킨은 테레제를 “문맹자 Analphabetin”(BL 133)로 간주하기도 한다.

62) 바이닝거: 성과 성격, 702-705쪽 참조.

63)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매춘부로서의 여성으로 나누어진다.” 바이닝거: 같은 책, 538쪽. 바이닝거 철학에서 어머니와 창녀 유형은 양극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유형 모두 섹슈얼리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64) (BL 10): “Im Hauptfach ist eine [Mutter] jede *Frau*”

65) (BL 42): “Umständlich suchte sie[Therese] ein passendes [Packpapier] aus und legte es dem Buche um, wie einem Kind ein Kleid.”

킨은 지금까지 자신의 책들을 “양자 Pflegekind”처럼 잘 보살펴준 테레제를 “타고난 양어머니 die geborene Pflegerin”로 이상화하고,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다(BL 47). 즉, 킨은 처음에는 테레제가 자신의 책과 도서관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쫓겨난 킨은 테레제를 ‘창녀’로 간주한다. 첫날밤 이후 테레제의 성적 욕망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 킨은 결국 도서관 내에서의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밀려나 테레제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뒤 도서관 밖으로 쫓겨난다. 그는 카페 ‘이상적인 하늘 idealer Himmel’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는 곱사등이 피셜레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킨은 그가 진정한 인격을 가진 자라며 그의 여성혐오적 견해에 동조한다. 더 나아가 킨은 테레제가 사실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창녀가 아닌 여자란 없어!”⁶⁶⁾라는 피셜레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레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감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테레제의 이미지는 킨에 의해서 처음에는 ‘어머니’로, 이후에는 ‘창녀’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이 한편으로는 명료한 의식과 기억력을 강조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체로 보일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여성을 섹슈얼리티와 비합리성에 종속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배타적인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묘사는 이러한 배타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고향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말은 도서관이다. 제일 현명한 것은 자신의 고향에서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만약 여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킨]가 했던 것처럼 그녀를 우선 고향에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책들이 그를 위해서 이 여자[테레제]를 복종시키는 일에 힘써 주었다. [...] 그의 친구들이 그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정복한 것이다.⁶⁷⁾

66) (BL 288): “A Frau, was ka Hur’ is, gibt’s nicht!”

67) (BL 57): “Die beste Definition der Heimat ist Bibliothek. Frauen hält man am

킨에게 정신적 고향과 다름없는 도서관은 여성의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성적 시스템을 상징한다. 만약 여성을 받아들여려면 우선 그녀를 “동화”시키고 “복종”시키고 “정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적 시스템 내에서는 이성적 남성과 비이성적 여성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킨에게 이성과 논리는 진리와 동의어이며, 여성은 ‘어머니’이자 ‘창녀’일 뿐인 거짓 그 자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은 여성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타자화하는 이성‘중심주의’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중심주의는 바이닝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2. 과대망상과 남성 판타지

1) 개념을 통한 현실 인식

킨은 말보다는 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며, 대화보다는 긴 논문의 형태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데에 더 익숙하다. 평생 고문헌과 씨름해온 킨에게 익숙한 세계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오가는 세계가 아니라 책 속의 세계, 개념들로 이루어진 지적 세계이다. 그렇다면 학문의 세계에 자신을 완전히 가두어 버린 학자로서 킨은 외부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칸트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으로 “범주 Kategorien”⁶⁸⁾를

klügsten von seiner Heimat fern. Entschließt man sich doch, eine aufzunehmen, so trachte man, sie der Heimat erst völlig zu assimilieren, so wie er[Kien] es getan hat. In acht langen Jahren haben die Bücher für ihn die Unterwerfung dieser Frau[Therese] besorgt. [...] Seine Freunde haben die Frau in seinem Namen erobert.”

68) “결국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종합은 범주에 종속되어 있다. 경험이란 지각과 연관된 인식과 다르지 않으므로 범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모든 경험대상에 **선험적으로** 적용된다. Folglich steht alle Synthesis, wodurch selbst

제시한다.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형적인 범주가 감각적 자극들을 분류하고 판단함으로써 현실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범주는 개념이다. 개념은 현상들에,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총체로서의 자연에 선형적으로 법칙을 부여한다.”⁶⁹⁾ 더 나아가 바이닝거는 감각적인 경험과 달리 개념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경험은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하는 형상들만 보여줄 뿐이고, 기껏해야 전체적으로 모호한 생각들만 만들어 줄 수 있다. 개념의 본질은 경험을 통해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절대적 일정함’과 ‘절대적 명백함’[이다.]”⁷⁰⁾

킨의 현실 인식 역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킨의 경우 개별 현실에 앞서는 선형적인 범주는 다름 아닌 책의 내용이다. 그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컨대 킨은 산책 중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둘기 소리를 듣는데, 이때 그가 주목하는 것은 “현실 eine Wirklichkeit”의 비둘기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책 속의 원형 Urbild im Druck”과 일치하는가이다(BL 129). 또 다른 장면에서 그는 책 속의 내용을 떠올린 뒤에서야 비로소 피셀레의 손에 들려 있던 장미의 향기를 인식한다.

그[킨]는 피셀레의 손에서 장미를 받아들고는, 페르시아의 연애시를 읽고 알게 된 장미 향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장미를 자신의 눈 가까이 집어 들었다. 정말로 장미 향이 났다.⁷¹⁾

Wahrnehmung möglich wird, unter den Kategorien; und da Erfahrung Erkenntniß durch verknüpfte Wahrnehmungen ist, so sind die Kategorien Bedingungen der Möglichkeit der Erfahrung und gelten also *a priori* auch von allen Gegenständen der Erfahrung.”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Köln 2011, S. 168.

69)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S. 169: “Kategorien sind Begriffe, welche den Erscheinungen, mithin der Natur als dem Inbegriffe aller Erscheinungen [...] Gesetze *a priori* vorschreiben.”

70) 바이닝거: 성과 성격, 340-341쪽.

71) (BL 269): “Er[Kien] nahm die Rosen aus Fischerles Hand, entsann sich ihres Wohlgeruches, den er aus persischen Liebesgedichten kannte, und näherte sie seinen Augen, richtig, sie rochen.”

킨은 현실의 장미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페르시아 시에서 읽었던 장미 향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미의 향기를 인식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꽃을 코가 아닌 눈으로 가져간다는 점이다. 눈은 근대적 이성을 상징하는 메타포이기도 하다.⁷²⁾ 따라서 ‘눈’으로 장미 향을 맡는다는 모순적인 묘사는 킨이 이성을 신봉하는 인물이며 오로지 이성적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경험보다 개념의 정합성을 우선시하는 킨의 현실 인식은 편집증 환자의 특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슈나이더 Manfred Schneider에 따르면 “확실함 Unangreifbarkeit”⁷³⁾에 대한 집착은 편집증의 주요 증상이다. 또한 확실함을 추구하는 편집증 환자는 “귀추법적으로 abduktiv”⁷⁴⁾ 세계를 해석한다. 그는 주어진 현실을 자신의 사고방식과 논리에 맞추어 임의로 해석하고 그것이 무조건 참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편집증 환자인 킨에게는 현실이 있고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주의적 전제에 기반한) 인식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킨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을 자신의 사고 틀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비원 파프는 킨이 병상에

72) 『현혹』에 나타난 눈과 시각 모티프의 의미에 대해서는 II장(‘인식 수단으로서의 눈 감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73) Manfred Schneider: Kritik der Paranoia. Elias Canetti und Karl Kraus. (<https://literaturkritik.de/id/8320>, 10.6.2020)

74) Ebd.

귀추법(歸推法)이란 어떤 사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방식을 제시하는 추론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전제로부터 반드시 참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법과 달리 귀추법은 단지 가장 그럴싸한 설명을 골라내는 추론 방법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참인 결론의 도출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슈나이더는 확실함에 대한 집착과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해석이 극단으로 치달는 경우 이러한 귀추법적 추론이 “광기 어린 이성 rasende Vernunft”(Ebd.)으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광기 어린 이성”은 귀추법적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무조건 참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적 확실성을 추구한다. 슈나이더는 이를 통해 편집증 환자의 인식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Vgl. ebd.

있는 동안 매일 병문안을 오는데, 처음에 킨은 그의 커다란 주먹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파프를 역사책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16세기의 용병으로 간주하자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아주 친숙한 역사적인 인물”⁷⁵⁾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킨은 경비원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이 용병다움이라는 것을 규명한다. 킨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경험적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전 지식이 현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킨은 해변에서 조개를 발견하고 그것의 내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조개는 굳게 닫힌 껍데기 안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때 먼바다에서 ‘알렉산더’라는 글자가 적힌 배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본 킨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버린 것처럼 조개껍데기를 산산조각낸다. 그리고 결국 짓이겨진 조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 즉, 알렉산더의 일화는 어린 킨에게 실질적인 현실 인식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물론 킨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조개를 부수는 행위는 개념화의 폭력성을 드러낸다.⁷⁶⁾

75) (BL 119): “eine wohlvertraute historische Figur”

76) 조개 에피소드는 킨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조개는 테레제의 치마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킨은 풀을 먹여 단단해진 테레제의 파란색 치마를 관찰하면서 어렸을 때 해변에서 봤던 조개를 떠올린다. 따라서 과거의 에피소드는 현재 킨의 심리상태를 암시한다. 즉, 킨은 테레제라는 불가해한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녀를 상징하는 치마를 언제든지 산산조각낼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은 킨의 여성혐오적 욕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크놀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킨에게는 ‘공허한 정언명령, 전도된 정언명령’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킨은 정언명령에서 공허한 범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면 모든 자의적 내용이 윤리적인 법칙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칙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Kien [vollzieht] den Schritt vom kategorischen Imperativ zur leeren Kategorie. Denn jeder beliebige Inhalt kann auf diese Weise zu einem ethischen Gesetz werden und dieses in sein Gegenteil verkehren.” Knoll: Das System Canetti, S. 52.

킨의 편집증적 인식 체계는 두 형제의 논쟁 장면에서 극단적인 광기로 치닫는다. 게오르크는 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의 망상을 부추기는데, 킨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자나 부처의 여성 폼하적인 말을 인용하거나, 남성을 곤경에 빠뜨린 신화적 인물로 크립힐트, 헬레나, 아프로디테, 칼립소, 나우시카, 페넬로페, 에우리클레이아, 헤라, 이브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합리화한다. 킨은 동양 철학이나 서양의 신화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지식을 늘어놓거나, 여성 경시 풍조를 보이는 아프리카 부족의 신화들까지도 언급한다.⁷⁷⁾ 킨의 여성혐오적인 성향이 심화될수록 그의 주관적이고 편집증적인 사고체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킨이 상상하는 여성상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통해 카네티는 외부현실이나 여성에 대한 이성적 사고체계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성중심주의가 사실은 편집증적 광기에 가까운 주관주의적 망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책의 내용과 킨의 학문적 체계 자체가 지닌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레제의 구타에 시달리던 킨은 그녀가 잠시 잠든 틈을 타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장소나 인물을 찾는다.

그는 몸을 숨길 만한 시대를 살살이 뒤진다. 그는 수 세기 전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최고의 성곽도 총포로부터 안전하진 못하다. 기사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 스위스의 모닝스타? - 영국인들의 소총이 이들의 장비와 두개골을 두 동강 낸다. 스위스인들은 멜레나노에서 박살이 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병은 안 된다 - 광신자들의 군대가 오는구나 - 구스타프 아돌프 - 크롬웰 - 우리 모두를 학살한다. 근세에서 벗어나 보자 - 중세에서 벗어나 보자 - 그리스의 장창보병부대 사이로 들어가 보자 - 로마인들이 이들을 작살낸다 - 인도의 코끼리부대 - 불화살 - 모두가 겁을 먹는다 - 어디로 가는 거지 - 배를 타러 가는구나 - 그리스

77) 이는 바이닝거에 대한 패러디로 보인다. 바이닝거도 『성과 성격』에서 중국의 고사(故事)나 이슬람 종교, 아리스토텔레스, 초기 교부 철학자들, 르네상스의 여성혐오자 장 비어, 입센, 스트린드베리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에게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한다. 바이닝거: 성과 성격, 410-413쪽 참조.

의 불 - 미국으로 가보자 - 멕시코로 가보자 - 인간 제물 - 그들이 우리를 학살한다 - 중국, 중국으로 가보자 - 몽골로 가보자 - 해골 피라미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가 가진 역사적 보물들을 모조리 끄집어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어딜 가든 모든 것이 몰락한다, 적들이 그를 끌어낸다, 사상누각이다, 그가 사랑한 문화들이 야만적인 도적들과 완고한 열간이들 앞에서 무너진다.

그때 킨의 몸이 **단단하게 굳었다.**⁷⁸⁾

이는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킨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책의 내용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킨의 몸이 단단한 석상으로 변한 것은 마그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자아의 해체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는 편집증적 자아의 심리”⁷⁹⁾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킨이 ‘과거’에 집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킨은 과거를 숭배한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와 달리 모

78) (BL 170-171): “Er durchsucht die Zeit nach einem Versteck. Er läuft durch die Geschichte, jahrhundertauf, jahrhundertab. Die besten Burgen sind vor Geschützen nicht sicher. Ritter? Unsinn - Schweizer Morgensterne - die Büchsen der Engländer spalten uns Rüstung und Schädel entzwei. Schweizer werden bei Marignano vernichtend geschlagen. Nur keine Landsknechte - nur keine Söldner - kommt eine Armee von Fanatikern - Gustav Adolf - Cromwell - metzelt uns alle nieder. Zurück aus der Neuzeit - zurück aus dem Mittelalter - hinein in eine Phalanx - Römer durchbrechen sie - indische Elefanten - Brandpfeile - alles scheut - wohin - auf ein Schiff - griechisches Feuer - nach Amerika - Mexiko - Menschenopfer - man schlachtet uns - China, China - Mongolen - Schädelpyramiden: in einem halben Augenblick hat er seinen Schatz der Geschichte erschöpft. Nirgends Rettung, alles geht unter, wo man auch hinkriecht, die Feinde holen einen heraus, Kartenhäuser, brechen die geliebten Kulturen zusammen, vor Räufern barbarischen, Hohlköpfen harten.

Da *erstarrte* Kien.”

79) Magris: Der Schriftsteller, der sich versteckt, S. 184: “die Psychologie dieses monomanischen Ichs, das sich im Kampf gegen die eigene Auflösung abschirmt”

든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 즉 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좋은 것이다. [...] 그는 지난 20년간 과거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고, 행복하게 살았다.”⁸⁰⁾ 그렇다면 미래는 어떠한가? 킨의 논리에 따르면 미래 역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확정된 과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현재는 인식되기 직전의 불확실한 상태로 존재한다. 킨이 보기에 역사책이나 철학책은 모두 현재에 비하면 확실한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확실함에 집착하는 킨이 테레제의 위협 앞에서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 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는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나간 역사는 이미 죽은 대상을 서술한다. 킨이 준거로 삼는 책의 내용 역시 박제된 현실을 담고 있다. 실제 비둘기 소리나 장미의 향기에 비하면 책에 묘사된 비둘기 소리나 페르시아 연애시에 서술된 장미 향은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다. 죽은 것에 대한 킨의 관심은 각별하다. 그는 모든 ‘삶’의 자극에 무심하다.⁸¹⁾ 그는 동양의 사어(死語)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가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도 고대 중국 철학이다. 킨은 가끔 공자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과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눈다. 과거의 지식을 기억하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 킨의 책상은 사멸한 옛 사상들에 대한 원고들로 빼곡히 뒤덮여 있다. 요컨대 킨의 학문 체계는 죽은 자들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다.⁸²⁾ 이러한 맥락에서 킨이 테레제를 피해서 최종적으로 고대 이집트로 도망치고, 그가 변신한 석상이 “이집트의 사제 ägyptische[r] Priester”(BL 171)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시체(미라)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 킨은 학문적 개념과

80) (BL 169): “Die Vergangenheit ist gut [...] zwanzig Jahre hat er sich frei in ihr bewegt, er war glücklich.”

81) Vgl. Theodor Sapper: Zu *Die Blendung*. In: Gerhard Melzer/ Kurt Bartsch(Hrsg.): Dossier 25. Elias Canetti. Graz 2005, S. 139(urspr. In: Tagespost(Graz), Abendblatt vom 11.1.1936).

82) 팜부키안 Victor Pambuccian은 킨이 유독 시체나 죽은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를 “시간증 Nekrophilie” 환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Victor Pambuccian: Elias Canettis *Blendung*. Darstellung eines nekrophilen Gelehrten. In: Psyche 41(1987), S. 917.

책의 세계에서처럼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죽음의 나라’에 있으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죽은 자의 무리에 대한 욕망은 ‘편집증적 권력자’가 지닌 욕망이기도 하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에서 14세기에 델리의 술탄이었던 무하마드 투글락 Muhammad Tughluq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편집증적 권력자의 내면이 항상 죽은 자의 무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무슨 일을 하던[sic] 간에 거기에는 언제나 그가 가까스로 유지하는 ‘하나의’ 군중이 있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죄수 전원은 매일 그의 앞에 끌려갔다. 그들은 처형의 후보자들로서 그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다. [...] 그의 희생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한, 무엇도 그의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는 없었다.”⁸³⁾ 편집증적 권력자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싸인 시체를 보고 자신이 지닌 권력의 막강함을 실감한다.

『현혹』에서 비록 킨이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학문적 세계에서만큼은 제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로서 킨은 죽은 언어나 죽은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 체계의 확실성을 담보한다. 만약 자신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판결하고 재단함으로써 학문의 세계, 즉 죽은 것들의 세계에 적합하게 만들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현실에 테레제와 같이 ‘글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열등한 여자’가 있다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킨의 편집증적 인식 체계가 내리는 결론이다. “학문은 그녀 [테레제]의 죽음을 요구했다.”⁸⁴⁾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 있는 학자인 킨의 현실 인식은 끊임없이 죽은 자의 무리를 요구하는 편집증적 권력자의 현실 인식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3) 카네티(강두식/ 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575쪽.

84) (BL 291): “Die Wissenschaft erforderte ihren[Thereses] Tod.”

2)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

킨은 군중을 경멸하며, 도서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 Barbaren”(BL 44)이나 “천민 Pöbel”(BL 289)이라고 부른다. 킨이 보기에 통행인들은 평소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신을 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다. 그는 군중을 어리석은 거짓말쟁이로 간주한다.

이러한 군중의 이미지는 테레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군중이 세속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테레제는 대중 잡지나 신문에서 본 어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테레제는 자신이 행실이 바른 교양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녀의 성격이 군중과 마찬가지로 소시민적이고 고루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테레제와 군중은 모두 비이성적이고 쉽게 격정에 휩싸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여성과 군중을 연관시켜온 서구 지성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18세기 말 이래 여성은 그들의 격정적이고 방종한 성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성이 결여된 동물’ 혹은 ‘야만적인 타자’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통제되지 않는 군중에 여성적인 성격이 부여되기도 했다.⁸⁵⁾ 비디히 역시 『현혹』에서 테레제가 “군중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적 인물”⁸⁶⁾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가정부였던 테레제가 킨의 아내가 되고 난 뒤로 점점 도서관의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군중을 혐오하는 킨에게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 킨은 책들에게 테레제의 횡포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제나 예외 없이 군중에 속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요. [...] 군중은 교양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⁸⁷⁾ 즉, 도서관에

85) Vgl. Michael Gamper: Masse lesen, Masse schreiben. Eine Diskurs- und Imaginationsgeschichte der Menschenmenge 1765-1930. München 2007, S. 150-159.

86) Widdig: Männerbünde und Massen, S. 192: “allegorische Figur der Masse”

87) (BL 96): “Immer und ausnahmslos nehme man sich vor den Leuten der

여성(테레제)이라는 “낮선 권력 eine[] fremde[] Macht”(BL 93)이 침입함으로써 견고해 보이던 도서관의 질서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테베라이트는 『남성 판타지 Männerphantasien』에서 과시증적 성향을 지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의용군 군인들 역시 군중과 여성을 동일시하고 이들을 혐오하였음을 언급한다. 군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수준 높은 문화, 문명화된 인간, 고귀함, 정신, 이성, 영혼 등을 대변한다고 여기는 한편, 군중은 비문화, 향락, 타자 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또한 군중을 여성적인 것, 성적인 것, 파괴력을 지닌 매독, 동물적인 것, 무정형의 것 등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이 자신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해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배척하였다.⁸⁸⁾

테베라이트는 이러한 남성 과시스트들에게 군중 혹은 여성성의 위협이 신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군인은 군중을 하나의 신체로 간주한다. 아니, 군중 자체가 수많은 눈, 팔, 머리, 발을 지닌 **하나의 신체이다.**”⁸⁹⁾ 『현혹』에서도 킨은 자신의 견고한 요새인 도서관에 군중을 상징하는 여성 인물 테레제가 등장하자 신체적인 위협을 느낀다. 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그것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우고, 그녀를 다시 도서관 밖으로 몰아내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킨은 유독 허약한 신체를 타고났다.⁹⁰⁾ 따

Masse in acht [...]. Sie sind gefährlich, weil sie keine Bildung, also keinen Verstand haben. Einmal ist es nun geschehen.”

88) Vgl. Klaus Theweleit: Männerphantasien. Berlin 2019, S. 540-691.

89) Theweleit: Männerphantasien, S. 565: “Er[Der Soldat] sieht die Masse nicht nur als einen Körper, sie *ist* auch *ein* Körper, ein Körper mit vielen Augen, Armen, Köpfen, Füßen.” 이러한 테베라이트의 주장은 카네티의 ‘접촉 공포’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접촉 공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카네티: 군중과 권력, 17-18쪽.

90) 고전주의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고대 그리스 남성의 몸을 모범으로 삼았다면, 이는 18세기와 20세기 사이에 규범적 남성 신체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 일종의 남성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불품없는 킨의 신체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카네티는 정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킨의 신체를 극단적으로 왜소하게 만들으로써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유발한다. 남성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조지 모스(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현대 남성성의 창조.

라서 킨은 자신의 “불구화된 몸 Krüppelhaftigkeit”을 극복하고 테레제의 전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2의 상징적인 신체 ein[] zweite[r] symbolische[r] [...] Körper”를 고안해 낸다.⁹¹⁾ “페터 킨의 상징적 신체는 [...] 도서관이다. [...] 도서관의 책 무리가 하나의 거대한 기관 없는 신체라는 사실은, 킨이 모든 책과 책이 든 가방을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유추되는 것이다.”⁹²⁾

구체적으로 몇몇 장면을 살펴보면 킨이 도서관 혹은 책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고, 그것을 테레제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해보자.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킨은 테레제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파침대를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뒤덮어 버린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책에 관한 대화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책으로 뒤덮인 소파가 “갑옷으로 무장한 gepanzert”(BL 59)이라는 형용사에 의해 수식된다는 점이다. 심리적으로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성격”⁹³⁾, 즉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의 연속성을 지키려는 심리기제가 킨을 보호해준다면, 신체적으로는 ‘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무기력한 킨은 책이라는 ‘갑옷’을 사용함으로써 테레제의 섹슈얼리티에 저항한다. 즉, 책은 킨의 ‘확장된 신체’⁹⁴⁾라고 할 수 있다.

문예출판사 2004.

91) Schneider: Die Krüppel und ihr symbolischer Leib. Über Canettis Mythos. In: Werner Hofmann(Hrsg.): Hüter der Verwandlung. Beiträge zum Werk von Elias Canetti. München 1985, S. 39.

92) Schneider: Die Krüppel und ihr symbolischer Leib, S. 32-33: “Der symbolische Körper Peter Kiens [...] ist die Bibliothek [...]. Daß diese Büchermasse ein riesiger organloser Leib ist, das geht bereits daraus hervor, daß für Kien jedes Buch, ebenso die Tasche mit den Büchern, zur Ergänzung seines Körpers dient.” 그러나 슈나이더는 자신의 테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93) Roberts: Kopf und Welt, S. 13: “de[r] starr gepanzerte[] Charakter”

94) 후루야는 “보철된 신체 [der] prothetische[] Körper”라는 표현을 쓴다. Furuya: Masse, Macht und Medium, S. 44.

킨의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신체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그는 테레제가 외출한 사이에 도서관에 있는 그녀의 가구를 모두 문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서 도서관을 살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수록, 그리고 예전처럼 도서관이 상처 하나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수록 킨은 적들이 가소로웠다. 적들이 감히 어떻게 한 신체를, 한 생명을 문이라는 경계선으로 잘게 나눌 생각을 했단 말인가? 물론 도서관은 그 어떠한 고문도 다 견뎌냈다. 등 뒤로 손발이 묶인 채 사악하고 끔찍한 나날들을 보내며 고문당했을지라도, 도서관은 실제로는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합쳐진 신체의 관절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마침내 다시 이어 붙여진 사지가 기뻐했다. 신체도, 그 신체의 주인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⁹⁵⁾

킨에게 도서관은 각 마디마디에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몸과 다름없다. 그리고 킨은 그러한 몸이 지난 수 주간 테레제에게 고문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 테레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도서관은 부상에서 회복된 유기적 신체에 견주어지는 것이다.

위 인용문이 등장하는 장(章)의 제목은 ‘군사 동원령 Mobilmachung’이다. 여기에서 킨은 책들 앞에서 장황한 연설을 이어나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선포할 테레제와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것이다.

95) (BL 93): “Je länger die abgeschrittene Reihe wurde, je unversehrter und geschlossener die alte Bibliothek sich erhob, um so lächerlicher erschienen ihm die Feinde. Wie konnten sie es wagen, einen Leib, ein Leben durch Türen zu zerstückeln? Doch alle Qualen hatten nichts gegen sie vermocht. Wenn sie auch hinterrücks gefesselt und durch böse, durch entsetzliche Wochen hindurch gefoltet worden war, in Wahrheit war sie unbesiegt. Eine gute Luft wehte durch die wiedervereinigten Glieder eines Leibes. Sie freuten sich, endlich einander zu gehören. Der Leib atmete, auch der Herr des Leibes atmete tief.”

오직 감동만으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는 여러분이 기꺼이 제 지휘 아래에서 싸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1. 우리는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2. 배신자는 비밀 재판에 회부된다.
3. 모든 명령은 중앙통제된다. 내가 최고 군사령관이면서 유일한 총통이자 유일한 장교이다.
4. 전쟁 참가자의 과거, 외관, 키, 자질에서 오는 모든 차이는 평준화된다. 실제로 군대의 민주화는 오늘부로 모든 책이 자신의 등을 벽을 향하게 함으로써 표현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연대감을 드높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받지 못한 도적과도 같은 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⁹⁶⁾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전시상태에 킨의 군대에 속한 전사(戰士)가 된다. 이를 통해서 킨은 자신의 허약한 신체를 극복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군중 혹은 여성과의 결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⁹⁷⁾ 이러한 맥락에서 킨의 도서관은 파시스트 남성의 신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테베라이트는 파시즘적 성향을 지닌 남성의 “신체

96) (BL 98-99):

“Mit Begeisterung allein führt man keine Kriege. Eurer Zustimmung entnehme ich, daß ihr unter meiner Führung zu kämpfen gewillt seid.

Ich erkläre:

1. Wir befinden uns im Kriegszustand.
2. Verräter verfallen der Feme.
3. Das Kommando ist zentralisiert. Ich bin oberster Kriegsherr, einziger Führer und Offizier.
4. Sämtliche Unterschiede, die sich aus Vergangenheit, Ansehen, Größe und Wert der Kriegsteilnehmer ergeben, sind aufgehoben. Die Demokratisierung des Heeres äußert sich praktisch darin, daß von heute ab jeder einzelne Band mit dem Rücken zur Wand steht. Diese Maßnahme steigert unser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Sie entzieht dem räuberischen, aber ungebildeten Feind seine Maßstäbe. [...]

97) 비디히는 킨의 도서관이 여성의 배제를 토대로 하는 모더니즘 시기의 “남성결사에 대한 알레고리적 묘사 die allegorische Darstellung eines Männerbundes”를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Widdig: Männerbünde und Massen, S. 184.

갑옷 Körperpanzer”⁹⁸⁾이 군중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킨이 책의 내용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⁹⁹⁾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과 파시즘적 남성성이 지닌 “신체 갑옷” 사이의 유사성을 암시한다. 요컨대 『현혹』에서 책들로 빼곡하게 뒤덮인 도서관은 군중 혹은 여성에 저항하는 막강한 신체로 변한다.

이러한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킨의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파시즘적 남성성의 신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군중과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과 혐오감을 유감없이 표출하는 신체적 장소가 된다. 파시스트들이 “성별 투쟁 Geschlechterkampf”을 “생존투쟁 Überlebenskampf”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¹⁰⁰⁾, 킨 또한 테레제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은 테레제에게 맞설 수 있는 최종병기가 된다. 킨의 연설 장면에서 “성전 [der] Heilige[] Krieg”, “전우 Kamerad”, “적 Feind”, “무기 Waffe”(BL 97)나 “전의 Kampfesmut”, “전쟁터 Kriegsschauplatz”(BL 98)와 같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킨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의용군 군인의 긴밀한 연관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군중과 여성에 대해 극단적인 공격성을 띠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로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은 권력에 대한 킨의 집착을 보여주기도 한다. 앞서 인용한 연설문에서 킨은 자신을 “수령”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명령은 자신이 내릴 것이며 책-병사들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킨이 도서관에서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서술자는 “선동적인 연설 Brandrede”(BL 98)를 마친 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앞서 거행했던 전쟁 연설의 성공은 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감각을 한껏 부풀려놓

98) Theweleit: Männerphantasien, S. 619.

99) (BL 97): “die Panzer, die dich vor ihm[Feind] schützen”

100) Theweleit: Männerphantasien, S. 622.

았다.”¹⁰¹⁾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은 권력에 대한 킨의 욕구가 극단으로 치닫는 권력의 장(場)이기도 하다. 킨은 외부의 군중(여성)에 맞서 싸우는 신체로서의 도서관에 자신의 권력욕을 투사한다.

이렇듯 카네티는 제2의 신체로서의 도서관을 통해서 군중과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려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남성 판타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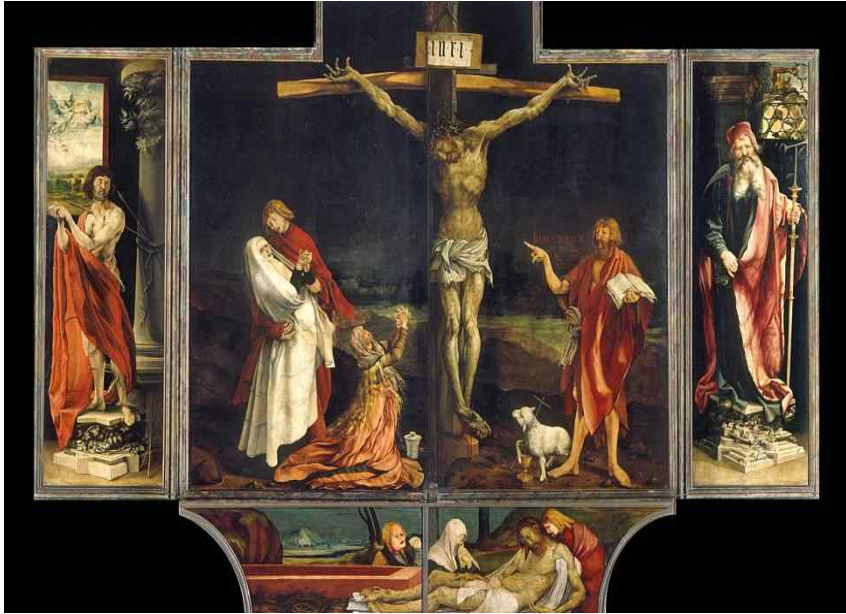
3) 구원에 대한 망상

그뤼네발트 Matthias Grünewald의 <이젠하임 제단화 Isenheimer Altar>는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예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게 표현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곤 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카네티는 그뤼네발트의 그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듯하다. 카네티는 프랑스 콜마르에서 온종일 <이젠하임 제단화>를 감상했던 날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나는 애달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를 보지 않았다. 예수의 몸이 처한 끔찍한 상태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이러한 진실 앞에서 나는 십자가상의 아름다움, 십자가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변용이 나를 헛갈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용은 천사들의 음악회이나 어울리는 것이지, 십자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림을 보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전율을 느끼면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유발하는 끔찍한 일에 대한 기억이었다. 전쟁과 화학무기로 인한 죽음은 1927년 봄 당시 이 그림에 설득력을 부여할 정도로 이미 낯설지 않은 일이 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예술의 사명이 너무 자주 잊히는 것 같다. 그것은 정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처럼 마음대로

101) (BL 99): “Der Erfolg der früheren Kriegsrede hatte sein Machtgefühl geschwellt.”



[그림 1]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이젠하임 제단화, 1512-1516.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흑사병과
 궤양, 고통과 공포를 떠올려 보라. [...] 이러한 진실 앞에서 기만적인 위로
 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끔찍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은 눈앞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그림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끔찍한 일을 선취하고 있다. 요한의 기다란 손가락은 다음과 같은 사
 실을 가리킨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
 려 썩어가는 인간이 어린 양이었던 말인가?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맞아 죽
 고, 어린 양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고 자랐단 말인가?¹⁰²⁾

102) Canetti: Der Blick auf Steinhof. In: ders.: Die Fackel im Ohr, S. 217: "Ich sah den Leib Christi ohne Wehleidigkeit, der entsetzliche Zustand dieses Leibes erschien mir wahr, vor dieser Wahrheit wurde mir bewußt, was mich an Kreuzigungen verwirrt hatte: ihre Schönheit, ihre Verklärung. Die Verklärung gehörte ins Engelkonzert, nicht ans Kreuz. Wovon man sich in der Wirklichkeit mit Grauen abgewandt hätte, das war im Bilde noch aufzufassen, eine Erinnerung an das Entsetzen, das die Menschen einander bereiten. Krieg und Gastod waren damals, im Frühjahr 1927, noch nah genug, um die Glaubwürdigkeit dieses Bildes zu bewirken. Vielleicht ist die unentbehrlichste

카네티가 보기에 <이젠하임 제단화>의 예수는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통과 공포는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인류 보편적 고난을 상징한다. 카네티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그림의 주제는 정화나 위로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과 그로테스크이다.

카네티는 『현혹』을 쓰면서 주인공 킨과 <이젠하임 제단화>의 예수 그림스도를 동일시했다고 밝힌다.¹⁰³⁾ 실제로 『현혹』에는 킨과 예수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예컨대 킨은 찡그린 얼굴을 한 채 병들고 야위어 있는 예수의 동상을 보고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지몽매한 군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예수의 기적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와 “지옥 Hölle”(BL 262)에서 책을 구원하려 하는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테레시아눔에서 테레제가 킨의 머리를 부여잡을 때 킨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eine Dornenkrone”(BL 312)을 쓴 것처럼 보였다는 묘사도 킨과 예수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킨이 도서관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초반부를 제외하면 작품 전체가 킨의 수난사처럼 읽히기도 한다.

킨은 자신이 위기에 빠진 책들을 구할 구세주임을 자처한다. 그는 책

Aufgabe der Kunst zu oft in Vergessenheit geraten: nicht Reinigung, nicht Trost, nicht ein Verfügen über alles, so als ob es gut ausgehen würde, denn es geht nicht gut aus. Pest und Geschwür und Qual und Grauen [...]. Was können noch die tröstlichen Täuschungen bedeuten vor dieser Wahrheit, sie ist sich immer gleich und sie soll vor Augen bleiben. Alles Entsetzliche, das bevorsteht, ist hier vorweggenommen. Der Finger des Johannes, ungeheuerlich, weist darauf hin: das ist es, das wird es wieder sein. Und was bedeutet das Lamm in dieser Landschaft? War dieser faulende Mensch am Kreuz das Lamm? Ist er großgewachsen und Mensch geworden, um ans Kreuz geschlagen zu werden und Lamm zu heißen?”

103) Vgl. Canetti: Büchner in der Wüste. In: ders.: Das Augenspiel. Frankfurt a.M. 1995, S. 11-12.

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그는 사람들이 책이 무생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보기에 책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동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책의 내용은 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사고팔 수 있는 노예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쫓겨난 킨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 책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좌절을 겪는다.

그런데 그림과 소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젠하임 재단화>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혹』은 수난을 겪는 킨의 모습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편집증 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구원하려는 킨의 의지가 사실은 그가 지닌 편집증적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테레제가 킨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킨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테레제가 책을 잘못 다룰까 봐 의심조사한다. 그날 밤 킨은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은 한 멕시코의 순교자가 책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킨은 책이 불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다. 킨은 불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나서야 신에 의해서 구원된다. 이러한 꿈을 꾸 이후로 그는 도서관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즉, 도서관의 화재에 대한 편집증적 망상이 발현된 시기는 테레제가 도서관의 질서에 침투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물론 킨이 화형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그가 이틀 전에 한 잡지에서 멕시코의 처형장면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후에도 테레제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킨의 머릿속을 맴돈다. 예컨대 킨은 테레제가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고 도서관의 공간을 독차지하려고 하자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책과 도서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테레제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테레제와

유언장에 적힌 액수에 대해 다투고 난 날 밤에는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방황하는 꿈을 꾸는데, 다음날 잠에서 깬 킨은 테레제가 있는 자신의 도서관이 베수비오산의 도서관보다 더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도서관이 불타고 있다는 킨의 망상은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킨은 테레제가 없는 외부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도서관이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는 전당포 테레지아눔에 불이 나면 가장 높은 층에 보관된 책들은 꿈쩍없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한다. 그가 테레지아눔을 “종교재판소 Inquisitionspaläste”에 비유하고, 책들을 “수년 동안 화형을 기다려야 하는 죄수들 Die Gefangenen, die man jahrelang auf ihren Feuertod warten läßt”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BL 232). 킨은 피셜레에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서관의 화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7층에 있는 도서관에 화재라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만 권의 책들 - 수백만 장의 페이지들 - 수십억 개의 철자들 - 이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것입니다 - 도움을 간청하는 울부짖는 소리에 고막과 가슴이 찢어질 지경입니다.¹⁰⁴⁾

도서관 화재에 대한 망상은 킨의 책 구원사업으로 이어진다. 킨은 자신이 이러한 화재의 위협에서 책을 구원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킨은 피셜레에게 테레지아눔에서 책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듣는데, 이에 따르면 입고된 책은 킨이 증오하는 동물이나 여자에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책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게다가

104) (BL 236): “Wissen Sie, was das heißt, ein Bibliotheksbrand? Mann, ein Bibliotheksbrand im sechsten Stock! Stellen Sie sich das vor! Zehntausende von Bänden - das sind Millionen Seiten - Milliarden Buchstaben - jeder einzelne davon brennt - fleht, schreit, brüllt um Hilfe - da reißt einem das Trommelfell, das Herz reißt einem.”

피델레는 킨에게 책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요리해서 먹는다고 말한다. 킨이 이성을 잃고 “식-인-종-들! 식-인-종-들!”¹⁰⁵⁾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편집증적 망상에 빠진 킨이 보기에 책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악랄한 것은 국립 전당포 테레시아눔이다. 야만적인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킨은 매일 테레시아눔 앞에 서서 전당포에 책을 맡기려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그 책을 사겠다고 말한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에서 편집증 환자 슈레버의 병례¹⁰⁶⁾를 분석하면서 구원에 대한 의지와 권력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편집광의 망상에 대한 이 면밀한 검토로부터 하나의 즉각적인 결론, 즉 그 망상 속에서 종교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의 구세주’와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이며, 같은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망상의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권력욕뿐이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편집증은 ‘권력의 병’[이다].”¹⁰⁷⁾

105) (BL 268): “Ka-ni-ba-len! Ka-ni-ba-len!”

106) 카네티의 설명에 따르면 슈레버는 자신의 편집증 체계를 기록한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Denkwürdigkeiten eines Nervenkranken』에서 가톨릭교도, 유대인, 슬라브인에 대한 적개심을 내비친다. 또 그는 독일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몽골의 군주 칭기즈칸을 지목하고, 자신이 구원자 칭기즈칸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카네티: 군중과 권력, 589-593쪽 참조.

107) 카네티: 같은 책, 593쪽.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 Sigmund Freud는 주로 전기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슈레버의 편집증 증세가 그의 억압된 동성에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슈레버가 적대시했던 이전 주치의 플렉시히 Paul Flechsig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편집증 환자 슈레버. 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실린 곳: 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 늑대 인간. 열린책들 2004, 103-193쪽 참조.

그러나 카네티는 프로이트가 편집증의 원인과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프로이트의 해석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할 수 있는 편집증의 원인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적인 세계의 구조와 그것이 각 환자에게 침투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슈레버의 망상 체계를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그가 독일을 구할 “세계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이 “세계의 통치자”, 즉 ‘권력자’가 되겠다

킨의 경우에서도 책의 구원에 대한 의지와 권력욕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도서관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킨은 테레제라는 외부현실이 서서히 자신의 도서관을 잠식하는 것을 본다. 킨은 그로 인해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망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 밖으로 쫓겨난 뒤로 킨은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는 처음에는 꿈속(혹은 도서관)에서 책이 불길(혹은 테레제)에 휩싸이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관찰자였지만, 자신을 억압하는 인물인 테레제가 사라진 도서관 밖에서는 자신이 직접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되고자 한다. 이는 테레제에게 완전히 굴복했던 도서관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킨은 자신의 구원행위에 “최고의 윤리적 가치 höchsten sittlichen Wert”(BL 235)를 부여하고 책을 구하는 자신을 “진정한 성인 wahrer Heiliger”(BL 262)으로 여기는 한편, 책을 파괴하고 불태우려는 자들은 “악마들 Teufel”(Ebd.)이라고 부른다. 즉, 킨은 도서관 밖에서 테레제에게 빼앗긴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더 나아가 학문적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구원하겠다는 킨의 의지는 테레제와 벌인 갈등의 연장선에 있으며¹⁰⁸⁾,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욕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킨의 억눌렸던 이성중심주의적 성향과 여성혐오적 성향이 도서관 밖에서 책 구원에 대한 집착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이고 그것이 킨의 권력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카네티가 바이닝거의 “도덕적 순결함에 대한 절대적인 집착”¹⁰⁹⁾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바이닝거는 선과 악, 자아와 비자아,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 이성과 섹슈얼리티를 철저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젠더 질서를 옹호한다.¹¹⁰⁾ 『현혹』에서 바이닝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법적 젠더 질서를 옹

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카네티의 프로이트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카네티: *군중과 권력*, 595-596쪽.

108) 실제로 킨의 권력 추구는 테레제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끝난다. 테레제아눔에서 테레제와의 재회 이후로 킨의 구원행위는 완전히 막을 내린다.

109) Jacques Le Rider: *Der Fall Otto Weininger. Wurzeln des Antifeminismus und Antisemitismus*. Wien 1985, S. 120: “Eine richtiggehende Obsession der moralischen Reinheit”

호하는 킨은 도서관 밖의 외부세계에서 구원과 권력에 집착하는 편집증 환자로 묘사된다. 킨이 구원하려는 대상은 오로지 책이며, 책이 아닌 모든 것들은 구원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카네티는 편집증 환자의 구원에 대한 망상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편협한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 테레지아눔에 관한 이야기는 피셜레가 킨을 속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피셜레는 킨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자 킨을 속여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 그는 의도적으로 킨에게 테레지아눔에서 책이 끔찍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카페에서 자신의 사기 행위를 도울 네 명의 직원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매일 테레지아눔 앞에 있는 킨에게 가서 싸구려 책을 비싼 값에 팔고 오라고 지시한다. 피셜레가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책이 학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인 킨은 이들이 가져온 책을 모두 자신의 사비로 사들인다.

이는 킨의 망상이 그만큼 확고하면서도 주관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파울에 따르면 편집증 환자의 망상은 확고한 “내적 통일성”¹¹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킨의 망상은 그 자체로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도서관 화재에 대한 망상과 속인들에 의해 책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피셜레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처럼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망상을 늘어놓는 것은

110) 이분법적 젠더 질서의 역사와 바이닝거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장순란: 젠더연구로 본 서구 이분법적 성 질서. 독일어문학 제60집 (2013), 273-295쪽.

아울러 이 소설에서 남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바이닝거의 철학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칸트 철학과 이분법적 젠더 질서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Victor Seidler: Vernunft, Moral und Männlichkeit. In: Stefan Beier u.a.(Hrsg.): Kritische Männerforschung. Neue Ansätze in der Geschlechtertheorie. Hamburg 2001, S. 111-137.

111) Paul: Rationalität und Wahnsinn in Canettis Roman *Die Blendung*, S. 116: “eine innere Kohärenz”

편집증의 주요 증상에 속한다.¹¹²⁾ 카네티는 피델레의 사기행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킨의 집착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킨은 쉽게 바뀌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편집증 환자로 간주될 수 있다.¹¹³⁾

이렇듯 카네티는 『현혹』에서 <이젠하임 제단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구원자의 이미지를 일부 차용하되, 이를 구원과 권력에 대한 망상을 지닌 편집증 환자의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

112) Vgl. Paul: a.a.O., S. 117.

113) 슈테판 Kohnen Stephan에 따르면 일찍이 칸트는 “편집증적 망상 paranoide Wahnvorstellungen”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Stephan Kohnen: Über Kants *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 - oder: Was ist Subjektivität?, S. 5. (PDF)

(http://philosophersonly.de/index.php?section=media1&act=download&path=/media/archive1/texte_bernd_mollowitz/&file=kant_krankheiten_des_kopfes_kohnen.pdf, 10.6.2020)

슈테판이 지적한 대목을 보면, 칸트는 광기를 “헛된 것을 꾸며내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지어낸 지각을 위한 표상들 durch falsch dichtende Einbildungskraft selbstgemachte Vorstellungen für Wahrnehmungen”이라고 정의한다. 즉, 누군가가 객관적인 외부현실과 관계없는 주관적인 망상 증세를 보인다면 그 사람을 정신병(편집증) 환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nt: Von den Schwächen und Krankheiten der Seele in Ansehung ihres Erkenntnisvermögens.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Zwei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10). Darmstadt 1983, S. 530.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혹』에서 그러한 망상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아닌 칸트(킨) 자신이다. 즉, 망상으로 인한 킨의 방황은 칸트에 대한 페러디로 간주될 수도 있다.

Ⅱ. 정신분열증과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해체

1. 유아론적 남성성과 환각

1) 유아론과 현실성의 상실

모든 인간에게는 고향이 필요하다. [...] 대지, 일, 친구들, 휴식 그리고 정신적인 인식이 모여 잘 정돈된 자연스러운 전체, 즉 **자신만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고향 말이다.¹¹⁴⁾

킨에게 이러한 고향은 도서관이다. 킨의 입장에서 도서관은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완결된 전체이며,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는 바이닝거의 언급을 암시한다. 바이닝거에 따르면 천재적인 남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것과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세계 전체를 지니고 있다. 천재는 살아 있는 소유주이다.**”¹¹⁵⁾ 카네티는 바이닝거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자신의 소설에 옮겨놓음으로써 킨 역시 자신의 내면에 완결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킨의 도서관은 극도로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하

114) (BL 57): “Jeder Mensch braucht eine Heimat, [...] eine Heimat, die Boden, Arbeit, Freunde, Erholung und geistigen Fassungsraum zu einem natürlichen, wohlgeordneten *Ganzen*, zu einem *eigenen Kosmos* zusammenschließt.” (강조는 인용자)

115) 바이닝거: 성과 성격, 372쪽.

위 번역문의 경우 인용자가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원문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Weininger: *Geschlecht und Charakter*. Wien/ Leipzig 1903, S. 220: “der bedeutende Mensch hat die **ganze Welt in sich, der Genius ist der lebendige Mikrokosmos.**” (Projekt Gutenberg eBook 2016. <http://www.gutenberg.org/files/51221/51221-h/51221-h.htm>, 10.6.2020)

다. 도서관은 지상 혹은 세속적인 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아파트 꼭대기 층에 있으며, 현관문은 삼중 자물쇠로 잠겨 있다. 이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킨의 상태를 암시한다. 킨이 가정부 채용면접을 보러 온 테레제에게 “낮선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 두어야겠군요”¹¹⁶⁾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굳게 닫힌 도서관의 창문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킨을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¹¹⁷⁾

킨은 결혼 이후 테레제가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도서관에 있는 네 개의 방 중에서 세 개의 방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자 그녀의 주장대로 방 세 개를 테레제에게 양도한다. 이때 킨에게 남은 연구실 역시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묘사된다.

마치 누군가가 지상 세계와 담을 쌓아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관계나 현세적인 것을 등진 작은 방을 지어놓은 것 같았다.¹¹⁸⁾

여기에서 물론 “지상 세계”는 문맥상 자연법칙이 적용되는 자연환경을 가리킨다. 킨은 직접 외부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지 않아도 연구실에서 “몇몇 자연법칙이 존속된다는 점”¹¹⁹⁾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상 Erde’이나 ‘현세적인 것 das Planetarische’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성적 충동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간 묘사는 모든 육체적인 것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학문적 체계만을

116) (BL 26): “Ich muß es mir ausdrücklich verbieten, daß ein fremder Mensch meine Wohnung betritt.”

117) 로버츠는 킨뿐만 아니라 『현혹』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세계를 비추는 소유주가 아니라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창이 없는’ 모나드라는 점을 지적한다. Vgl. Roberts: Kopf und Welt, S. 45.

118) (BL 68f): “Es war, als hätte sich jemand gegen die Erde verbarrikadiert; gegen alles bloß materielle Beziehungswesen, gegen alles nur Planetarische eine Kabine erbaut.”

119) (BL 69): “Weiterbestehen einiger Naturgesetze”

중시하는 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테레제와의 갈등 상황에서 ‘세속적인 것’은 바이닝거가 “동물적이고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행위”¹²⁰⁾로 간주한 섹슈얼리티를 떠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킨의 도서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라도 현실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남성중심주의적 질서를 상징하고 있으며, 킨 역시 자기중심적인 유아론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¹⁾

그렇다면 유아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킨이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테레제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킨은 테레제와의 결혼 이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묘사된다. 예컨대 킨은 결혼식을 마치고 테레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열쇠를 집안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어린 소년처럼 행동했다. 그가 열쇠를 두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¹²²⁾ 그날 밤 테레제가 자신

120) 바이닝거: 성과 성격, 678쪽.

121) 이는 유아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이닝거의 남성성 이론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얀닉 Allen Janik과 같은 연구자는 바이닝거가 당시 빈의 문란한 성 문화를 비판하고 성적인 “절제 Enthaltsamkeit”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남성성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Allan Janik: Weininger und die Kultur des Narzißmus. In: Frank Benseler/ Werner Jung(Hrsg.): Lukács.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Georg-Lukács-Gesellschaft. Bielefeld u.a. 2000, S. 227.

그러나 바이닝거는 유기체적 생명체가 지닌 욕망이나 충동은 무시한 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체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순환 논리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유아론에 빠져있다. 바이닝거의 주장을 극단적인 유아론으로 간주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시오. 인성기: 바이닝어의 유아론(唯我論)과 용수의 공관(空觀).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40집(2008), 343-367쪽.

한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에브너 Ferdinand Ebner는 자신의 저서 『말과 정신적 현실들 Das Wort und die geistigen Realitäten』에서 바이닝거의 남성 주체가 ‘고독한 자아’임을 지적하면서, 신을 경유하는 ‘너 Du’와의 ‘대화 Dialog’를 통해서 이러한 주관성으로 침잠한 개인주의적 천재의 ‘독백 Monolog’에 대항할 것을 제안한다. Vgl. Le Rider: Das Ende der Illusion. Die Wiener Moderne und die Krisen der Identität. Wien 1990, S. 50.

122) (BL 57): “Er benahm sich wie ein kleiner Junge. Daß er die Schlüssel nicht mithatte, passierte ihm zum erstenmal.”

이 소파에 쌓아놓은 책들을 바닥으로 내던지고 성관계를 암시하자 킨은 겁에 질린다. 결국 “킨은 도망치듯이 방에서 성큼성큼 뛰어나온 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다.”¹²³⁾ 성적인 관계를 앞두고 킨이 할 수 있는 일은 늘 하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바지를 내리는 것뿐이다. 이는 킨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만큼이나 무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¹²⁴⁾ 또한 식당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킨은 여전히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테레제를 실망시킴으로써 그녀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데, 이때 초주검이 된 그는 “어린아이처럼 wie ein Kind”(BL 163) 테레제의 팔에 안겨 침대로 옮겨진다. 요컨대 킨은 자신이 경시한 신체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그런데 킨은 외견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테레제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연일 테레제의 구타에 시달리던 킨은 잠든 테레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다투므로, 테레제를 골리앗으로 간주한다.

123) (BL 60): “Kien stürzt in langen Sätzen aus dem Zimmer, sperrt sich ins Klosett, [...] zieht sich an diesem Ort mechanisch die Hosen herunter, setzt sich aufs Brett und weint wie ein kleines Kind.”

124) 이는 ‘연애상담사’로서 칸트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자신의 짧은 에세이 「연애상담사로서 칸트 Kant als Liebesratgeber」에서 칸트와 마리아 폰 헤르베르트 Maria von Herbert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칸트가 “연인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히 순진무구한 태도 die völlige Naivität in der Betrachtung der Geschlechterbeziehung”를 보였으며 “오늘날 15살짜리 아이도 웃게 할 정도로,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 어린아이같이 무지했음 eine kindliche Unwissenheit um die natürlichen Reaktionen der Erotik, die heute jeden Vierzehnjährigen lächeln machen könnte”을 지적한다. Walter Benjamin: Kant als Liebesratgeber. In: ders.: Gesammelte Schriften IV·2. Hrsg. von Tillman Rexroth. Frankfurt a.M. 1991, S. 812.

칸트는 애인이 떠나 괴로워하는 헤르베르트 부인에게 오직 내면의 양심과 이성적 정언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을 충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남시: 광기, 예술, 글쓰기. 자음과모음 2016, 204-211쪽.

그[킨]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한 가지 주제넘은 상상을 한다. 그는 다윗이고, 잠자는 골리앗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리앗은 명칭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물론 다윗이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의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¹²⁵⁾

이는 킨이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킨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점은 사실 테레제의 구타가 가장 극심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킨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객관적인 현실은 킨의 현실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혹』에서는 이처럼 킨이 테레제와의 갈등 상황에서 현실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성의 상실’은 정신분열증을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정신[분열]증이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정신 기능이 변화되어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판단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이를 실제인 것으로 믿는 증상을 말한다. [...] 정신[분열]증을 신경증이나 성격장애와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현실감각의 상실이다.”¹²⁶⁾ 이러한 현실감각의 상실은 앞으로 살펴볼 다양한 정신분열증 증상의 출발점이 된다.

125) (BL 168-169): “Er[Kien] hielt sich für schlau und erlaubte sich einen stolzen Gedanken. Er sei David und bewache den schlafenden Goliath. Der dürfe alles in allem doch als dumm bezeichnet werden. Im ersten Kampf habe David zwar nicht gesiegt; doch sei er den tödlichen Anschlägen des Goliath entgangen, und wer vermöchte über die Zukunft zu entscheiden?”

126)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현실을 떠나 환상으로. 학지사 2016, 15-16쪽.

킨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간주하는 카르스트도 킨이 지닌 정신병의 특징으로 “현실성의 상실 loss of reality”을 언급한다. Karst: Elias Canetti's *Die Blendung*. A Study in Insanity, p. 138.

2) 죽음에 대한 공포

킨과 테레제의 갈등이 묘사된 장면에서는 유독 ‘시체’, ‘관’, ‘해골’처럼 죽음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두 인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가 드러난다.

테레제는 킨이 매일 산책하는 것을 보고 그가 가방에 토막 낸 여자의 시체를 들고 다닌다거나, 도서관에 비치된 책 뒤에 살인의 흔적을 숨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테레시아눔의 경찰서에서 킨의 변론을 듣고 난 뒤에는 킨이 도서관에서 첫 번째 부인을 살해했으며, 산책할 때 그 시체를 밖으로 운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물론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테레제는 킨의 범죄행위를 확신한 뒤에도 범죄 현장일 수도 있는 도서관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추리하여 진상을 밝히려 한다. 테레제는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추리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킨의 살인 행위에 대해 숙고한다.

또한 테레제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킨을 ‘시체’로 여기지만, 이때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킨이 과연 유언장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언장이 있어야 자신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테레제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킨의 피가 자신의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킨의 경우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는 그가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킨은 테레제가 새로운 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웃자 갑자기 첫날밤 소파에서 있었던 일이 눈앞에서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눈부시게 흰 속치마가 나타났다. 속치마의 레이스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투박한 팔이 책들을 밀쳐냈다. 그러자 책들은 카펫 위에 시체처럼 나뒹굴었다. 반은 나체이고 반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요괴가 속치마를 반듯하게 접더니 그것으로 책들을 뒤덮었다. 속치마는 마치 수의(壽衣) 같았다.¹²⁷⁾

킨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책들이 “시체”가 되었다고 느낀다. 또 킨의 상상 속에서 테레제의 속치마는 시체를 덮는 “수의”로, 테레제는 ‘괴물’로 변한다. 이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테레제의 행동이 이성만을 강조하는 킨에게 죽음을 암시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킨은 이러한 기억 때문에 좀처럼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는 테레제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만, 테레제의 형상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다. “그 육중한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그가 다시 소파에 눕자마자 그녀의 형상이 다시 거기에 있는 것을 느꼈다.”¹²⁸⁾ 물론 이때 테레제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으므로, 킨이 본 테레제의 형상은 그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환각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감각 경험을 하는 것”¹²⁹⁾으로, 정신분열증의 핵심 증상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은 환각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이다. 그날 밤 환각에 시달리던 킨은 테레제에 대한 “증오심 Haß”(BL 64)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증오의 대상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킨은 실재하는 인물인 테레제를 두려워하면서도, 감각기관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테레제의 환영에 대해서는 자신의 증오심을 유감없이 표출한다.

정신분열증적인 망상 속에서 테레제에 대한 증오심은 그녀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진다. 경비원 파프는 사다리에서 떨어진 뒤로 6주 동안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있게 된 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각에 그를 방문한다. 파프는 구타를 예술적 행위로 간주하며, 모든 여성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자이다. 또한

127) (BL 63): “Ein stechend weißer Unterrock tauchte auf, von Spitzen zersetzt, ein plumper Arm schlug auf Bücher los. Da lagen sie auf dem Teppich herum wie Tote. Ein Scheusal, halb nackt, halb Bluse, faltete den Unterrock scharf zusammen und deckte ihn darüber, ihr Leichentuch.”

128) (BL 63-64): “das Weib war schwer und blieb, wo es ihr gefiel. Er warf sie förmlich vom Diwan herunter. Kaum lag er, fühlte er wieder ihr Bild.”

129)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37쪽.

그는 자신의 폭력성과 신체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킨은 폭력과 구타를 예찬하는 파프의 말을 듣던 중에 갑자기 그의 주먹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킨은 두 주먹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주먹은 주먹의 소유자인 그 남자보다 더 커졌다. 곧 주먹이 방 전체를 가득 메웠다. 빨간색 머리카락도 같은 비율로 자라났다. [...] 주먹은 옆방으로 돌격했다. 그리고 어느새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는 테레제를 짓눌러 죽였다. 주먹이 치마에 닿자 치마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이 사는 재미지! 킨이 환호성을 질렀다.¹³⁰⁾

갑자기 이전과 다른 감각 경험을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느끼는 변화 중 하나이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는 특정한 감각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주어진 감각을 비현실적으로 경험하곤 한다.¹³¹⁾ 킨 역시 파프의 주먹이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지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한다. 즉, 이 모든 것은 킨의 환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반면 테레제는 같은 시간에 킨의 환각과 무관하게 킨의 책들을 내다 팔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쪽은 오히려 킨이다. 왜냐하면 그는 환각이 사라지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테레제에게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킨의 환각은 정확하게 현실의 정반대 상황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킨의 환각에서 해골을 연상시키는 킨의 신체는 파프의 강인한 신체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서 테레제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킨은 실제 상황과는 달리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성관계

130) (BL 118): “Kien sah die Fäuste [...] wachsen. Sie waren größer als der Mann, dem sie zugehörten. Bald erfüllten sie das ganze Zimmer. Die roten Haare wuchsen im selben Verhältnis. [...] Die Faust stieß ins Nebenzimmer vor und erdrückte Therese im Bett, wo sie plötzlich war. Irgendwo traf die Faust den Rock, der unter großartigem Lärm in Stücke brach. Es ist eine Lust zu leben! rief Kien mit blitzender Stimme.”

131)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60-62쪽 참조.

를 암시하는 침대에서 비로소 테레제를 제압하고 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항상 풀을 먹여 뺏뺏한 상태로 존재하는 테레제의 파란색 치마도 킨의 환각에서는 산산조각이 난다. 이렇듯 킨의 정신분열 증은 테레제에 대한 살해 충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킨은 매일 오전 10시에 파프가 나타나면 자신의 환각 속에서 그의 주먹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테레제의 죽음을 재연한다.

『현혹』과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바이닝거의 『성과 성격』이나 1차대전 전후의 남성성을 다루고 있는 테벨라이트의 『남성 판타지』는 모두 규범적 남성성의 정당화 시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¹³²⁾ 즉, 세기전환기와 1차대전 전후의 규범적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촉발된 ‘남성성의 위기 Krise der Männlichkeit’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남성 질서를 옹호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킨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 인물인 테레제의 등장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혐오하고 이성중심주의적인 질서를 옹호하며 자신의 유아론적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혹』에서도 ‘남성성의 위기’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톨렌 Toni Tholen은 역사적으로 ‘남성성의 위기’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극복되어왔다고 말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중심주의적 주권이 회복되거나,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젠더 질서가 등장함으로써 ‘위기’가 해소된다는 것이다.¹³³⁾ 그렇다면 킨은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132) Vgl. Walter Erhart: Männlichkeit als Kategorie der postmodernen Kondition. In: Paul Michael Lützler(Hrsg.): Räume der literarischen Postmoderne. Gender, Performativität, Globalisierung. Tübingen 2000, S. 128.

133) Vgl. Toni Tholen: “Krise der Männlichkeit”. Zur Konzeptualisierung eines häufig verwendeten Topos. In: ders.: Männlichkeiten in der Literatur. Konzepte und Praktiken. Bielefeld 2015, S. 46.

물론 ‘남성성의 위기’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규범적인 남성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가진 권위적인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Vgl. Stefan Horlacher/ Bettina Jansen/ Wieland Schwanebeck(Hrsg.): Männlichkeit.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Stuttgart

볼 수 있다. 특히 킨이 테레제에 대한 증오심과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 이는 그가 ‘남성성의 위기’에 직면한 남성 주체로서 전통적인 남성중심주의적 주권을 회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네티가 『현혹』에서 기존 남성성의 주권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테레제에 대한 킨의 증오심과 공격성은 정신분열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각 상태에서 킨이 보고 느끼는 것은 작중 현실에서 테레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 광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물론 카네티가 『현혹』에서 새로운 젠더 질서를 제시함으로써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존의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질서를 정신분열증과 연관 지음으로써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킨이 테레제를 ‘시체’로 간주하는 장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킨은 테레제가 방과 복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자 그녀를 ‘시체’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시체라면 자신이 자유자재로 방을 넘나들면서 테레제가 빼앗아간 방 열쇠를 되찾고, 그녀를 구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그녀[테레제]가 전혀 두렵지 않다. 그는 일단 열쇠를 손에 넣으면 그녀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때려눕힐 것이다.”¹³⁴⁾ 또한 식당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킨은 침

2015, S. 2.

그러나 톨렌은 자신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남성성의 위기’의 순간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남성성의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기존의 남성중심주의적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헤게모니와, ‘위기’ 이후 그것의 변화과정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질풍노도 시기의 작가들은 헤게모니를 쥔 18세기 남성 주체와 도덕, 가족, 신분을 규정하는 전통적 가부장제를 의문시켰으며,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애에 치우친 남성 시민 주체에 대한 회의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Vgl. Tholen: “Krise der Männlichkeit”, S. 46.

134) (BL 157): “Er hat beileibe keine Angst vor ihr[Therese]. Man gebe ihm erst die Schlüssel in die Hand und er schlägt sie wie nichts zu Boden.”

대에 누워있는 테레제를 처음에는 강도로 간주하다가, 이내 강도가 테레제를 살해했다고 추측한다. 이때에도 테레제는 킨의 상상 속에서 ‘시체’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쫓겨난 킨은 자신이 도서관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테레제가 도서관에 갇힌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피셀레는 맹인을 시켜서 킨에게 도서관에 있는 테레제가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데, 이 말을 들은 킨의 망상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킨은 테레제의 죽음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으며, 테레제가 도서관에 갇혀 굶주린 나머지 자신의 몸을 잡아 먹음으로써 결국 ‘시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논리적 개연성이 결여된 망상은 환각과 더불어 정신분열증 환자가 보이는 주요 증상이다. “망상의 핵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환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느 한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다가 주변의 모든 사건을 망상체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¹³⁵⁾ 킨 역시 그에게 우연히 주어진 정보를 임의로 취합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테레제와 시체를 동일시하는 킨의 사고체계는 정신분열증적 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킨이 테레제를 ‘시체’로 여기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에 주목했다. 도나휘는 테레제의 죽음에 대한 킨의 망상이 역사적으로 바이

135)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66쪽.

물론 ‘망상’은 편집증의 주요 증상이기도 하다. 또한 임상적으로 편집증적 망상과 정신분열증적 망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집증 환자의 망상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추적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반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개 무의미하거나 모순되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편집증 환자의 망상은 슈레버의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편집증 환자가 지닌 망상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de.wikipedia.org/wiki/Paranoia#Begriffsgeschichte>(10.6.2020)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32-37쪽 및 69-70쪽.

마르 공화국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치정 살인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1차대전 이후의 남성 주체의 위기와 이에 따른 여성혐오의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⁶⁾ 리브란트는 ‘여성적인 것’과 ‘시체’를 동일시해 온 문화적 전통에 대한 브론펜 Elisabeth Bronfen의 연구와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La femme n'existe pas’는 라캉 Jacques Lacan의 상징계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킨이 여성의 부재를 전제하는 남성중심주의적 문화재현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¹³⁷⁾ 도나휘의 연구는 『현혹』에 나타난 여성혐오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준다. 리브란트의 연구는 여성혐오를 근간으로 하는 지배적 문화재현체계의 그로테스크함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현혹』에서 테레제를 시체로 간주하는 킨의 공격적인 성향이 사실은 정신분열증 증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그것이 여성(테레제)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성을 상실한 남성(킨)의 환각이나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리브란트가 지적한 것처럼 킨이 테레제를 시체로 간주하는 것은 그로테스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확고한 기존의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오심으로 얼룩진 킨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해질수록 킨의 행위는 비현실적이고 무기력한 것임이 드러나며, 이는 동시에 테레제에 대한 킨의 두려움이 극복되지 못한 채 점점 더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설새 없이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테레제의 치마를 박살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자신이 구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비록 그녀가 박살나긴 했지만, 그는 그녀를 적중시킨 자신의 주먹질을 되돌려받게 될까 봐 겁이 났다.”¹³⁸⁾ 또한 꿈속에서 킨이 테레제의 치마를 가위로 잘게

136) Cf. Donahue: “Eigentlich bist du eine Frau. Du bestehst aus Sensationen”.

Misogyny as Cultural Critique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p. 691.

137) Vgl. Liebrand: Jahrhundertproblem im Jahrhundertroman, S. 31.

138) (BL 151): “Obschon sie zerschmettert ist, fürchtet er, sie könnte ihm den

자르지만, 잘린 조각들이 고스란히 킨의 상처로 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갑자기 그의 손에 가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치마를 아주 잘게 잘랐다. [...] 바람이 불자 조그만 파란색 천 조각들은 테레제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킨의 몸에 붙었다. 그는 온몸에 푸른색 멍이 든 것을 느끼며 큰 소리로 신음했다.¹³⁹⁾

킨의 망상 체계는 그가 테레제(의 치마)를 산산조각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킨의 꿈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치마의 파란색 조각들은 킨의 신체에서 구타의 흔적으로 변한다. 이는 현실에서 테레제에게 실재 없이 구타당하는 킨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킨과 테레제의 다툼 장면에서 킨은 끊임없이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하며 테레제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카네티는 이것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각 혹은 망상임을 폭로함으로써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주권회복 시도를 비판한다. 또한 카네티는 오히려 테레제의 시체를 요구하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자신이 구타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자폐적 사고와 군중 충동

1) 인식 수단으로서의 눈 감기

칸트는 오감(五感) 중에서 시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여긴다. “시각은 가장 고귀한 감각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시각은 지각에 있어서 가

Faustschlag, der ihr und nicht der Luft galt, zurückgeben.”
139) (BL 165-166): “Eine Schere war plötzlich bei der Hand, und er zerschnitt ihn[Rock] in ganz kleine Stücke. [...] Der Wind trieb sie[kleine blaue Lappen] von ihr[Therese] fort, auf ihn[Kien], sie hängten sich an ihn, er spürte sie, die blauen Beulen, am ganzen Körper und stöhnte laut auf.”

장 제한적인 촉각과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은 자극을 가장 덜 받는다. 따라서 시각은 순수한 직관(자극적인 감각들과 뒤섞이지 않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¹⁴⁰⁾ 여기에서 시각은 ‘신체적인 지각’보다는 ‘정신적인 인식’에 더 가까운 것으로 서술된다. 물론 칸트는 외부 감각 자극의 수용과 이성적 사고의 종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플라톤과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신체적 감각에 대한 이성과 정신 작용의 우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구도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¹⁾

중국학 학자인 킨에게도 시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그의 눈은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학문적인 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그는 인쇄된 것이나 적혀 있는 내용이 일단 자신의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시력을 소모하고 나서야 종이를 내려놓았다.”¹⁴²⁾ 이러한 맥락에서 킨의 시각은 학문적 인식과

140) Kant: Vom Erkenntnisvermögen.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Zwei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10). Darmstadt 1983, S. 449: “Der Sinn des Gesichts ist [...] der edelste; weil er sich unter allen am meisten von dem der Betastung, als der eingeschränktesten Bedingung der Wahrnehmungen, entfernt, und [...] *sein* Organ am wenigsten affiziert fühlt [...], hiemit also einer reinen Anschauung (der unmittelbaren Vorstellung des gegebenen Objekts ohne beigemischte merkliche Empfindung) näher kommt.”

141) Vgl. Shin: Wahrnehmung oder Erkenntnis? Das Sehen bei Elias Canetti. In: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49(2008), S. 152-154.

플라톤의 ‘신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플라톤은 신체적인 눈과 더불어 정신적인 눈, 즉 영혼을 제시한다. 신체적인 눈이 빛을 통과시킴으로써 그것이 영혼까지 작용하도록 하는 매체로서 기능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신적인 눈에서는 인식이 발생한다. Neben das leibliche Auge stellt Platon ein geistiges Auge, die Seele. Während sich das körperliche Auge auf die Funktion eines Mediums reduziert, das einen Lichtstrom durchleitet und bis in die Seele wirken lässt, findet im geistigen die Erkenntnis statt.”

Shin: Wahrnehmung oder Erkenntnis?, S. 153.

142) (BL 30): “Gedrucktes oder Geschriebenes, worauf sein Auge einmal fiel,

근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눈은 감각적인 자극을 수용하는 것 보다는 정신적인 사고를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킨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다. “킨은 눈과 시각의 우위를 주장하며 세계를 오로지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고 제어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시각적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⁴³⁾

‘시각적 인간’인 킨에게 실명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킨은 눈이 멀면 곧바로 자살하겠다고 맹세했다.”¹⁴⁴⁾ 또한 킨은 세수할 때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 눈을 꼭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테레제와의 갈등이 시작된 뒤에 킨이 자발적으로 “맹인 Blinder”(BL 72)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킨은 테레제가 사들인 가구들이 자신의 연구를 방해하자 눈을 감아버리고, 실명을 최고의 원리로 천명한다. “실명은 시공간에 맞서는 무기이다. [...] 실명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이다.”¹⁴⁵⁾

그러나 『현혹』에서 눈 혹은 시각이 두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킨의 학문적 인식에 봉사하는 시각이다. 예컨대 책을 읽는 행위는 글자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감각적인 지각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성적 활동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칸트적인 의미에서) ‘정신적인 인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눈’의 실명은 킨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해 감각 자극의 수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신체적인 눈’은 이성적인 사고체계를 중시하는 킨에게는 불필요한

konnte er nicht übergehen. [...] Jedes Papier, das er zurücklegte, kostete ein Stück Sehkraft.”

143) Furuya: Masse, Macht und Medium, S. 22: “Man kann Kien buchstäblich als Augenmenschen bezeichnen, der dem Auge bzw. dem Gesichtssinn die Priorität zuerkennt und die Welt nur mit dem Gesichtssinn wahrnehmen und steuern will.”

144) (BL 20): “Kien schwor sich zu, sobald ihn Blindheit bedrohte, freiwillig zu sterben.”

145) (BL 73): “Blindheit ist eine Waffe, gegen Zeit und Raum; [...] Das herrschende Prinzip im Kosmos ist die Blindheit.”

신체 기관이다. 왜냐하면 이성중심주의적인 주체에게 학문과 무관한 감각적 자극들은 그저 “감각의 무절제함 *Sinnesexzessen*”(BL 73)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적인 눈’의 실명은 킨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소설의 제목인 ‘현혹 *Blendung*’의 동사형 ‘*blenden*’은 ‘현혹시키다’는 뜻 이외에도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혹』에서 카네티가 눈멀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킨의 ‘정신적인 눈’이 아니라 ‘신체적인 눈’이다. 아니, 킨은 테레제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위협적인 감각적 자극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눈’을 실명시킨다.

구체적으로 이는 킨이 주관적 관념론을 주장한 버클리의 명제를 임의로 재해석함으로써 실현된다. “»*Esse percipi*«, 즉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내가 지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⁴⁶⁾ 킨에 따르면 ‘신체적인 눈’을 감으면 테레제와 관련된 모든 외부 감각 자극의 유입은 차단된다. 그런데 “내가 지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테레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킨의 결론이다. 킨에게 ‘눈 감기’ 혹은 실명은 그가 혐오하는 테레제에 대항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¹⁴⁷⁾ 즉, 킨은 ‘눈 감기’를 통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여성 인물인 테레제를 무시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현실 인식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현실 인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¹⁴⁸⁾

역설적으로 ‘눈 감기’를 자신의 인식 수단으로 삼기로 한 킨은 테레제

146) (Ebd.): “»*Esse percipi*«, Sein ist Wahrgenommenwerden, was ich nicht wahrnehme, existiert nicht.”

147)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킨은 연일 이어지는 테레제의 장광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상에서 자신의 “귀꺼풀 *Ohrlider*”(BL 115)로 귀를 막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148) 정신과 의사 랭은 버클리의 명제가 극단적인 유아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현실 인식을 암시한다고 지적하였다. Vgl. Madel: *Solipsismus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S. 205. 그렇다면 버클리의 관념론보다 더 주관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현실 인식을 지향하는 킨 역시 정신분열증 환자의 유아론적 현실 인식을 연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

첫째로 킨은 테레제 혹은 여성을 연상시키는 ‘치마’를 무시한다. 테레지아눔에서 파프의 초소로 거처를 옮긴 킨은 파프가 제안한 것처럼 감시경을 통해서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이때 그는 여성의 치마는 모두 무시하고 남성의 바지만 관찰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킨이 보기에 여성은 역사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없으며, 기껏해야 남성을 유혹하거나 온갖 간계를 부려 쾌락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킨은 바지의 다양한 특징을 분류하거나 그것을 바지 주인의 성격과 비교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겠다고 다짐한다.

둘째로 킨은 ‘파란색’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테레제의 치마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이다. 킨은 길거리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그는 파란색이나 파란색이 섞여 있는 초록색은 위험한 색깔이며, 물리학자들이 파란색을 삼원색에 포함시킨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킨은 이 세상에 파란색이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다의 색이 숲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초록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꾀변을 늘어놓는다.

마지막으로 킨은 테레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킨은 테레지아눔의 경찰서에서 눈앞에 있는 테레제를 “환각 Halluzination”(BL 331)으로 간주한다(물론 여기에서 킨의 눈에 비친 테레제의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환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테레제는 실제로 킨 앞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킨은 학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성적인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테레제가 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여긴다. 또한 테레제는 파프의 초소에 갇혀 있는 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데, 이때에도 킨은 두 눈을 감고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테레제가 떠난 뒤에는 자신의 감각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 일부를 자르기도 한다.

이렇듯 킨은 자신의 ‘신체적인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테레제가 유발하는 감각적인 자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이때 그가 유독 자신의 학

문적 체계와 이성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킨은 테레제와 관련된 감각을 부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증하며,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이는 킨이 ‘신체적인 눈’은 완전히 닫아버린 채 오로지 ‘정신적인 눈’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려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성적인 눈만을 강조하는 킨의 인식 체계는 혐오 대상인 여성과 관련된 감각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학자의 핏속에는 무시하기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학문은 무시의 기술이다”¹⁴⁹⁾는 킨의 말은 이러한 현실 인식 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결과 고도로 이성적인 킨의 사고체계는 간단한 감각적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예컨대 파란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킨의 논증은 억지 주장에 가깝다. 또한 테레제의 등장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환영으로 간주하고, 그녀가 풍기는 냄새나 그녀와 관련된 신체적 접촉을 무시하려는 킨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킨은 테레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테레제가 놓고 간 음식을 보고는 누군가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그것을 두고 간 것이라고 여긴다. 이 작품의 제목이 ‘현혹 Blendung’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킨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고체계에 극단적으로 집착함으로써 ‘현혹’된다. 다시 말해 킨이 ‘현혹’ 상태에 빠진 것은 그가 자신의 ‘신체적인 눈’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각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카네티는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지각을 인식의 기초로 삼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를 경험할 것을 촉구한다.¹⁵⁰⁾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는 사유가 감각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유가 발생한다. “무언가를 보거나 인식하기 위해서 우선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는 보는 행위 자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¹⁵¹⁾ 『현혹』에서 킨은

149) (BL 423): “Das Übersehen liegt einem Gelehrten im Blut. Wissenschaft ist die Kunst des Übersehens.”

150) Vgl. Shin: Wahrnehmung oder Erkenntnis?, S. 161.

151) Shin: a.a.O., S 162: “nicht erst das Denken [muss] da sein, um etwas zu sehen bzw. zu erkennen, sondern das Denken wird im Sehen selbst vollendet.”

이러한 작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킨은 신체적인 지각을 경시하고 오로지 정신적인 지각만을 인식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정신착란에 시달린다. 이를 통해 카네티는 오로지 이성적인 사고의 틀에 맞추어 여성을 대하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러한 사고체계의 폐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2) 동물로의 변신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의 ‘먹기의 심리학’ 장에서 권력 현상을 둘러싼 인간 심리를 분석하면서 권력의 통제를 받는 자를 ‘먹히는 자’에 비유한다. “먹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권력의 대상이다.”¹⁵²⁾ 이와 반대로 먹는 행위는 권력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역사적으로 고대의 지배자들은 많이 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음식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많은 가축을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⁵³⁾ 또한 카네티에 따르면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공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식사 예절을 중시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의 에티켓에 의하면 식사하는 동안에 입을 다물어서 입을 여는 데 내포된 위험을 최소한으로만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을 다문다고 해서 반드시 덜 위험스럽게 보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쉽사리 공격에 쓰일 수 있는 두 개의 도구인 칼과 포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⁴⁾ 이뿐만 아니라 카네티는 음식물 조각이 ‘물어뜯다 *beißen*’의 명사형 ‘*Biß*’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먹는 행위와 공격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¹⁵⁵⁾

‘먹히는 자’가 권력의 통제대상이고 ‘먹는 자’가 권력자라면 『현혹』에서 이는 각각 킨과 테레제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테레제의 등장으로 주

152) 카네티: *군중과 권력*, 292쪽.

153) 카네티: 같은 책, 292-293쪽 참조.

154) 카네티: 같은 책, 297쪽.

155) 같은 쪽 참조.

도권을 상실한 킨은 도서관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킨은 심리적으로 ‘잡아먹히는 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킨은 테레제가 성 관계를 암시하면서 책들을 살해하는 괴물로 변하자 음식을 거부하는데 (“그는 음식 앞에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¹⁵⁶), 이는 그가 ‘잡아먹히는 자’로서 잡아먹히는 대상(음식)에 대해 동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제발트 W. G. Sebald는 자연의 소화 시스템에 대한 카네티의 관찰기록을 인용하면서¹⁵⁷), “사냥감의 입장이 되어본 자 die Betroffenen, die sich in die Gejagten hineinversetzen”는 다른 자에 의해서 자신이 잡아먹히고 소화될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걱정 pathologische Apprehension”을 이해한다고 말한다.¹⁵⁸ 즉, 테레제와의 권력 구도에서 사냥감의 처지에 놓인 킨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잡아먹힐 운명에 처한 대상에 감정 이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잡아먹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킨은 테레제가 없는 식당에서는 거리낌 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이는

156) (BL 63): “vor dem Essen spürte er Ekel.”

157) 제발트가 인용하고 있는 카네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두 시간 이내에 적출되어 10분의 9만 남은 인간의 위를 본 뒤로 나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인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위는 사람들이 부엌에서 구워먹는 고깃덩어리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심지어 그것의 크기는 평범한 커튼릿만 했다. 무엇 때문에 고깃덩어리가 다른 고깃덩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 왜 끊임없이 한 살덩어리가 다른 살덩어리의 내장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왜 유독 이것이 우리 삶의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가? Seit ich einen menschlichen Magen gesehen habe, neun Zehntel eines menschlichen Magens, wie er keine zwei Stunden zuvor herausgeschnitten worden war, weiß ich noch weniger, wozu man ißt. Er sah genauso aus wie die Fleischstücke, die die Menschen sich in ihren Küchen abbraten, sogar die Größe war die eines gewöhnlichen Schnitzels. Wozu kommt dieses Gleiche zum Gleichen? [...] Warum muß unaufhörlich Fleisch durch die Eingeweide eines anderen Fleisches gehen? Warum muß besonders dies die Bedingung unseres Lebens sein?” Canetti: Die Provinz des Menschen. Frankfurt a.M. 1995, S. 138.

158) W.G. Sebald: Summa Scientiae. System und Systemkritik bei Elias Canetti. In: ders.(Hrsg.): Die Beschreibung des Unglücks. Zur österreichischen Literatur von Stifter bis Handke. Frankfurt a.M. 2006, S. 98.

그가 도서관 밖으로 나감으로써 일시적으로 ‘잡아먹히는 자’의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먹는 행위는 『현혹』에서도 권력욕 혹은 타자에 대한 공격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쉴새 없이 구타하는 파프는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이다. 이는 그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아내와 딸을 권력의 먹잇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킨의 망상에서 테레제는 ‘잡아먹는 자’로 표현된다. “그녀는 지나치게 삶에 집착했다. 그녀의 탐욕은 한이 없었다. 그녀는 단 몇 초의 경멸스러운 순간을 위해 삶을 연장하려 했다. 만약 그녀 곁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를 잡아먹었을 것이다.”¹⁵⁹⁾ 킨의 망상에 따르면 테레제는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전형적인 권력자이다.

킨이 자신을 ‘잡아먹히는 자’와 동일시할 때,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 역시 자신이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자아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통제와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¹⁶⁰⁾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킨은 권력을 쥔 테레제의 통제에서

159) (BL 291): “Sie hing zu sehr am Leben. Ihre Gier kannte keine Grenze. Sie verlängerte es um jede verächtliche Sekunde. Sie hätte Menschen gefressen, wären welche in ihrer Nähe gewesen.”

160) Bachmann: Wahn und Wirklichkeit, S. 134: “Das schizoide Selbst muß sich der Kontrolle und Macht anderer entziehen können, um nicht “verschlungen” zu werden.”

‘잡아먹히는 듯한 느낌 Verschlungenwerden’은 정신과 의사인 랭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개념이다. “자신이 잡아먹힐 것 같다고 느끼는 개인은 모든 종류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Hierbei[Beim Verschlungenwerden] fürchtet das Individuum Bezogenheit als solche mit allem und jedem oder sogar mit sich selbst, weil die Unsicherheit über die Stabilität seiner Identität und Autonomie es in jeder Beziehung ständig den Verlust seiner Identität und Autonomie

벗어나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망상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시체가 된 테레제를 재차 공격하는 사나운 개를 등장시킨다.

집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파프는 시체와 치마를 발견했다. 그는 시체와 치마를 관에 넣었다. [...] 경비원이 관을 따라갔다. [...]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가 관 위로 뛰어올라 그것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풀을 먹여 뺏해진 치마를 물어뜯었다. 치마를 문개의 주둥이가 피투성이가 되었다. 경비원은 치마가 그녀의 일부이며, 심장보다도 그녀와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굶주린 개가 워낙 난폭했기 때문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우두커니 서서 산산조각이 난 치마가 사나운 동물의 피에 적셔진 채 그것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¹⁶¹⁾

빔머는 킨의 망상에 등장하는 사냥개가 테레제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쓴다. “킨이 묘사하는 시체 훼손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테레제의 죽음만으로는 두려움의 기운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¹⁶²⁾

befürchten läßt.” Ronald D. Laing(Übersetzt von Christa Tansella-Zimmermann): Das geteilte Selbst. Eine existentielle Studie über geistige Gesundheit und Wahnsinn. Köln 1983, S. 53. Zitiert nach Bachmann: a.a.O., S. 126.

161) (BL 286): “Die Wohnung war von außen fest versperrt. Als er[Pfaff] sie aufbrach, fand er die Leiche und den Rock. Sie wurden zusammen in den Sarg gelegt. [...] Hinter dem Sarg schritt der Hausbesorger her [...]. Ein großer Fleischerhund sprang auf den Sarg, riß ihn zu Boden und zerrte den gestärkten Rock hervor. Er biß sich sein Maul daran blutig. Der Hausbesorger dachte, der Rock gehört zu ihr, der Rock war ihr näher als das Herz, doch da der Hund sich vor Hunger rabiät gehabte, wagte er es nicht und ließ sich mit ihm in keinen Kampf ein. Er stand nur dabei und sah ergriffen zu, wie Stück um Stück, mit dem Blut des gewaltigen Tieres getränkt, in dessen Rachen verschwand.”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킨의 망상에서 갑자기 개가 등장할 때, 이는 킨 자신이 개로 변신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우선 평소에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킨은 꿈속에서도 테레제의 파란색 치마를 산산조각낸 적이 있다. 따라서 킨의 망상에서 테레제의 치마를 물어뜯어 산산조각내는 개는 자연스럽게 킨과 연결된다.

또한 킨은 관찰자의 시선에서 사냥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이전에도 자기 자신을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보는 것처럼 묘사한 적이 있다. 작품 초반에 킨은 변화가에서 한 행인이 어떤 남자에게 길을 묻는 것을 보는데, 행인은 반복해서 정중한 어투로 질문을 던지지만 질문을 받은 남자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한다. 킨은 무지한 행인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는 이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한다. 남자가 말 한마디 없이 행인을 무시하자 행인은 결국 자신을 무시하는 남자에게 분노하며 고함친다. 그제야 킨은 질문을 받은 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킨이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서 사냥개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¹⁶³⁾, 사냥개는 사실 킨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으로 킨은 도서관에서 극심한 구타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하면서 꿈쩍없이 테레제에게 복종하는데, 이때 개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녀가 침대로 다가오면 그는 흠뻑 두들겨 맞은 개처럼 벌벌 떨었다.”¹⁶⁴⁾ 킨은 테레제가 “개 밥그릇 Futterschüssel”(BL

162) Wimmer: Poetik des Hasses in der österreichischen Literatur, S. 236: “Die von ihm geschilderte Leichenschändung dient dem Schutz des Gelehrten vor dem Objekt seiner Furcht, deren Macht nicht einmal der Tod [Thereses] bannen könne.”

163) 킨은 테레지아눔 경찰서에서의 변론 장면에서도 테레제의 죽음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사냥개를 언급한다. “가장 신뢰할 만한 증인은 그녀의 치마를 물어뜯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그것을 먹어치운 사냥개일 것이다. Der verlässliche Zeuge wäre der Fleischerhund, der ihren Rock in ganz kleine Stücke zerbissen und dann gefressen hat.” (BL 341)

166)에 “먹이 Futter”(BL 164)를 담아주자 그것을 “(개처럼) 훑아먹기도 lappte”(Ebd.) 한다. 테레제는 그러한 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개처럼 몸을 낮추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의 망상에서 사냥개가 출현할 때, 이는 테레제와의 권력 다툼에서 주도권을 잃고 동물의 지위로 격하되었던 킨 자신이 변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테레제의 치마를 물어뜯는 사나운 사냥개는 킨의 내면을 비추는 그의 분신이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테레제에 대한 킨의 복수심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킨이 사냥개로 변신하여 테레제의 치마를 갈기갈기 ‘물어뜯고 beißen’ 그것을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잡아먹히는 쪽(Biß)’에 속했던 킨이 망상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잡아먹는(beißen)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킨의 정신분열증적 망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테레제와 자신 사이의 권력 구도를 전복시키고 다시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앞서 킨이 테레제를 ‘시체’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인 힘을 지니지는 못한다. 오히려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나 테레제의 치마를 물어뜯는다는 다소 초현실적인 장면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신념”이라는 점에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보이는 “기괴한 망상”에 해당한다.¹⁶⁵⁾ 따라서 킨이 사냥개로 변신하는 것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 지닌 권력에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러한 시도의 패쇄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킨이 ‘동물’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두고 변신 장면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상가로서 카네티는 인간이 동물로의 변신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⁶⁶⁾ “가장 끔찍한 오류는 “인

164) (BL 164): “Wenn sie sich dem Bette näherte, zuckte er zusammen, ein verprügelter Hund.”

165)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35-36쪽.

166) 카네티는 인간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

간”이라는 표현에 있다. 인간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억압해 온 모든 것은 인간의 내면에 그대로 남아있다.”¹⁶⁷⁾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변신했던 모든 동물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⁸⁾ 이러한 맥락에서 사냥개는 킨의 내면에 억압된, 변신 가능한 존재로서의 동물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현혹』에서 ‘동물’은 내적인 ‘동물적 충동’과 연결되기도 한다. 카네티는 등장인물인 게오르크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이 ‘군중 충동’임을 주장한다. 정신병원장이 된 게오르크는 오로지 성적 충동만을 중시하는 조교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조교들]은 보다 심오하고 근본적인 역사의 추동력, 즉 인간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 더 높은 동물종(種)인 군중에 흡수되어 거기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내면에 있는 군중에 맞서는 개인의 요새나 다름없다.

우리는 굶주림이나 사랑에 맞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군중을 말살하기 위해서 소위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때에 따라 군중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개인의 관심사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만큼 강해지기도 한다. “인류”는 군중으로 이해되고 용해

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지나치게 편협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 ‘적응’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 ‘변신’능력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Vgl. Canetti: Die Provinz des Menschen, S. 66.

주지하다시피 다윈은 인간의 조상이 동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인간을 명실공히 다른 동물에 비해 더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찰스 다윈 (추환호 역): 인간의 기원 I. 동서문화사 2018.

167) Canetti: Die Provinz des Menschen, S. 66: “Der furchtbare Irrtum liegt im Ausdruck “der Mensch”; er ist keine Einheit; was er vergewaltigt hat, enthält er alles in sich.”

168) Canetti: Gespräch mit Horst Bienek. In: ders.: Aufsätze - Reden - Gespräche, S. 168: “Der Mensch ist auch die Summe aller Tiere, in die er sich im Laufe seiner Geschichte verwandelt hat.”

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동물, 거대하고 거칠며, 원기 왕성하고 열이 펄펄 끓는 동물로서의 군중은 어머니들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곳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 우리는 군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개개인으로 살아갈 뿐이다. 군중은 가끔 거칠게 퍼붓는 폭우나 비할 바 없는 광란의 바다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덮친다. [...] 그러나 군중은 금방 다시 사라져버리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불쌍하고 고독한 악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엄청난 다수를 이루었으며, 커다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극도로 이성적인 양반은 이를 “병” 혹은 “인간 내면의 짐승”으로 간주하고, 말을 잘 듣는 양을 달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실과 가까운 것인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¹⁶⁹⁾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군중과 개인은 카네티가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인 “군중 충동 *Massentrieb*”과 “개인 충동

169) (BL 449-450): “Von der viel tieferen und eigentlichsten Triebkraft der Geschichte, dem Drang der Menschen, in eine höhere Tiergattung, die Masse, aufzugehen und sich darin so vollkommen zu verlieren, als hätte es nie *einen* Menschen gegeben, ahnten sie[die Assistenten] nichts. Denn sie waren gebildet, und Bildung ist ein Festungsgürtel des Individuums gegen die Masse in ihm selbst.

Den sogenannten Lebenskampf führen wir, nicht weniger als um Hunger und Liebe, um die Ertötung der Masse in uns. Unter Umständen wird sie so stark, daß sie den einzelnen zu selbstlosen oder gar gegen sein Interesse laufenden Handlungen zwingt. “Die Menschheit” bestand schon lange, bevor sie begrifflich erfunden und verwässert wurde, als Masse. Sie brodelte, ein ungeheures, wildes, saftstrotzendes und heißes Tier in uns allen, sehr tief, viel tiefer als die Mütter. [...]. Wir wissen von ihr nichts; noch leben wir als vermeintliche Individuen. Manchmal kommt die Masse über uns, ein brüllendes Gewitter, ein einziger tosender Ozean [...]. Noch pflegt sie bald zu zerfallen, und wir sind dann wieder wir, arme, einsame Teufel. In der Erinnerung fassen wir es nicht, daß wir je so viel und so groß und so eins waren. “Krankheit”, erklärt ein mit Verstand Geschlagener hier, “die Bestie im Menschen”, beschwichtigt das Lamm der Demut dort und ahnt nicht, wie nah der Wahrheit es danebenrät.”

Persönlichkeitstrieb”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⁰⁾ 게오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내면에 있는 무차별적인 ‘군중 충동’에 시달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이러한 ‘군중 충동’에 맞서기 위해서 심리적인 “요새”를 구축하고, 그것을 “병”으로 간주한다.

물론 카네티가 제시한 ‘군중 충동’의 문화 인류학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성적 개인’이 보기에 ‘군중 충동’은 “거대하고 거칠며, 원기 왕성하고 열이 펄펄 끓는 동물”이나 “인간 내면의 짐승”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동물중”에 해당하는 ‘군중 충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성에 반하는 병적인 충동으로 간주하며 적대시한다.

이성적 주체로서 킨은 오로지 ‘개인 충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실에서 그는 학문과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테레제와 달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킨은 자신의 여성혐오적 성향이 투사된 망상에서 ‘동물’로 변한다. 다른 형상이 아닌 동물로 변신한다는 점에서 이미 암시되듯이, 킨이 변신한 사냥개는 그의 평소 모습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굶주린 사냥개는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테레제를 관에서 꺼내고, 그녀의 치마를 물어뜯어 산산조각낸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주둥이로 그것을 먹어치운다.

사냥개로의 변신 장면은 『현혹』에서 킨이 가장 역동적이고 격렬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카네티는 이를 통해서 이성중심주의적인 남성 역시 동물적인 충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사냥개가 곧바로 킨의 ‘군중 충동’을 구현한

170) Canetti: Frühe Ehre des Intellekts. In: ders.: Die Fackel im Ohr, S. 119.

카네티의 ‘군중 충동’ 개념은 ‘군중심리’를 보다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역사사전』에 따르면 카네티는 군중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적인 대중 운동의 성격을 추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Vgl. Joachim Ritter/ Karlfried Gründer: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5. Basel 1980, S. 830.

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혐오와 관련된 킨의 동물적 충동은 개인의 이성적인 사고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원초적인 감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게오르크가 말하는 “인간 내면의 짐승”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신의 망상에서 사냥개로 변신할 때, 이는 내면에 있는 동물적인 충동이 이성중심주의적인 남성 주체를 엄습하고 해체하려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3) 비이성적 사고체계와 군중 상징으로서의 불

다음은 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심리검사에서 보인 반응이다.

이건 우리 집인데 이사 가서 잘 살다가 건물 지은 분들이 계속 작업하셔서, 아이들이 있으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는 파스퇴르 우유가 좋다. 옆집 언니는 아기가 약하다. 또 유산해서 못 낳는다. 놀이공원 가서 부딪치는 차도 타고 이불도 잘 꿰맬다고 자랑하고..., 차를 대는 터를 보고 거기를 샀다. 근처에는 대구우유도 생겼다. 축협우유... 엄마는 건국우유를 드신다... 텔레비전이 터지면 죽듯이 꽃도 변화한다. 세상이 터지고 무궁화도 변하면 못 알아보고 노래자랑을 선호하고 텔레비전 다 있으니까 가요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이산가족 아픔을 노래한 가수도 많이 듣고...¹⁷¹⁾

사고장애를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물론 이 말 속에는 환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이나 생각이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따라서 그 자신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자신만 이해 가능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자폐적 사고라고 한다.”¹⁷²⁾

171)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39쪽에서 재인용.

172) 이훈진/ 이준득: 같은 책, 40쪽.

킨 역시 정신분열증적인 사고장애에 시달린다. 테레지아눔에서 파프의 초소로 이동한 킨은 파프에게 도서관 청소를 맡긴 뒤, 같은 날 밤 곧 되 찾게 될 자신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잠이 든다.

집에는 살아 있는 존재도, 끔찍한 짐승도, 씩씩대는 여자도, 치마도, 시체도 없을 것이다. [...] 책에 집요하게 붙어 있는 곰팡이를 떼어낼 현대적인 통풍기. 몇 달이 지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겠지. 인공부화기에 넣어버리자! 가장 위험한 신체 기관은 코이다. 방독면은 숨쉬기 편하게 해준다. 한 다스의 방독면을 책상 위 높은 곳에 올려두자. 높이가 올려두지 않으면 난쟁이가 훔쳐 갈 거야. 그는 우스꽝스러운 코를 손으로 집는다. 코에 방독면을 씌워라. 슬퍼 보이는 커다란 두 눈. [...] 둘 다 글을 읽고 싶어 한다. 둘 중에 누가 대장이지? 누군가 눈꺼풀을 때린다. 그에 대한 벌(罰)로 두 눈을 감는다. 칠혹 같은 어둠. 밤에 활동하는 도둑고양이들. 동물들도 꿈을 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도서관. 동물박물관. 불을 향한 조로아스터의 열정. 그는 조국에서 추앙받았다. 형편없는 예언자. 악마 같은 프로메테우스. 독수리는 오로지 간만 쪼아먹는다. 그의 불을 먹으란 말이다! 7층의 테레지아눔 - 불길 - 책들 - 가파른 계단으로 도망쳐라 - 서둘러, 서둘러! - 제기랄! - 정체다 - 불이야! 불이야! - 모든 이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이들 - 우린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 책들, 우리는 모두 책들이다 - 빨간색, 빨간색 - 누가 여기서 계단을 막고 있느냐? - 나는 묻는다. 나는 대답을 원한다! - 내가 좀 지나가자! -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터주겠다! - 내가 적들의 창을 향해 돌진하겠다! - 빌어먹을 - 파란색 - 치마 - 하늘로 치솟은 굳센 바위 - 은하수 넘어까지 이어진다 - 시리우스성까지도 - 개들 사냥개들 - 화강암을 물어뜯자! - 부수기 이빨들 주둥이들 피 피 - 173)

173) (BL 418): “kein lebendes Wesen, keine grelle Bestie, kein fauchendes Weib, kein Rock. Die Wohnung leichenrein. [...] Moderne Ventilation für hartnäckigen Moder in Büchern. Noch nach Monaten riechen manche. In den Brutofen damit! Das gefährlichste Organ ist die Nase. Gasmasken erleichtern die Atmung. Ein Dutzend hoch über dem Schreibtisch. Höher, sonst stiehlt sie ein Zwerg. Greift an die lächerliche Nase. Stülp dir eine Gasmaske über. Zwei riesen traurige Augen. [...] Lesen wollen beide. Wer führt hier den

킨의 몽상에서는 테레제에 대한 증오심과 책의 청결함에 대한 집착, 연구에 대한 열망과 테레시아눔에서 느꼈던 화재에 대한 걱정, 파란색 치마로 대변되는 테레제에 대한 공포와 그것을 물어뜯는 사냥개의 공격성 등이 엮보인다. 즉, 여기에서 킨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거의 모든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킨의 꿈이 그에게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논리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킨의 사고는 무작위적인 이미지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전개된다. 이는 물론 꿈 언어 특유의 비논리적이고 연상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꿈속에서 킨의 언어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왜곡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원래 “그는 꿈에서조차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명료하게 사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떠올린 꿈 중에서 불명확하고, 특색이 없고, 희미한 이미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¹⁷⁴⁾ 꿈속에서조차 항상 “이성적으로 vernünftig”(BL 18) 대화하는 인물인 킨이 더 이상 명확하고 분명한 꿈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킨의 이

Oberbefehl? Jemand knipst gegen die Lider. Zur Strafe lass' ich euch schließen. Stockfinsternis. Raubkatzen in der Nacht. Tiere träumen auch. Aristoteles hat alles gewußt. Erste Bibliothek. Zoologische Sammlung. Zoroasters Leidenschaft fürs Feuer. Er galt in seinem Vaterland. Schlechter Prophet. Prometheus, ein Teufel. Der Adler frißt nur die Leber. Friß doch sein Feuer! Theresianum im sechsten Stock - Flammen - Bücher - Flucht über steile Stiegen - rasch, rasch! - Verflucht! - Stauung - Feuer! Feuer! - 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 - einig, einig, einig - Bücher, Bücher sind wir alle - rot, rot - wer versperrt hier die Treppe? - Ich frage. Ich will Antwort! - Laßt mich vor! - ich bahn' euch den Weg! - Ich stürze mich in die feindlichen Speere! - Verdammt - blau - der Rock - steif starr ein Fels zum Himmel - über die Milchstraße - Sirius - Hunde Fleischerhunde - beißen wir auf den Granit! - Zerbrechen Zähne Mäuler Blut Blut - ”

174) (BL 18): “[Denn] Selbst seine Träume hätten eine schärfere Fassung als die bei den meisten Menschen übliche. Unplastische, farblose, verschwommene Visionen seien den Träumen, die er bis jetzt berücksichtigt habe, fremd.”

성적 사고체계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폐적 사고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점 자신의 폐쇄적인 사고체계로 침잠하는 킨은 파프의 초소에서 계속해서 환각과 망상에 시달린다. 예컨대 그는 길을 막고 있는 파란색 바위에 대한 꿈을 꾸거나, 파란색 그림자나 광선이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파프의 카나리아들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한다거나(생물학적으로 파란색 카나리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벽들이 파란색 얼룩으로 해체된다고 느낀다. 요컨대 그는 곳곳에서 테레제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¹⁷⁵⁾ 이렇듯 폐쇄적인 정신착란을 겪는 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한걸음에 내달려온 인물이 바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킨의 동생인 게오르크이다.

『현혹』 수용 초기에 게오르크는 군중 충동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해석되었다.¹⁷⁶⁾ 실제로 게오르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고집하는 정신병 환자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한 세계에 적극적으로 감정 이입함으로써 정신병 환자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이다. 따라서 그는 킨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킨의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고 찬성함으로써 킨의 명료한 사고체계를 복구해 낸다. 여기에서 명료한 사고체계는 물론 학문에 대한 집착과 여성혐오적인 성향을 보이는 킨의 ‘편집증적 사고체계’를 의미한다. 킨이 게오르크 앞에서 이전처럼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여성

175) (BL 431): “Er beginnt an seinem Verstand zu zweifeln.”

176) 카네티는 두르작 Manfred Durzak과의 인터뷰에서 작중인물인 게오르크를 통해 군중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을 밝힌다. 두르작은 이러한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카네티가 킨의 방향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억압하는 교육과 이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르작은 잃어버린 군중 충동에 다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환자들을 존중하는 게오르크를 긍정적인 인물로 간주한다. Vgl. Manfred Durzak: Gespräche über den Roman. Frankfurt a.M. 1976, S. 86-127, bes. S. 123-124.

안삼환 역시 게오르크와 킨을 대비시키면서 게오르크를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안삼환: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6, 530-531쪽 참조.

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게오르크는 킨의 도서관을 점령한 테레제와 파프를 내쫓고, 킨이 다시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로써 킨은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정신분열증적 망상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학문에 매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킨은 게오르크가 파리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인다. 이는 게오르크의 치료법이 사실은 기만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게오르크는 양가적인 인물이다. 킨이 책들로 가득한 자신의 도서관에서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게오르크는 정신병 환자들로 가득한 자신의 정신병원에서 “절대적인 지배자 [ein] absoluter Herrscher”(BL 50)이다. 또한 게오르크는 정신병자를 위한 연방공화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신이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야욕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게오르크가 환자들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추켜세우는 것은 그가 그들의 내적 세계를 정말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추앙하는 추종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⁷⁷⁾ 따라서 게오르크는 자신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방식으로 킨의 편집증적 세계관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한다.¹⁷⁸⁾ 그 결과 게오르크는 킨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내지 못한다. 그는 킨이 다시 여성혐오적인 모습을 보이자 자신이 도서관이 불탈지도 모른다는 킨의 망상을 치료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킨은 그러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

177) 신현숙은 게오르크의 기만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의 감정이입 기술이 “너와 나의 진정한 합일이 아닌, 오히려 타자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계략’이었음”을 지적한다. 신현숙: *군중과 기만*, 118쪽.

178) 게오르크의 내력을 다루고 있는 ‘정신병원 Ein Irrenhaus’ 장에서는 게오르크 이외에도 그가 맡은 편집증 환자 ‘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내가 떠난 뒤 극심한 정신병에 시달리던 장이 세 명의 사내아이와 한 명의 여자아이를 교살한다는 점이다. 파프의 초소에서 킨이 목 졸라 죽인 카나리아 역시 세 마리는 수컷이고 한 마리는 암컷이다. 이는 편집증 환자 장과 킨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며, 더 나아가 게오르크가 자신의 환자 장에 비추어 킨을 편집증 환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게오르크의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착각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킨의 입장에서 게오르크는 “거짓 메시아 ein falscher Messias”¹⁷⁹⁾이다.

따라서 마침내 자신의 도서관으로 돌아온 킨은 여성을 혐오하는 이성 중심주의적인 남성이자 편집증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갖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카네티는 『현혹』의 마지막 장(‘빨간색 수도꼭지 Der rote Hahn’) 전체를 킨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고조되는 양상을 다루는 데에 할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킨은 파프의 초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컨대 킨은 이전에 자신이 죽인 네 마리의 카나리아를 떠올리는데, 이때 그가 언급하는 것은 죽은 카나리아에서 연상되는 온갖 잡다한 대상들이다. 이는 킨의 사건 묘사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직관적인 연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킨의 비이성적 사고체계에서는 그가 겪은 과거의 사건들이나 그가 만난 인물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킨은 자신의 망상 속에서 결혼하기 직전의 테레제와 대화를 나누거나, 도망 다니는 피셜레를 바라보며 테레시아눔에 갇힌 책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또 그는 게오르크가 자신 앞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경찰이 자신의 범행(테레제를 도서관에 가두어 살해한 일)을 알아채고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요컨대 마지막 장에서 킨의 사고에는 사실과 환각, 과거와 현재, 기억과 자신이 재구성한 현실이 이미지의 형태로 모두 뒤섞여 나타난다.

이러한 킨의 비이성적 사고체계는 르 봉 Gustave Le Bon이 『군중심리학 Psychologie des foules』에서 제시한 군중의 특성을 암시한다. “군중은 그것[주어진 사건]을 이미지로 생각하고,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는 첫 번째 것과 아무런 논리적 연관도 없는 일련의 다른 이미지들을 연상시킨다. [...] 이성은 이 이미지들의 논리적 비일관성을 보여주지만, 군중

179) Anthony Stephens: Variationen über zwei Kafka-Erzählungen in Canettis *Die Blendung*. In: Gerhard Neumann(Hrsg.): Canetti als Leser. Freiburg 1996, S. 135.

은 이런 점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사건과 자신들의 상상력이 변형시킨 사건을 혼동한다.”¹⁸⁰⁾

르 봉은 이러한 군중을 야만적이고 무의식적이며 결과에 대해 무책임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주장한다.¹⁸¹⁾ 『현혹』에서 킨은 처음에는 르 봉이 말한 지적 엘리트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된다. 르 봉이 군중에게 여성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배척한 것처럼¹⁸²⁾, 킨은 테레제를 무질서와 동일시하고 그녀를 혐오한다. 그러나 카네티가 르 봉과 마찬가지로 군중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이성적 주체와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향인 도서관으로 돌아온 킨은 이전과 달리 그 자신이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빠진 것으로 묘사된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킨은 마치 군중에 속한 개인처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체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르 봉이 군중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역시 군중 현상에 매료되었던 것처럼¹⁸³⁾, 『현혹』에서 이성적 주체인 킨 역시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중심리를 연상시키는 정신분열증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지막 장에서 킨은 유독 화재를 암시하는 빨간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역시 정신분열증과 군중이 지닌 성격의 긴밀한 유사성을 암시한다.¹⁸⁴⁾ 킨은 빵을 담은 통을 보고 화장터를 떠올리거나 갑자기 게오르크가 언급했던 도서관의 화재에 대해 생각한다. 또 그는 바지가 불탄다는 망상에 시달리거나 신문에 있는 ‘화재’라는 글자에 주목하면서 테레지

180) 퀴스타브 르봉(민문홍 옮김): 군중심리학. 책세상 2014, 62쪽.

181) “인간은 고립되어 있을 때는 교양 있는 개인일지 모르나, 군중 속에서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다.” 르봉: 군중심리학, 53쪽.

182) “군중은 도처에서 여성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르봉: 같은 책, 60쪽.

르 봉의 군중 이론에서 군중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세르주 모스크비치: 군중의 시대. 문예출판사 1996, 183-185쪽.

183) Vgl. Widdig: Männerbünde und Massen, S. 114.

184)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와 군중 속에 있는 개인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극도로 자극받기 쉬운 상태에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마치 군중의 구성원처럼 행동한다.” 카네티: 군중과 권력, 431쪽.

아늑에서 벌어지는 화형장면을 상상한다. 킨의 내밀한 심리를 묘사하는 서술자의 언어에서는 ‘불 Feuer’, ‘화재 Brand’, ‘화염 Flammen’, ‘불타다 brennen’, ‘(불길)이 치솟다 schwellen’나 불에 잘 타는 ‘석유 Petroleum’, ‘종이 Papier’, ‘책들 Bücher’과 같은 단어들 무수히 반복되기도 한다. 킨은 이전에 자신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남긴 빨간색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성냥에 불을 붙이는데, 이는 결국 도서관을 집어삼키는 화재로 이어진다. 킨은 자신의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는다.

카네티에게 불은 군중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그는 1927년 7월 15일 부당한 법정판결에 분노한 시위대가 빈 법원 건물을 불태웠던 날을 회고하면서, 하늘을 가득 메운 불길이 군중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음을 증언한다.¹⁸⁵⁾ 이러한 불에 대한 강한 인상은 소설 집필 과정에서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반영되어 킨의 망상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이성적 주체인 것처럼 보이던 킨 역시 이러한 군중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군중심리학에서도 피나 불은 군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¹⁸⁶⁾

이러한 맥락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킨의 사고체계가 화재를 암시하는 빨간색 이미지로 뒤덮이며, 단단해 보이던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의 요새인 킨의 도서관은 불길에 휩싸인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말은 킨이 군중의 내부에 있을 때처럼 순식간에 비이성적인 연상작용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¹⁸⁷⁾ 다시

185) Vgl. Canetti: Der 15. Juli. In: ders.: Die Fackel im Ohr, S. 234.

예거 Stefan Jäger 역시 1927년 빈 법원의 화재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카네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카네티에게 있어서 ‘불’이 “군중 상징 Massensymbol”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Stefan Jäger: Elias Canetti in Wien. Der Justizpalastbrand und das Feuer als Symbol der Masse. (<https://literaturkritik.de/id/19584>, 10.6.2020)

186) “증명되고 반복된 단어와 문구의 주술이 작용하면, 그것은 전류의 속도로 전염에 의해 전파되어 군중을 매혹한다. 단어는 피나 불의 정확한 이미지, 승리나 패배의 고양된 또는 비통한 기억, 증오나 사랑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스코비치: 군중의 시대, 239쪽.

말해 공고해 보이던 킨의 여성혐오적이고 이성중심주의적인 사고체계는 군중심리를 연상시키는 비이성적이고 카오스적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고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마침내 해소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현혹』의 결말이 암울하고 그로테스크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폐쇄적인 정신세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 해체된다는 의미에서 해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⁸⁷⁾ 불길에 휩싸인 킨이 평소와 달리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87) 이는 이미 그의 이름에서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Kien’은 주인공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목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Vgl. Canetti: Kant fängt Feuer. In: ders.: Die Fackel im Ohr, S. 344.

188) 이때 해방적인 성격이 킨의 성적 욕망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엘이나 리브란트는 킨의 성적인 욕망, 그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욕망이 억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Vgl. Foell: Blind Reflections, S. 24-30 u. S. 189-202. 특히 리브란트는 ‘도서관 화재’ 장면에서 억압되었던 킨의 욕망과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Vgl. Liebrand: Jahrhundertproblem im Jahrhundertroman, S. 48.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킨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억압된 무의식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체계에 대한 극단적 집착이다. 따라서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이 도서관 화재로 귀결될 때 나타나는 해방감은 킨의 여성 혹은 남성애에 대한 성적 욕망이 분출됨으로써 생기는 해방감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경직된 이성중심주의적 사고체계가 이완됨으로써 생기는 해방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킨이 리브란트가 주장한 것처럼 “동성애적 성향 Homoerotik”을 지닌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성적 성향 Asexualität”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는 헬두저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Helduser: Abstraktion und Re-Figuration, S. 90.

Ⅲ. 광기의 미학: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비판을 위한 서술 전략

1. 편집증적 광기 비판

1) 과장의 반복

수사기법으로서 ‘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일어권의 작가로 오스트리아의 작가 베른하르트 Thomas Bernhard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베른하르트는 2차대전 당시 오스트리아가 자행한 일을 과장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¹⁸⁹⁾ 또한 그는 독일 문학의 대문호인 괴테를 통속적 언어로 묘사하고 신랄하게 희화화함으로써 그가 지닌(혹은 괴테 수용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기도 한다.¹⁹⁰⁾ 이렇듯 베른하르트의 소설에서 과장은 서술기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른하르트보다 한 세대 앞선 오스트리아 작가인 카네티 역시 자신의 소설에서 과장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혹』의 주인공 킨은 이성적 질서와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학문과 관련된 것이나 자신이 혐오하는 외부세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과장된 평가를 내린다. 작가로서 카네티는 이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독서를 유도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현혹』에 나타난 이러한 과장기법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인 과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에 대한 킨의 예찬을 들 수 있다. 중국학 학자로서 킨은 중국 철학의 거장들을 칭송하면서 자신이 그들 덕분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189) 정향균: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로서의 베른하르트의 『소멸』,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2집(2004), 636쪽 참조.

190) Vgl. Wolfgang Müller-Funk: Negative Imagologie. Österreich-Konstruktionen in Thomas Bernhards Roman *Auslöschung*. In: Zeitschrift für Deutschsprachige Kultur & Literaturen 24(2015), S. 325.

예리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성현들 덕분이다.”¹⁹¹⁾ 또한 그는 자신의 학문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이상화한다. 킨은 중국의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 물론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킨의 주관적인 주장이다 - 중국을 “약속의 땅 aller gelobte[s] Land”으로 여기고, “중국 계시록 die Offenbarung China”을 집필할 것을 제안한다(BL 95). 이렇듯 중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하는 킨의 언어는 매우 확고한 주관적 신념을 지닌 편집증 환자의 언어를 연상시킨다.

킨은 중국과 관련된 것에는 최고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 밖에 학문적 질서나 이성중심주의의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이러한 자신의 편향된 주장을 절대화한다.

사내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어른들은 돈을 벌러 가거나 남는 시간에 연애 놀음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남는 시간은 혐오스러운 노동에 자신을 내맡긴다. [...] 중국인들의 천자(天子)는 더 근엄하고 위엄 있었다.¹⁹²⁾

킨에게 중국 황제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재이지만, 이와 달리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쳇바퀴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는 속인들이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킨이 “어른들”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집합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킨은 다른 장면에서도 쓸모없는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헛되이 쓰는 대중을 비판하는데, 이때에도 모든 이를 지칭하는 “사람들 die Menschen”(BL 35)이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는

191) (BL 345): “Seiner Erzählung eignet die Schärfe und Nüchternheit, die er den chinesischen Klassikern verdankt.”

192) (BL 11): “Knaben spielten Fußball, Erwachsene gingen ihrem Verdienst nach; ihre freie Zeit vertrieben sie sich mit Liebe. Um acht Stunden zu schlafen und acht Stunden nichts zu tun, ergaben sie sich die restliche Zeit einer verhaßten Arbeit. [...] Der Himmels-gott der Chinesen war strenger und würdiger.”

평범한 사람은 책의 가치를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지!”¹⁹³⁾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킨은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서 대중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비판한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여성에 대한 킨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킨은 “모든 여자 jede Frau”(BL 10)는 어머니 역할에 적합하다든지 “여자들이 무비판적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Frauen sollen unkritisch sein, das stimmt”(BL 130)라는 식으로 여성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성급하게 범주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테레제에게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 킨은 여성의 행위를 극단적으로 일반화하고 여성을 악녀와 동일시한다. “모든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다. [...] 모든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속인다.”¹⁹⁴⁾ 킨은 여성에 대한 과장된 일반화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정당화한다.

편집증 환자는 자신의 신념이 비록 주관적 망상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사고체계의 정당함과 논리적 완전무결함을 주장한다. 킨이 계속해서 과장의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편집증 환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카네티는 자신의 소설에서 킨의 과장된 균중 및 여성혐오적 진술을 통해서 이성중심주의에 집착하는 편집증 환자의 언어를 재현한다.

더 나아가 『현혹』에 나타난 과장기법을 카네티의 연극이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카네티는 연극의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창작 원칙으로 ‘소리 가면 akustische Maske’을 제시한다. ‘소리 가면’은 말의 속도와 리듬, 목소리의 높낮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 개 개인의 독특한 말투 등으로 규정되는 한 개인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모두가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극의 등장인물은 다른 인물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에 기초하여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⁵⁾ 카네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

193) (BL 23): “Das waren Menschen!”

194) (BL 160): “Jede Frau will ihren Mann ermorden. [...] Jede Frau betrügt ihren Mann.”

195) ‘소리 가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anetti: Über das

한 문학적 형상화 원칙이 『현혹』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한다.¹⁹⁶⁾ 예컨대 테레제는 반복적으로 ‘점잖은 사람 ein anständiger Mensch’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말을 꺼내기 전에 ‘죄송하지만 ich bitte’ Sie’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테레제의 ‘소리 가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킨은 어떠한 ‘소리 가면’을 지니고 있는가?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킨의 과장의 화법을 그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킨 역시 테레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킨은 수차례 자신을 ‘최고의 중국학 학자 der größte Sinologe’¹⁹⁷⁾로 지칭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혐오하는 여성은 시종일관 ‘문맹자 Analphabetin’나 ‘야만인 Barbar’으로 폄하한다. 이외에도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킨의 ‘소리 가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러한 킨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의 언어가 작가가 설정한 ‘소리 가면’을 토대로 형상화된다고 할 때, 이는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각 인물의 말하기 방식 또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복은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혹』에서 극단적인 이성중심주의자이자 여성혐오자인 킨은 일관되게 자신의 ‘소리 가면’에 입각하여 말한다. 즉, 킨의 극단적인 언어나 말하기 방식이 반복

heutige Theater. In: ders.: Aufsätze - Reden - Gespräche, S. 137-138.

카네티는 각 개인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에 천착하게 된 배경으로 크라우스 Karl Kraus의 낭독회, 네스트로이 Johann Nestroy의 토속적 언어, 빈 방언, 일본의 전통연극인 가부키를 들고 있다. Vgl. Canetti: Gespräch mit Manfred Durzak. In: ders.: a.a.O., S. 300-303.

196) Vgl. Durzak: Gespräche über den Roman, S. 97.

197) 이는 “당대 최초의 중국학 학자 de[r] erste[] Sinologe[] seiner Zeit”(BL 16), “이 시대 최고의 중국학 학자 der wohl größte Sinologe der Zeit”(BL 291), “현존하는 이 시대 최고의 중국학 학자 de[r] wohl größte[] lebende[] Sinologe[] der Zeit”(BL 333) 등과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과 내적 논리에 탐닉하는 편집증 환자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¹⁹⁸⁾

물론 등장인물인 킨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반복은 오히려 작가 카네티의 비판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카네티는 킨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킨의 과장기법을 다시 과장한다. 이는 킨이 극단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카네티는 ‘과장의 과장’을 통해서 이성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이 편집증 환자의 사고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자신의 비판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끝으로 카네티와 베른하르트에게 있어서 과장기법이 지닌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카네티와 베른하르트는 모두 과장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공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베른하르트의 과장기법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등장인물의 극단적인 진술을 상대화함으로써 진리의 시점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⁹⁹⁾ 이에 비해 카네티의 과장기법은 이성중심주의를 기초로 하는 남성중심주의가 편집증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폭로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카네티가 사용하고 있는 과장기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면 작가의 비판 대상과 비판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부재

카네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소리 가면’에 대한 사유를 이어나간다.

198) 크놀 역시 ‘소리 가면’과 광기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한다. Vgl. Knoll: «Das Individuum ist für Canetti stets Exponent des Irrsinnigen». Die Kritik des Individuums bei Elias Canetti.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25/1(1995), S. 147-149.

199) 정향균: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로서의 베른하르트의 『소멸』, 638-639쪽 참조.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은 고유한 말하기 방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므로 자신과 다른 말하기 방식을 지닌 또 다른 개인과 소통할 수 없다.

나는 크라우스 덕분에 각 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고유한 언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어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생각만큼 커다란 착각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말을 건넬 뿐이다.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²⁰⁰⁾

물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카네티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가 1920년대의 대도시에서 만난 자유분방한 사람들로부터 혼란스러운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와 같은 ‘소리 가면’과 의사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짧은 성찰이 『현혹』에 나타난 인물 간의 대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혹』에서 카네티는 각각의 인물들이 지닌 고유한 말하기 방식의 충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쉽게 다른 인물의 의도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 킨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것으로

200) Canetti: Karl Kraus, Schule des Widerstands. In: ders.: Das Gewissen der Worte, S. 48: “Dank ihm[Karl Kraus] begann ich zu fassen, daß der einzelne Mensch eine sprachliche Gestalt hat, durch die er sich von allen anderen abhebt. Ich begriff, daß Menschen zwar zueinander sprechen, aber sich nicht verstehen; daß ihre Worte Stöße sind, die an den Worten der anderen abprallen; daß es keine größere Illusion gibt als die Meinung, Sprache sei ein Mittel der Kommunikation zwischen Menschen. Man spricht zum andern, aber so, daß er einen nicht versteht. Man spricht weiter, und er versteht noch weniger.”

묘사된다.

이처럼 카네티의 성찰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허구적인 차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의사소통의 부재는 소설 미학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카네티가 킨을 둘러싼 의사소통 상황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광기의 미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a. 자기중심주의적 대화: 킨과 테레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킨과 테레제의 의사소통 양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킨과 테레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킨은 학문과 연구, 도서관과 책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이것들 외에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없다. 그는 자신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논문을 쓸 수 있다면 다른 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테레제는 항상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돈이 많은 남성이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킨이 자신의 성적 욕구나 돈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가구점 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룹이나 성적으로 자신을 범하는 경비원 파프를 자신의 애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극히 상반된 생각을 품고 있는 킨과 테레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유언장을 둘러싼 킨과 테레제의 대화 장면을 들 수 있다. 테레제는 킨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기절한 일을 계기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가 미리 유언장을 써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킨의 유산으로 자신의 새로운 애인인 그룹의 사업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그와 결혼하려는 테레제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비해 킨은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테레제가 유산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테레제보다 일찍 죽음으로써 그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킨은 테레제를 탐욕적이고 몰개성적인 인물로 간주하고, 유언장 작성을 거부한다.

계속해서 킨의 거절에 부딪힌 테레제는 “여자도 사람이라고요. 죄송한데요, 여자도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요!”²⁰¹⁾라고 말하며 감정에 호소한다. 그런데 킨은 엉뚱하게도 이것을 테레제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왔다는 증거로 간주한다. 그리고 테레제가 유언장을 쓰려는 것은 그녀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녀의 재산을 자신에게 남겨주기 위함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이 유언장을 쓰겠다고 말하자 테레제는 그가 게오르크에게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의심하면서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유언장에 기입할 것을 종용한다. 테레제는 킨의 막대한 돈만 있으면 자신이 그룹을 위한 일등 신붓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다. 또 테레제는 킨이 적은 금액에 임의로 숫자 ‘0’을 추가하고, 유산상속자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하기도 한다.

테레제는 자신의 상상에서 멋진 군악대 단장을 등장시키고 이를 킨에게 말하는데, 킨은 그 군악대 단장이 테레제의 친척이며 그가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테레제가 친척에게 받은 돈을 자신에게 고스란히 양도하려 한다고 추측한다. 킨은 테레제의 돈으로 도시에 있는 다른 도서관을 인수하거나 옆집을 사들여 자신의 도서관을 확장할 궁리를 한다. 그리고 그는 테레제의 돈이 그의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분히 위로해 줄 것이라고 여긴다. 킨은 테레제에게 도서관 증축을 위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언장에 적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테레제가 도서관 증축을 위한 돈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두 인물의 대화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 킨과 테레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킨은 테레제의 유산으로 자신의 도서관을 확장하고자 한다. 테레제는 킨의 유산을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자 한다. 이때 각 인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서술자는 체험화법이나 접속법 1식 또

201) (BL 126): “Die Frau ist auch ein Mensch. Bitte, die Frau hat ein Herz!”

는 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1인칭 현재시제의 문장(내적 독백)을 통해서 각 인물의 내밀한 생각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한다.²⁰²⁾

이렇듯 킨과 테레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만 몰두한다. 그 결과 두 인물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얽히고설킨 오해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자기중심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의사소통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b. 신뢰와 전략적 행위의 충돌: 킨과 피셜레

킨과 피셜레는 일종의 동업 관계를 형성한다. 겉보기에 이들은 합심하여 테레시아눔으로 유입되는 책들을 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킨은 피셜레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왜냐하면 피셜레는 일전에 그가 빼앗길 뻔한 돈을 되찾아주었으며, 평소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킨은 피셜레가 자신의 책 구원사업을 돕겠다고 하자 그가 교양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 킨은 피셜레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자 자신이 테레제를 감금해 놓았음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에 비해 킨을 대하는 피셜레의 태도는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의 의미에서 ‘전략적 strategisch’이다. 하버마스는 발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발화행위를 하는 경우를 ‘언어적으로 매개된 전략적 행위 sprachlich vermitteltes strategisches Handeln’ 혹은 ‘은폐된 전략적 행위 latentes strategisches Handeln’라고 지칭하는데²⁰³⁾, 피셜레의 대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202) ‘체험화법’과 ‘내적 독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Dietrich Weber: Erzählliteratur. Göttingen 1998, S. 27 u. S. 44.

203) Vgl.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Frankfurt a.M. 1995, S. 393 u. S. 395-396.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문학작품으로 사실주의 작가 폰

수 있다. 그는 킨에게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셀레는 테레지아눔의 경찰들이 순찰을 돌거나 범 죄자를 체포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므로 이 시간을 피해서 책들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킨에게 충고한다. 이 말을 들은 킨은 피셀레가 자신에게는 부족한 “삶에 대한 실천적 지식”²⁰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피셀레가 킨에게 이러한 충고의 말을 건넨 것은 손쉽게 그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피셀레는 킨에게 일러준 시간에 자신의 직원들을 보내 싸구려 책을 팔고 그의 돈을 손에 넣는 방식으로 킨을 기만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셀레의 발화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충고)와 숨겨진 의도(사기를 치려는 의도)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숨겨진 의도를 실현시키려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한 대화는 합의 도출을 위한 ‘의사소통 행위 kommunikatives Handeln’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⁰⁵⁾ 따라서 의사소통에 대한 피셀레의 태도가 ‘은폐된 전략적 행위’에 속한다면, 킨과 피셀레의 의사소통은 하버마스의 말처럼 결코 ‘의사소통 행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을 대변하는 킨이 맹목적으로 책의 구원에 집착한다는 사실과 피셀레가 킨에게 갈취한 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체스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뿐이다.

타네 Theodor Fontane의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인스테인은 중국인 귀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에피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아내의 두려움을 이용해 그녀가 외도하지 못하게 하는 인스테인의 ‘전략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정향균은 이러한 인스테인의 발화행위가 하버마스의 ‘은폐된 전략적 행위’ 개념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정향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본 폰타네의 『에피 브리스트』.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17집(2002), 11쪽 참조.

204) (BL 278): “Kenntnis des praktischen Lebens”

205) Vgl.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 396-397.

c. 일방적 의사소통: 책과의 대화 혹은 킨의 독백

킨은 무지한 사람들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 irgendwelche gleichgültigen Gespräche”(BL 43)를 나누는 대신에 자신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훨씬 수준 높은 “자기만의 대화 eigene[] Dialoge”(BL 44)를 나눈다.

킨은 선별된 친구들과 도서관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는 고대 중국인들에게 가장 끌렸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속한 책과 책장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자기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킨은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거나 환영 인사를 했다. 때에 따라 그는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킨은 그들이 했던 말을 그들 입으로 되풀이하게 하거나, 그들이 침묵할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 [...] 그는 중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쭐하기도 했다.²⁰⁶⁾

킨이 중국학 분야의 전문가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가 자신의 전공 서적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킨이 외부세계의 인물들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책과의 대화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보다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킨이 중국 철학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았다는 서술에서 암시되듯이 킨과 책의 대화는 쌍방향적이지 못하다. 특히 위 인용문에서는 킨의 행위만 묘사될 뿐, 중국 철학자들의 입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6) (BL 43f): “er[Kien] belebte die Bibliothek mit erlesenen Freunden. Am liebsten neigte er zu alten Chinesen. Er hieß sie dem Band und der Wand, welcher sie zugehörten, entsteigen, winkte sie heran, bot ihnen Platz, begrüßte, bedrohte sie, je nachdem, legte ihnen ihre eigenen Worte in den Mund und focht seine Meinung so lange durch, bis sie schwiegen. [...] Er übte sich im mündlichen Gebrauch des Chinesischen und richtete sich an klugen Wendungen hoch.”

킨과 공자 사이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나타난다. 킨은 테레제가 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고 ‘여성은 모두 교양이 없다’는 자신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이러한 극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자와 “자신만의 대화”를 나눈다. 그는 공자가 『논어』에 나온 구절들을 읊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한다. 예컨대 공자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²⁰⁷⁾ 킨은 이 말에 비추어 테레제가 한 행동을 돌이켜보고 이를 통해 테레제의 성품을 가늠해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킨은 이때에도 일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즉 그는 공자의 맥락에서 테레제의 행동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이성중심주의적 잣대에 따라 도서관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테레제를 “성녀 [die] Heilige”(BL 45)로 지칭하고, 공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결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킨의 일방적 태도는 이미 대화의 시작 부분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공자는 언제나처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갖추지만, 지나치게 흥분한 “킨은 경의를 표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흥분한 그의 모습은 상대 중국인의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²⁰⁸⁾ 이러한 맥락에서 킨에게 중요한 것은 공자의 말을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자 철학을 자신의 사고체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킨은 겉보기에는 공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는 독백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다.²⁰⁹⁾

207) “그 사람의 하는 꼴을 보며, 그 사람의 따르는 바를 보며, 그 사람의 즐거워하는 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視其所以，觀其所由，察其所安，人焉[廋]哉，人焉[廋]哉.” 『논어』의 원문과 번역은 모두 카네티: 현혹, 54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208) (BL 45): “Er[Kien] vergaß alle schuldige Ehrerbietung. Seine Aufgeregtheit stach von der Haltung des Chinesen merkwürdig ab.”

209) 이러한 해석은 ‘군사 소집령’ 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킨은 책들을 상대로 열광적인 연설을 이어나가지만, 이때 반대로 책들의 의견이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킨은 부처나 쇼펜하우어, 헤겔, 피히테,

따라서 킨이 책에서 나온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킨과 책 사이의 소통방식은 오히려 일방적 의사소통 혹은 독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킨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하고 좌절된다.²¹⁰⁾ 킨의 대화 방식은 언어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집증 환자의 사고체계를 암시한다. 킨은 상대방(테레제)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하거나(a), 자신을 기만하는 상대방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b), 대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대방과 무관하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말한다(c). 이는 모두 자신의 사고체계에 경도된 주인공 킨의 주관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관주의적 신념에 간혀 있는 편집증 환자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다. 카네티는 바로 이점을 강조함으로써 킨이 편집증 환자임을 보이고, 이성·남성중심주의적인 사고체계의 주관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주관성의 문제는 서술 시점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혹』은 서술자가 철저하게 인물의 시점에서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물 시각적 서술, 주네트 Gérard Genette의 용어로는 ‘내적 초점화 interne Fokalisierung’된 서술기법을 사용한다.²¹¹⁾ 이때

칸트, 니체, 프랑스 및 영국인 철학자들이 각기 자신의 철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로감을 느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테레제와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기 때문이다.

210) 이러한 맥락에서 『현혹』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 개인들의 공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기록이다. Der Roman ist [...] eine akustische und visuelle Dokumentation der geradezu ungeheuerlichen Schwierigkeiten des Zusammenlebens von einzelnen.” Dagmar Barnouw: Elias Canetti zur Einführung. Hamburg 1996, S. 152.

그러나 카네티가 궁극적으로 인물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암울한 세계를 형상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 이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1) 주네트의 ‘내적 초점화’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Gérard Genette: Die Erzählung. Aus dem Französischen von Andreas Knop. München

서술자는 일관되게 한 인물의 시점(예컨대 킨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점을 넘나들면서 주어진 상황을 묘사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서술 심급을 피하고 있는 카네티는 주로 개별 인물들의 다양한 시점이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현혹』의 세계를 만든다. 여기에서 독자는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복수(複數)의 왜곡된 현실들을 마주하는 것이다.”²¹²⁾ 다시 말해 서술자는 여러 인물의 왜곡된 주관적 견해를 수정하거나 종합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²¹³⁾

1998, S. 134-135.

어떤 소설이 ‘내적 초점화’된 서술인지 여부는 서술자의 말에 나타난 ‘그 er’와 같은 3인칭 주어를 1인칭 주어인 ‘나 ich’로 바꿔봄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Vgl. Genette: *Die Erzählung*, S. 137). 『현혹』에서 서술자가 킨을 서술하는 문장에서 주어를 ‘나’로 바꾸면 이는 곧 킨이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을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1인칭 서사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혹』은 철저하게 내적 초점화된 서술이다.

212) Knoll: *Das System Canetti*, S. 29: “Canetti, der eine objektive Erzählinstanz weitgehend vermeidet, fügt die Welt der “Blendung” hauptsächlich aus den verschiedenen Perspektiven der einzelnen Figuren zusammen. Nicht *eine* Wirklichkeit tritt dem Leser hier entgegen, sondern viele einzelne, subjektiv verzerrte Wirklichkeiten.”

213) 일찍이 디싱어 Dieter Dissinger 역시 『현혹』에 나타난 서술자의 성격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는 서술자의 말에 인물의 말이 “현존하고 anwesend” 있으므로 서술자의 말이 인물의 말에 의해 중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술자의 말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 ein sprechendes Mitwirken der Charaktere”을 지적한다. 그러나 디싱어는 더 나아가 『현혹』의 서술자를 “반어적 성향을 띤 서술자 [der] zur Ironie neigende[] Erzähler”로 규정하는데(Dieter Dissinger: *Vereinzelung und Massenwah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Bonn 1971, S. 28-30),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혹』의 서술자는 반어적으로 사건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뒤로 물러나 각 인물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나hue는 『현혹』의 서술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물 귀속적 서술 ascriptive narration”(Donahue: “Eigentlich bist du eine Frau. Du bestehst aus Sensationen”. *Misogyny as Cultural Critique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그러나 『현혹』이 조각조각 이어 붙여져 있는 여러 인물의 주관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질서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 자신도 자신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책”²¹⁴⁾을 쓰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와 정반대로 가장 엄격한 논리에 따라 이 세상을 구성하기 마련인 극단적인 개인들을 고안해내야 했다. 그리고 극단으로 몰아넣은 개인들을 서로 분리하여 나란히 세워 놓아야 했다.²¹⁵⁾

이는 인물차원을 넘어서 작품의 미학적 구조를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혹』에서 각각의 인물에 ‘내적 초점화’된 서술은 오히려 서로 엄격하게 구분된 채 병렬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킨과 테레제의 의사소통 상황(a)에서 서술자는 한 번은 킨의 시점에서, 한 번은 테레제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며 계속해서 서술 시점을 바꾼다. 따라서

p. 671)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철저히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나휘는 “인물 귀속적 서술”과 광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서술 시점의 문제를 『현혹』에 나타난 광기의 미학과 연결시켜 다루고자 한다.

214) Canetti: Das erste Buch: Die Blendung, S. 243: “ein chaotisches Buch [...], in dem nichts mehr zu verstehen war”

215) Ebd.: “im Gegenteil, man mußte mit strengster Konsequenz extreme Individuen erfinden, so wie die, aus denen die Welt ja auch bestand, und diese auf die Spitze getriebenen Individuen in ihrer Geschiedenheit nebeneinanderstellen.”

물론 이는 카네티가 『현혹』을 포함한 여덟 권의 ‘인간희극’을 구상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을 쓴 것이다. 그러나 몰 Björn Moll이 카네티의 글쓰기 방식에 근거하여 지적한 것처럼, 일곱 권의 ‘인간희극’의 내용과 일곱 명의 정신병 환자의 성격은 『현혹』에 뒤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Vgl. Björn Moll: “Schreibschweigsamkeit” und “Schreibdiarrhöe”. Vom Wert des Ungeschriebenen in Elias Canettis *Augenspiel*. In: Weimarer Beiträge.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Ästhetik und Kulturwissenschaften 65. H.4(2019), S. 549-550.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카네티의 언급은 『현혹』의 문학적 형상화 원칙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독자는 각 인물의 주관적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차원에서의 혼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킨과 피셜레의 의사소통 상황(b)에서는 피셜레를 맹신하는 킨의 내면과 그러한 킨을 속이려는 피셜레의 내면이 서술자의 초점화된 서술에 의해 각각 드러남으로써 두 인물의 의사소통 실패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다른 한편으로 킨과 책의 대화 장면(c)은 전적으로 킨의 시점에서 서술됨으로써 그것이 킨의 일방적인 독백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네티는 의사소통이 부재하는 상황을 통해서 킨의 편집증적 태도를 강조한다. 또한 그는 여러 인물의 주관적 현실을 “엄격한 논리에 따라” 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킨의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는 카네티의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편집증적 광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2. 정신분열증적 광기와 미학적 글쓰기

1) 무의미한 언어의 반복을 통한 귀향 서사구조의 해체

『현혹』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부는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킨과 테레제의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으며, 2부는 테레지아눔에서 펼쳐지는 킨과 피셜레의 일화를 다룬다. 3부는 킨이 파프의 초소를 거쳐 다시 자신의 도서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즉, 공간적으로 이 소설은 자신의 “고향 Heimat”(BL 57)에서 추방된 주인공이 외부세계에서의 방랑을 마치고 ‘귀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가 많은 오디세우스 Listenreicher Odysseus’ 장에서 킨은 게오르크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신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이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되찾는다. 이는 훼손된 정체성의 회복으로 귀결되는 전통적

인 귀향 서사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킨은 귀향 서사의 주인공과 달리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시련을 겪는다. 그는 소설의 마지막 장인 ‘빨간색 수도꼭지’ 장에서 여전히 극심한 정신착란에 시달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이성중심주의적인 남성성을 비판하려는 카네티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는 귀향 서사에서처럼 고향에 도착한 주인공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적 착란 상태에 빠뜨린다.

이상의 논의는 소설 형식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카네티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귀향의 서사구조를 적극적으로 패러디하고 해체하려 한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무의미한 언어²¹⁶⁾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귀향 서사의 ‘순환구조’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하는 무의미한 말의 ‘반복구조’로 전환된다. 아래에서는 먼저 킨의 무의미한 언어가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작가의 미학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한다.

테레제가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들은 킨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유언장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광기에 휩싸인 테레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먹어 치웠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앞에 있는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살점을 뜯어내고 그것으로 근근이 먹고살았다. 그녀는 마치 하이에나 같았다. 그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그것을 먹었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녀는 죽어서 해골이 되었다. 뺏뺏한 치마는 앙상한 뼈 위에 놓였다. 치마는 꼭 폭풍을 맞은 것 같았다.²¹⁷⁾

216) 물론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가 독자에게도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주인공의 무의미한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내면을 재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주인공의 언어가 현실을 지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폐쇄적이고 비현실적인 내면의 허구적 세계를 지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17) (BL 286): “Sie[Therese], von ihrer Gier nach einem Testament in den Wahnsinn getrieben, fraß sich selbst Stück für Stück auf. Bis zu ihrem letzten

테레제의 죽음에 대한 킨의 묘사는 온전히 그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적인 언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테레제가 유언장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 킨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가 임의로 떠올린 초현실적인 환상에 가깝다.²¹⁸⁾ 이때 눈에 띄는 것은 킨이 테레제가 자신의 살을 뜯어먹었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점이다. 이는 킨의 설명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언어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무의미한 언어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뿐만 아니라 킨은 자신의 망상에서 테레제의 죽음 장면을 총 세 번 반복하는데, 이때 킨의 언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나 구도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단어나 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녀는 지나치게 삶에 집착했다. 그녀의 탐욕은 한이 없었다. [...]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녀는 고독하게 남겨진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자초한 것이었다. 이때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한 점 한 점, 조금씩 떼어먹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했다.²¹⁹⁾

Augenblick sah sie das Testament vor sich. In Fetzen riß sie das Fleisch von ihrem Leib herunter, diese Hyäne, sie lebte von ihrem Leib in den Mund, sie aß das blutige Fleisch, bevor es gar war, wie hätte sie es zubereiten sollen, dann starb sie als Skelett, der Rock lag steif um die leeren Knochen, er sah aus, als hätte ihn ein Sturm gebläht.”

218) 슈미트 Hugo Schmidt는 테레제에 대한 킨의 상상이 현실의 영역에서 기괴한 초현실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Cf. Hugo Schmidt: Narrative Attitudes in Canetti's *Die Blendung*.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p. 101.

219) (BL 291-292): “Sie hing zu sehr am Leben. Ihre Gier kannte keine Grenzen. [...] In ihrer schwachen Stunde fand sie sich, wie sie es verdiente, einsam und verlassen. Da griff sie zum letzten Mittel, das ihr blieb: sie fraß ihren eigenen Leib, Fetzen für Fetzen, Streifen für Streifen, Stück für Stück, und erhielt sich unter unbeschreiblichen Schmerzen am Leben.”

앞선 인용문과 비교하자면 위 인용문에서는 “탐욕 Gier”이나 그녀가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Fetzen für Fetzen” 찢고 “조금씩 Stück für Stück” “먹어치웠다 (auf)fraß”와 같은 표현이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된다. 킨은 테레시아눔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테레제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이때에도 앞서 등장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녀는 자신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조금씩 그녀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²²⁰⁾ 이러한 반복은 현실에 대한 지시기능을 상실한 채 자기 내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무의미한 말의 반복을 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킨의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구적 세계에 머문다. 그는 테레제가 죽은 뒤에 벌어진 일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재구성한다. 예컨대 그는 테레제의 시체가 발견된 경위나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현한다. 또한 그는 장례행렬과 테레제가 묻히게 될 곳이 정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그가 만들어낸 비현실적 세계에서 공허하게 반복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를 암시할 뿐이다.

킨은 계속해서 비논리적인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변론 장면에서 킨은 자신이 테레제를 도서관에 감금한 것이므로 그녀의 아사(餓死)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정신병자 같은 여성의 죽음은 지당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죄방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구를 방해한 테레제를 고발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 다짐한다. 더 나아가 킨은 살아 있는 테레제를 눈앞에 두고도 그녀의 죽음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은 테레제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잘못된 전제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듯 킨이 근거

220) (BL 346): “Sie fraß sich auf. Stück für Stück von ihrem Körper fiel der Gier anheim.”

없는 주장 혹은 자신의 망상에 근거한 비현실적인 주장을 반복할 때, 이는 킨이 이성중심주의라는 확고한 고향의 대지를 밟고 서 있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그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그러한 대지를 상실한 채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는 무의미한 말만을 반복한다는 인상을 유발한다.

다른 한편으로 킨은 파프의 초소에서도 반복해서 정신병 환자의 헛소리를 연상시키는 말을 내뱉는다. 그는 바지와 성격의 상관관계, 치마와 혐오스러운 여성의 관계, 파란색의 부재, 치마 없는 세계의 단조로움, 여성철페에 관한 법령, 여성의 간계, 연구 대상으로서의 파프, 물리학과 색채론 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킨의 주장은 자의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거나 아예 근거가 없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각에 시달리는 킨은 계속해서 파란색 그림자나 광선이 출현하여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²²¹⁾ 물론 여기서는 아직까지 통사론적인 구조를 갖춘 문장들이 나타나지만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사론적 구조마저 무너지며, 의미 연관성이 상실된 단어들만이 반복된다.

이처럼 킨이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의미한 말을 반복할 때 귀향 서사의 순환구조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하는 무의미한 말의 반복구조로 전도된다. 이로써 이 소설의 결말은 귀향 서사에서 흔히 기대되는 주인공에 대한 회복 및 구원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인 게오르크가 마치 ‘데우스 엑스 마키나 deus ex machina’ 처럼 등장함으로써 독자가 자연스럽게 정신분열증적 광기의 치유를 기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로써 킨이 내뱉는 무의미한 말의 반복구조가 다시 귀향 서사의 구조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게오르크가 등장하는 장면이 대부분 게오르크의 시점에서 서술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게오르크는 빈으로 향

221) 하젤베르크 Peter von Haselberg는 『현혹』에서 끊임없이 사건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Vgl. Peter von Haselberg: Ein Roman-Experiment. In: Werner Hofmann(Hrsg.): Hüter der Verwandlung. Beiträge zum Werk von Elias Canetti. München 1985, S. 285(urspr. In: Frankfurter Zeitung, 12.4.1936. Literaturblatt, S. 18).

하는 기차에서 킨이 왜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지 그 원인을 추측해 보는데, 이는 초점화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된다. 또 킨과 게오르크의 대화 장면에서는 유독 ‘~라고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dachte Georg’(혹은 ‘~라고 게오르크는 생각한다 …denkt Georg’)의 구조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두 형제의 대화 장면이 전적으로 게오르크의 시선에서 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 비해 마지막 장인 ‘빨간색 수도꼭지’는 다시 도서관에 홀로 남겨진 킨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따라서 킨이 게오르크와의 대화 장면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의 내적 현실²²²⁾이 무의미한 사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며, 게오르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킨의 극도로 이성적인 모습만을 관찰하고 부추긴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서술 시점이 다시 킨의 시점으로 바뀌면서 독자는 그의 내면이 여전히 정신분열증적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²³⁾

222)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신이 외부의 감각적 자극을 왜곡하여 인식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 나름대로 자신을 억압하는 미지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외적으로 경험되는 현실과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내적 현실은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세세이에 Marguerite Sechehaye가 기록한 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험담에 잘 나타나 있다. 마르기리트 세세이에(은홍배/ 정애자 옮김): 정신분열증 소녀의 수기. 하나의학사 1994, 13-125쪽 참조.

223) 이처럼 이 소설의 언어 및 서사구조에서도 정신과 의사인 게오르크가 킨의 광기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게오르크는 한편으로 킨의 이성적 사고체계의 회복을 돕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피가 많은 오디세우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킨의 내면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외면만을 바라보았던 관찰자이자 - 앞선 장에서 사용한 용어를 반복하자면 - ‘거짓 메시아’이다.

한편, ‘피가 많은 오디세우스’라는 제목이 반어적으로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카네티는 『현혹』에서 수차례 반어적인 제목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자신의 아내와 딸을 폭행하는 파프를 다루고 있는 장의 제목은 ‘좋은 아버지 Der gute Vater’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 킨의 집 주소는 ‘에어리히 가(街) Ehrlichstraße’, 즉 ‘정직한 거리’ 24번지이다.

따라서 ‘찌가 많은 오디세우스’ 장은 『현혹』이 귀향 서사구조를 도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서사적 속임수이며, 오히려 이 소설의 결말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내뱉는 무의미한 말의 반복구조의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전통적인 귀향 서사에서 귀향은 기존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주인공의 훼손된 정체성을 복원시키고 그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혹』의 귀향은 일관되게 정신분열증 환자의 착란상태와 헛소리가 반복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이 소설의 순환적인 귀향 서사구조는 더 이상 회복과 구원으로서의 순환구조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분열증 환자가 하는 무의미한 말의 반복구조로 전환되고 해체된다. 킨은 독자에게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는 무의미한 말만을 반복하며,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신분열 증세를 드러낸다. 카네티는 이러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미학적 글쓰기로 전환시킨다.

2) 비밀상적 언어구조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킨은 다양한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킨의 망상이나 자폐적 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킨은 테레제를 시체로 간주하거나, 폐쇄적이고 비이성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런데 카네티는 더 나아가 이러한 킨의 정신분열증적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상적인 언어와 구분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킨의 내면을 구성하는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종종 일상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신어조작증이라고 한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자의적인 신조어는 환자 본인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일 것이다.²²⁴⁾ 킨은 테레제의 장광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를 막는 연습을 하면서 “귀꺼풀 Ohrlider”(BL 115)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또

224)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40쪽 참조.

그는 테레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을 “유언장이라는 흉측한 꺼풀 die häßlichen Testamentsschuppen”(BL 127)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신어조작증 증세를 연상시킨다.

킨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가장 심해지는 ‘빨간색 수도꼭지’ 장에서는 의성어와 감탄사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예컨대 여기에서는 “찰싹! 찰싹! Schlag! Schlag!”(BL 508)이나 “꽁. 꽁. 꽁. Krach. Krach. Krach.”(BL 509), “이영차 - 꽁! Ho - ruck - krach!”(BL 510)과 같은 의성어가 사용된다. 또한 “아아 Aber ach”(BL 506), “조심! Vorsicht!”(BL 507), “아야! Au!”, “사람 살려! Zu Hilfe!”(BL 508) 등과 같은 감탄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역동적인 내면과 관련이 있다. 의성어나 감탄사는 킨이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극단적인 감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고에서는 자의적인 연상작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가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논리적 연결 없이 뛰어넘는 현상”을 “연상의 이완”이라고 한다.²²⁵⁾ 이 소설에 나타난 킨의 언어를 살펴보면 다양한 수준에서 자의적 연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빨간색 수도꼭지’ 장에서 킨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테레제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했을지 추측해 본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방 하나를 식량창고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이러한 생각은 돌연 엉뚱한 생각으로 번져나간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쥐들이지! 쥐가 없었던 집들에서 갑자기 쥐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쥐들은 그저 거기에 있다. 축복받은 착한 쥐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그들은 굶주린 여자들을 위해서 신문지 더미를 남긴다. 저기 아직도 그 신문지가 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신문지는 맛이 없었던 게다. 쥐들은 섬유소를 싫어한다. 그들은 어두운 곳을 파헤치고 다니기는 하지만 흰개미와는 다르다. 흰개미들은 나무와 책들을 갉아 먹는다. 흰개미 집단에서의 사랑의 난동. **도서관에서의 화재.**²²⁶⁾

225)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40쪽.

앞의 인용문에서 킨은 전혀 논리적인 연결이 성립되지 않은 문맥을 도입하며 연상의 이완을 보여준다. 물론 킨은 자신의 맥락 안에서는 여전히 논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맥락의 비약을 넘어선 문장과 단어 차원에서의 연상의 이완은 그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방화하는 장면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여기에서 킨의 내면의 언어는 통사론적인 차원에서까지 완전히 와해되고 해체된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살인자, **살해와 화재**, 모든 신문에 실림,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평생 - 죽을 때까지 - 죽음의 무도 - 황금송아지 - 막대한 유산 - 용감한 자가 얻는 법 - 운다 - 이별 - 아니 - 하나됨 - 죽음 **불에 타 죽음**으로써 하나가 됨 - 위기 **화재의 위기** - 화재 **격렬한 화재** - 불(火) 불 불.²²⁷⁾

킨은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며, 언어적인 맥락이나 의미를 제대로 조합하거나 구성하지도 못한다. 또한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킨은 자신이 테레제를 살해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망상은 죽음 및 불의 이미지와 뒤섞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킨의 언어는 파편적인 이미지처럼 사용된다. 카네티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226) (BL 504): “Wer? Wer? Ratten! Ratten tauchen plötzlich auf, in Häusern, die nie welche hatten, man weiß nicht, woher sie kommen, aber sie sind da, sie fressen alles zusammen, gute gesegnete Ratten und lassen für hungrige Weiber einen Haufen Zeitungen zurück, da liegen sie noch, sonst nichts. Zeitungen schmecken ihnen nicht. Ratten hassen Zellulose. Im Dunkeln wühlen sie wohl, aber Termiten sind sie nicht. Termiten fressen Holz und Bücher. Liebesaufruhr im Termitenstock. BRAND IN DER BIBLIOTHEK.”

227) (BL 509): “ein Mörder seiner Frau, MORD UND BRAND, über allen Zeitungen, zu lebenslänglichem Zuchthaus verurteilt - lebenslänglich - todeslänglich - Totentanz - Goldkalb - Millionenerbschaft - wer wagt gewinnt - weint - Abschied - nein - vereint - vereint bis in den Tod FEUERTOD - Not FEUERSNOT - Brunst FEUERSBRUNST - FEUER FEUER FEUER.”

시각적인 형상화(“BRAND IN DER BIBLIOTHEK”, “MORD UND BRAND”, “FEUERTOD” 등)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는 이성적 주체인 킨이 언어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논리정연한 사고를 이어나가지 못하며, 정신분열증의 맥락에서 혼란스럽고 충동적인 내면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 묘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카네티 특유의 언어유희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킨이 테레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직후에 일시적으로 그녀가 눈앞에 나타난 듯한 인상을 받는 장면이다.

킨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탈출했다. 파란색 치마가 빛난다. 정신병자인 그녀는 치마를 파랗게 물들이고, 뺏뺏하게 하고(강해졌고, 인용자 주), 파랗게 물들이고, 뺏뺏하게 하기를 반복했다. 킨은 사정없이 구타당했고, 약해졌다. 그녀는 킨을 찾는다. 그녀에게는 그가 필요하다. 그녀는 치마를 되살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를 곧바로 잡아 가둬야 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 그녀는 도서관은 내버려 두고 나왔다. 경찰, 경찰, 왜 경찰이 없는 거지, 이런, 경찰은 10시 40분이나 돼야 온다. [...] 파란색 치마, 끄적하다, 끄적하다, 그녀는 왜 죽지 않지, 그녀는 왜 죽지 않지, 그녀는 죽어야 한다, 이 순간, 유리문에서, 그녀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녀가 그를 때리기 전에,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²²⁸⁾

228) (BL 280): “Kien verfärbte sich. Er sah sie kommen. Sie ist ausgebrochen. Der blaue Rock glänzt. Die Irrsinnige, sie hat ihn gebläut und gestärkt, gebläut und gestärkt. Kien ist zerbläut und geschwächt. Sie sucht ihn, sie braucht ihn, sie braucht neue Kräfte für ihren Rock. Wo ist die Polizei? Man muß sie einsperren, sofort, sie ist gemeingefährlich, sie hat die Bibliothek allein gelassen, Polizei, Polizei, warum ist keine Polizei da, ach, die Polizei kommt erst um um 10.40 [...] der blaue Rock, entsetzlich, entsetzlich, warum stirbt sie nicht, warum stirbt sie nicht, sie soll doch sterben, diesen Augenblick, in der Glastür, bevor sie ihn erreicht, bevor sie ihn schlägt, bevor sie den Mund auftut [...].”

또한 다음의 인용문은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극심한 착란 상태에 빠진 킨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다.

경찰이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들긴다. “문을 여시오!” “절대로 안 열어!” “법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소리.” “문 열라니까!” “꺼져!” “당장!” “사라지라고!” “그러다 총에 맞을 거요!” “웃기시네.” “당신을 산채로 태워버리겠소!” “벼룩이나 태워라.”²²⁹⁾

첫 번째 인용문에서 킨은 정신병 환자의 언어에서 자주 관찰되는 ‘언어 반복증 Verbigeration’의 증상을 보인다(“파랗게 물들이고, 뺏뺏하게 하고, 파랗게 물들이고, 뺏뺏하기를 [...]”, “경찰, 경찰”, “끔찍하다” 및 “그녀는 왜 죽지 않지”의 반복, “~하기 전에” 구조의 반복 등).²³⁰⁾ 또한 번역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두 인용문에서 모두 각운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gebläut und gestärkt”와 “zerbläut und geschwächt”가 짝을 이룬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Sie”와 “Nie”, “Gesetzes”와 “Schwätzes”, “auf”와 “Lauf”, “Sofort”와 “Fort”, “erschossen”과 “Possen”, “aus”와 “Laus”가 각각 각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유희의 사용은 한편으로 텍스트에 리듬감과 속도감을 부여함으로써 문장의 빠르기를 앞당긴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두 장면은 모두 (킨의 입장에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은 죽은 줄 알았던 테레제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상황이며, 두 번째 장면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이 턱밑까지 추격해온 상황이다(물론 이는 모두 킨의 내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카네티는 언어유희를 통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보일 법한 내밀한 심리적 반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29) (BL 509): “Draußen pocht laut Polizei. “Öffnen Sie!” “Nie!” “Im Namen des Gesetzes!” “Schwätzes.” “Machen Sie auf!” “Lauf!” “Sofort!” “Fort!” “Sie werden erschossen!” “Possen.” “Wir räuchern Sie aus!” “Laus.””

230) Vgl. Bachmann: Wahn und Wirklichkeit, S. 258.

다른 한편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에 각운과 같은 언어유희를 도입한 것은 킨의 무의식적인 언어작업이라기보다는 작가 카네티의 미학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카네티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말을 차용하되 그것을 작가의 의도가 담긴 미학적 언어로 재구성한다. 카네티는 이 소설에 나타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가 작가가 고안한 인위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정신분열증 환자의 주관적 환상이 현실과 무관한 허구적 세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카네티의 서술방식은 광기의 허구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과 정신분열증적 광기 모두를 비판하는 미학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카네티는 군중의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권력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상가이자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현혹』에서도 권력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때 권력 현상은 젠더 권력의 맥락에서 철저하게 분석되고 파헤쳐진다.

『현혹』의 주인공 킨은 학문과 질서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다. 그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활동에만 몰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여성을 경시하고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이다. 모든 것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자부하는 이성적 남성 주체로서 킨은 여성을 섹슈얼리티와 비합리성에 종속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현혹』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이성중심주의는 한편으로 편집증적인 사고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킨은 책에 있는 개념을 통해서 외부현실을 인식하는데, 이는 확실함에 집착하는 편집증 환자의 현실 인식 방식을 연상시킨다. 또한 그는 외부현실을 죽은 지식으로 구성된 학문적 세계에 맞게 재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편집증적 권력자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킨은 자신의 허약한 신체를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 보완하고, 도서관의 이성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성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킨은 자신의 남성 판타지를 통해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성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여실히 드러낸다. 킨은 젠더 권력의 지형에서 주도권을 잃고 도서관에서 쫓겨난 뒤에도 책 구원사업을 이어나가며 이분법적 젠더 질서에서의 남성 헤게모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듯 킨의 이성중심주의는 여성 인물인 테레제와의 갈등 속에서 권력 추구와 결부된 편집증적 광기로 치닫는다.

다른 한편으로 킨은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점점 자기만의 비현실적인 세계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킨의 현실 인식에서 테레제의 치마는 수의로 변하며, 파프의 주먹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랗게 변

한다. 테레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던 킨은 결국 그녀를 시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테레제와의 권력 다툼에서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며, 이를 통해 카네티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주체의 정체성 회복 시도를 비판한다.

킨은 여성이 유발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인 눈’을 실명시키고 오로지 ‘정신적인 눈’을 통해서 외부현실을 인식하려 한다. 그런데 그 결과 킨은 극도로 폐쇄적인 자폐적 사고에 시달리게 되는 역설에 빠진다. 이성중심주의의 요새처럼 보였던 킨의 확고한 사고체계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으로 전환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신이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킨은 자신의 망상에서 사나운 사냥개로 변신함으로써 이러한 권력 관계의 전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냥개가 테레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사실에서 암시되듯이 동물적인 충동에 휩싸인 킨은 더 이상 이성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파프의 초소나 자신의 도서관에서 킨의 비이성적인 연상작용이 이어지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정신착란에 시달린다. 이러한 정신분열증적 착란은 군중에 속한 개인의 심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 개인의 합리적이고 명료한 질서를 해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네티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의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적 광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서술 전략을 사용한다. 킨은 여성혐오적인 과장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카네티는 이를 반복하고 강조함으로써 그가 편집증 환자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카네티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킨의 편집증적 광기가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그것이 왜 의사소통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카네티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내뱉는 무의미한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귀향의 서사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통해 이성중심주의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주인공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또한 그는 비일상적 구조를 갖춘 언어를 통해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를 재현한다. 그러나 카네티는 이와 동시에 의도적으로 그것의 허구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신분열증적 광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듯 카네티의 서술 전략은 편집증적 광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거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를 미학적으로 전유한다는 점에서 광기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카네티는 『현혹』에서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이라는 젠더 문제를 광기와 전면적으로 결부시켜 다루고 있다. 이때 주인공 킨의 광기는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 비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카네티는 서구 지성사에서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이분법적 젠더 질서를 광기의 미학을 통해 비판하고 해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혹』은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성과 광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이며, 카네티는 이를 통해 이성중심주의적 남성의 사고방식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적인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참고문헌

일차문헌

- 카네티, 엘리아스(강두식/ 박병덕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02.
카네티, 엘리아스(이온화 옮김): *현혹*. 지식의숲 2007.
Canetti, Elias: *Aufsätze - Reden - Gespräche*. München 2005.
Canetti, Elias: *Das Augenspiel*. Frankfurt a.M. 1995.
Canetti, Elias: *Die Blendung*. Frankfurt a.M. 1995.
Canetti, Elias: *Die Fackel im Ohr*. Frankfurt a.M. 1995.
Canetti, Elias: *Das Gewissen der Worte*. Frankfurt a.M. 1995.
Canetti, Elias: *Die Provinz des Menschen*. Frankfurt a.M. 1995.

이차문헌

카네티 관련 참고문헌

- 손택, 수전: *열정의 정신*. 실린 곳: 수전 손택(홍한별 옮김): *우울한 열정*. 이후 2005, 141-171쪽.
신현숙: *군중과 기만*. 카네티의 『현혹』을 중심으로.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33집(2015), 91-123쪽.
신현숙: *이성인가, 현혹인가?* 작품 『현혹』과 주인공 페터 킨.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61집(2013), 441-469쪽.
Bachmann, Beatrix: *Wahn und Wirklichkeit. Der Diskurs des Wahnsinns am Beispiel vo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Remscheid 1994.

- Barnouw, Dagmar: Elias Canetti zur Einführung. Hamburg 1996, S. 141-153.
- Dissinger, Dieter: Vereinzelung und Massenwah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Bonn 1971.
- Donahue, William Collins: "Eigentlich bist du eine Frau. Du bestehst aus Sensationen". Misogyny as Cultural Critique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71(1997), S. 668-700.
- Durzak, Manfred: Gespräche über den Roman. Frankfurt a.M. 1976, S. 86-127.
- Enzensberger, Hans Magnus: August-Lektüre. Elias Canetti *Die Blendung*. In: Gerhard Melzer/ Kurt Bartsch(Hrsg.): Dossier 25. Elias Canetti. Graz 2005, S. 140-143(urspr. In: Der Spiegel vom 7.8.1963).
- Fetz, Bernhard: Die Logik des Wahns. Brochs Buchhalter Esch und Canettis Büchernarr Kien. In: Penka Angelova(Hrsg.): Elias Canetti und Hermann Broch. St. Ingbert 2009, S. 13-28.
- Foell, Kristie A.: Blind Reflections. Gender i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California 1994.
- Foell, Kristie A.: Whores, Mothers, and Others. Reception of Otto Weininger's *Sex and character* in Elias Canetti's *Auto-da-Fé*. In: Nancy A. Harrowitz/ Barbara Hyams(ed.): Jews and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ennsylvania 1995, pp. 245-256.
- Furuya, Shinichi: Masse, Macht und Medium. Elias Canetti gelesen mit Marshall McLuhan. Bielefeld 2017.
- Haselberg, Peter von: Ein Roman-Experiment. In: Werner Hofmann(Hrsg.): Hüter der Verwandlung. Beiträge zum Werk von Elias Canetti. München 1985, S. 285-286(urspr. In:

- Frankfurter Zeitung, 12.4.1936. Literaturblatt, S. 18).
- Hanuschek, Sven: Elias Canetti. Biographie. München 2015.
- Helduser, Urte: Abstraktion und Re-Figuration. Kleiderdiskurs und Ästhetik des Ornaments i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Birgit Nübel/ Anne Fleig(Hrsg.): Figurationen der Moderne. Mode, Pornographie und Sport. München 2011, S. 83-101.
- Karst, Roman: Elias Canetti's *Die Blendung*. A Study in Insanity.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pp. 133-145.
- Knoll, Heike: Das System Canetti. Zur Rekonstruktion eines Wirklichkeitsentwurfes. Stuttgart 1993.
- Knoll, Heike: «Das Individuum ist für Canetti stets Exponent des Irrsinnigen». Die Kritik des Individuums bei Elias Canetti.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25/1(1995), S. 146-151.
- Liebrand, Claudia: Jahrhundertproblem im Jahrhundertroman. Die "Frauenfrage" in Canettis *Die Blendung*. In: Thomas Mann Jahrbuch 14(2001), S. 27-48.
- Madel, Michael: Solipsismus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Untersuchungen zu Thomas Bernhards Roman *Frost*, Arno Schmidts Erzählung *Aus dem Leben eines Fauns* und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Pieterlen u.a. 1990.
- Magris, Claudio: Der Schriftsteller, der sich versteckt.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S. 177-195.
- Moll, Björn: "Schreibschweigsamkeit" und "Schreibdiarrhöe". Vom Wert des Ungeschriebenen in Elias Canettis *Augenspiel*. In: Weimarer Beiträge.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Ästhetik und Kulturwissenschaften 65. H.4(2019), S. 541-563.
- Pambuccian, Victor: Elias Canettis *Blendung*. Darstellung eines nekrophilen Gelehrten. In: Psyche 41(1987), S. 915-928.

- Pankau, Johannes G.: Körper und Geist. Das Geschlechterverhältnis in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Colloquia Germanica* 23(1990), S. 146-170.
- Paul, Jean-Marie: Rationalität und Wahnsinn in Canettis Roman *Die Blendung*.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S. 111-131.
- Pöder, Elfriede: Spurensicherung. Otto Weininger in der *Blendung*. In: Friedbert Aspetsberger/ Gerald Stieg(Hrsg.): Elias Canetti. *Blendung als Lebensform*. Königstein/Ts 1985, S. 57-72.
- Roberts, David(Übersetzt von Helga Wagner/ Fred Wagner): Kopf und Welt. Elias Canettis Roman *Die Blendung*. München 1975.
- Sapper, Theodor: Zu *Die Blendung*. In: Gerhard Melzer/ Kurt Bartsch(Hrsg.): Dossier 25. Elias Canetti. Graz 2005, S. 139(urspr. In: *Tagespost*(Graz), Abendblatt vom 11.1.1936).
- Schuh, Franz: *Blendung als Lebensform*. In: Friedbert Aspetsberger/ Gerald Stieg(Hrsg.): Elias Canetti. *Blendung als Lebensform*. Königstein/Ts 1985, S. 29-44.
- Schmidt, Hugo: Narrative Attitudes in Canetti's *Die Blendung*.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16(1983), pp. 93-109.
- Schneider, Manfred: Die Krüppel und ihr symbolischer Leib. Über Canettis Mythos. In: Werner Hofmann(Hrsg.): *Hüter der Verwandlung. Beiträge zum Werk von Elias Canetti*. München 1985, S. 22-41.
- Sebald, W.G.: *Summa Scientiae. System und Systemkritik bei Elias Canetti*. In: ders.(Hrsg.): *Die Beschreibung des Unglücks. Zur österreichischen Literatur von Stifter bis Handke*. Frankfurt a.M. 2006, S. 93-102.
- Shin, Hyun-Sook: Wahrnehmung oder Erkenntnis? Das Sehen bei Elias Canetti. In: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49(2008), S. 151-170.

- Shin, Hyun-Sook: Wirklichkeitsphobie. Raum und Zeit im Wirklichkeitskonzept von Peter Kien in der *Blendung*. In: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124(2012), S. 303-330.
- Stephens, Anthony: Variationen über zwei Kafka-Erzählungen in Canettis *Die Blendung*. In: Gerhard Neumann(Hrsg.): Canetti als Leser. Freiburg 1996, S. 127-138.
- Stieg, Gerald: Otto Weiningers *Blendung*. Weininger, Karl Kraus und der Brenner-Kreis. In: Jacques Le Rider/ Norbert Leser(Hrsg.): Otto Weininger. Werk und Wirkung. Wien 1984, S. 59-68.
- Tyler, Simon: Homage or Parody? Elias Canetti and Otto Weininger. In: Ritchie Robertson(ed.): Gender and Politics in Austrian Fiction. Edinburgh 1996, pp. 134-149.
- Waldinger, Ernst: Comédie humaine an Irren. In: Werner Hofmann(Hrsg.): Hüter der Verwandlung. Beiträge zum Werk von Elias Canetti. München 1985, S. 286-289(urspr. In: Ernst Schönwiese(Hrsg.): das silberboot. Zeitschrift für Literatur 3(1936), S. 143f).
- Widdig, Bernd: Männerbünde und Massen. Zur Krise männlicher Identität in der Literatur der Moderne. Wiesbaden 1991.
- Wimmer, Marta: Poetik des Hasses in der österreichischen Literatur. Frankfurt a.M. 2014, S. 195-236.

그 밖의 참고문헌

- 김남시: 광기, 예술, 글쓰기. 자음과모음 2016.
- 다윈, 찰스(추한호 역): 인간의 기원 I. 동서문화사 2018.
- 르봉, 귀스타브(민문홍 옮김): 군중심리학. 책세상 2014.
- 모스, 조지(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현대 남성성의 창조. 문예출판사 2004.

- 모스코비치, 세르주: 군중의 시대. 문예출판사 1996.
- 바이닝거, 오토(임우영 옮김): 성과 성격.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발터, 빌리(탁선미 옮김): 젠더, 성, 남성연구. 실린 곳: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슈테판 잉에(탁선미 외 옮김):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 2002, 147-168쪽.
- 세세이에, 마르기리트(은홍배/ 정애자 옮김): 정신분열증 소녀의 수기. 하나의학사 1994.
- 슈레버, 다니엘 파울(김남시 옮김):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자음과모음 2010.
- 안삼환: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6.
- 이훈진/ 이준득: 정신분열증. 현실을 떠나 환상으로. 학지사 2016.
- 인성기: 바이닝어의 유아론(唯我論)과 용수의 공관(空觀).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40집(2008), 343-367쪽.
- 인성기: 빈 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장순란: 젠더연구로 본 서구 이분법적 성 질서. 독일어문학 제60집(2013), 273-295쪽.
- 정향균: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로서의 베른하르트의 『소멸』.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2집(2004), 623-655쪽.
- 정향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본 폰타네의 『에피브리스트』.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17집(2002), 1-18쪽.
- 프로이트, 지그문트: 편집증 환자 슈레버. 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실린 곳: 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 늑대 인간. 열린책들 2004, 103-193쪽.
- Bahr, Hermann: Das Unrettbare Ich. In: ders.: Dialog vom Tragischen. Vezensy 2009, S. 60-77.
- Beller, Steven: Otto Weininger as Liberal? In: Nancy Harrowitz(Hrsg.): Jews and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hiladelphia 1994, pp. 91-101.
- Benjamin, Walter: Kant als Liebesratgeber. In: ders.: Gesammelte

- Schriften IV·2. Hrsg. von Tillman Rexroth. Frankfurt a.M. 1991, S. 811–815.
- Erhart, Walter: Männlichkeit als Kategorie der postmodernen Kondition. In: Paul Michael Lützler(Hrsg.): Räume der literarischen Postmoderne. Gender, Performativität, Globalisierung. Tübingen 2000, S. 127–146.
- Gabriel, Gottfried: Solipsismus. Wittgenstein, Weininger und die Wiener Moderne. In: ders.: Zwischen Logik und Literatur. Erkenntnisformen von Dichtung,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Stuttgart 1991, S. 89–108.
- Gamper, Michael: Masse lesen, Masse schreiben. Eine Diskurs- und Imaginationsgeschichte der Menschenmenge 1765–1930. München 2007.
- Genette, Gérard: Die Erzählung. Aus dem Französischen von Andreas Knop. München 1998.
-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Frankfurt a.M. 1995.
- Horlacher, Stefan/ Jansen, Bettina/ Schwanebeck, Wieland(Hrsg.): Männlichkeit.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Stuttgart 2015.
- Hyams, Barbara/ Harrowitz, Nancy A.: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Weininger Reception. In: Nancy Harrowitz(Hrsg.): Jews and Gender. Responses to Otto Weininger. Philadelphia 1994, pp. 3–20.
- Janik, Allan: Weininger und die Kultur des Narzißmus. In: Frank Benseler/ Werner Jung(Hrsg.): Lukács.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Georg-Lukács-Gesellschaft. Bielefeld u.a. 2000, S. 225–238.
-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Ers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1983, S. 51–61.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Köln 2011.
- Kant, Immanuel: Von den Schwächen und Krankheiten der Seele in Ansehung ihres Erkenntnisvermögens.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Zwei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10). Darmstadt 1983, S. 512–537.
- Kant, Immanuel: Vom Erkenntnisvermögen.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Zwei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10). Darmstadt 1983, S. 445–458.
- Kant, Immanuel: Von der Macht des Gemüts, durch den blossen Vorsatz seiner krankhaften Gefühle Meister zu sein. In: ders.: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Erster Teil (=Werke in zehn Bänd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d. 9). Darmstadt 1983, S. 369–393.
- Kaufman, Michael: Die Konstruktion von Männlichkeit und die Triade männlicher Gewalt. In: Stefan Beier u.a.(Hrsg.): Kritische Männerforschung. Neue Ansätze in der Geschlechtertheorie. Hamburg 2001, S. 138–171.
- Le Rider, Jacques: Das Ende der Illusion. Die Wiener Moderne und die Krisen der Identität. Wien 1990.
- Le Rider, Jacques: Der Fall Otto Weininger. Wurzeln des Antifeminismus und Antisemitismus. Wien 1985.
- Mach, Ernst: Antimetaphysische Bemerkungen. In: ders.: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 Jena 1919, S. 1–30.

- Müller-Funk, Wolfgang: Negative Imagologie. Österreich-Konstruktionen in Thomas Bernhards Roman *Auslöschung*. In: Zeitschrift für Deutschsprachige Kultur & Literaturen 24(2015), S. 309-333.
- Ritter, Joachim/ Gründer, Karlfried: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5. Basel 1980, S. 826-832.
- Schuhen, Gregor: Crisis? What Crisis? Männlichkeiten um 1900. Eine Einleitung. In: ders.(Hrsg.): Der verfasste Mann. Männlichkeiten in der Literatur und Kultur um 1900. Bielefeld 2014, S. 7-18.
- Seidler, Victor: Vernunft, Moral und Männlichkeit. In: Stefan Beier u.a.(Hrsg.): Kritische Männerforschung. Neue Ansätze in der Geschlechtertheorie. Hamburg 2001, S. 111-137.
- Theweleit, Klaus: Männerphantasien. Berlin 2019.
- Tholen, Toni: "Krise der Männlichkeit". Zur Konzeptualisierung eines häufig verwendeten Topos. In: ders.: Männlichkeiten in der Literatur. Konzepte und Praktiken. Bielefeld 2015, S. 45-49.
- Weber, Dietrich: Erzählliteratur. Göttingen 1998.
- Weininger, Otto: Über die letzten Dinge. Berlin 1980.

인터넷 자료

- Grünwald, Matthias: Isenheimer Altar. (<https://www.suedkurier.de/ueberregional/kultur/Wer-war-nur-dieser-Matthias-Gruenewald-Im-Elsass-wird-jetzt-sein-Isenheimer-Altar-restauriert;art10399,9992875>, 10.6.2020)
- Jäger, Stefan: Elias Canetti in Wien. Der Justizpalastbrand und das Feuer als Symbol der Masse. (<https://literaturkritik.de/id/19584>, 10.6.2020)
- Kohnen, Stephan: Über Kants *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 - oder: Was ist Subjektivität? (PDF)
(http://philosophersonly.de/index.php?section=media1&act=download&path=/media/archive1/texte_bernd_mollowitz/&file=kant_krankheiten_des_kopfes_kohnen.pdf, 10.6.2020)

Schneider, Manfred: Kritik der Paranoia. Elias Canetti und Karl Kraus. (<https://literaturkritik.de/id/8320>, 10.6.2020)

Weininger, Otto: Geschlecht und Charakter. Wien/ Leipzig 1903.
(Projekt Gutenberg eBook 2016.
<http://www.gutenberg.org/files/51221/51221-h/51221-h.htm>,
10.6.2020)

<https://de.wikipedia.org/wiki/Paranoia#Begriffsgeschichte>(10.6.2020)

Zusammenfassung

Von der Paranoia zur Schizophrenie

– Ästhetik des Wahnsinns und Kritik an der
logozentrischen Männlichkeit in *Die Blendung*
von Elias Canetti

Kim, Tae-Wan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e ich auf zwei eng miteinander verbundene Themen im Roman *Die Blendung* von Elias Canetti ein, nämlich Wahnsinn und Gender(Männlichkeit). Der Protagonist Peter Kien legt großen Wert auf Wissenschaft, Ordnung und Vernunft. Er verkörpert insofern die logozentrische Männlichkeit in der binären Geschlechtsordnung, als er Logik und Klarheit für wichtig hält, während er Frauen als irrationale Sexualwesen betrachtet und daher eine Abneigung gegen sie hegt. Allerdings kommt in diesem Roman dem vernünftigen männlichen Subjekt Kien keine positive Bedeutung zu. Vielmehr wird sein Logozentrismus kritisiert bzw. aufgelöst, indem er als wahnsinnige Figur beschrieben wird.

Canetti enthüllt Kien, der die logozentrische Männlichkeit vertritt, als Paranoiker, der an seinen Wahnvorstellungen festhält. Kien, auf Unangreifbarkeit versessen, nimmt die Wirklichkeit nur durch die wissenschaftlichen Begriffe wahr. Dabei urteilt er, der im wissenschaftlichen Bereich absolute Autorität besitzt, über die Frauen auf der Grundlage seines a priori bestimmten misogynen Denkmusters. In seinen Wahnvorstellungen verwandelt Kien seine Bücher und Bibliothek in einen Panzer, der ihm zum Wegjagen seiner Frau und zu seiner Vormachtstellung verhilft. In dieser Männerphantasie versucht er seinen Frauenhass und seine Machtgier zu rechtfertigen. Außerdem versucht Kien blindlings die Bücher zu retten, weil er glaubt, dass man sie misshandelt. Dahinter steckt aber die Absicht, die in der Beziehung zu seiner Frau verlorene Macht zurückzugewinnen. Canetti entlarvt also die logo- und androzentrische Denkform als ein paranoides System, das auf Frauenfeindlichkeit und Machtgier basiert.

Im Machtkampf mit Therese leidet Kien unter einem Realitätsverlust, dem Leitsymptom der Schizophrenie. In seinen Halluzinationen hält er sie für eine Leiche. Aber da der Wahn des Schizophrenen in der Wirklichkeit wirkungslos bleibt, scheitert sein Versuch einer Wiederherstellung der Souveränität. Kien blendet seine leiblichen Augen und schließt sich von allem, was er sinnlich wahrnimmt, ab. Darüber hinaus entsteht bei ihm das äußerst abgeschlossene autistische Denken. In seinen irrealen Wahnvorstellungen verwandelt er sich in einen Fleischerhund, der den Rock von Therese in Stücke zerbeißt. Dies weist zum einen darauf hin, dass er nach Vormachtstellung strebt, zum anderen aber auch darauf, dass er nicht mehr seinem inneren tierischen Trieb widerstehen kann. Schließlich wird die logozentrische Männlichkeit

aufgelöst, wenn sich das äußerst rationale Gedankengebäude von Kien am Romanende in ein assoziatives und chaotisches des Schizophrenen wandelt.

Auch auf der erzählstrategischen Ebene lässt sich die kritische Haltung des Autors gegenüber dem Wahnsinn der logozentrischen Männlichkeit feststellen. Canetti setzt sich kritisch mit der der logozentrischen Männlichkeit inhärenten paranoiden Denkweise auseinander, indem er die übertriebene Sprache von Kien wiederholt und Kommunikationssituationen herstellt, in denen keiner der Paranoiker den anderen versteht. Canetti übernimmt auch die Sprache des Schizophrenen, die in ästhetischer Weise umfunktioniert wird. Wenn sich die unsinnige Sprache des Schizophrenen in *Die Blendung* wiederholt, wird angedeutet, dass Kien nicht mehr in seine auf dem Logozentrismus basierende geistige Heimat zurückkehren kann. Außerdem rekonstruiert Canetti zwar das Innere von Kien mittels der schizophrenen Sprache, enthüllt diese jedoch als eine bloß fiktive sprachliche Konstruktion, was seine kritische Distanz zum schizophrenen Wahnsinn zeigt.

Schlüsselwörter: Paranoia, Schizophrenie, logozentrische Männlichkeit, Macht, Erzählstrategie, Ästhetik des Wahnsinns, Canetti

Student-Nummer: 2018-20333